

대치동 씨앤에이논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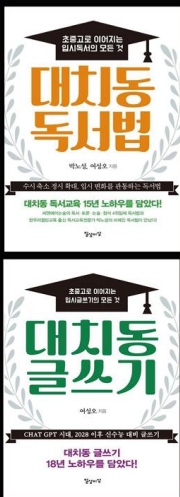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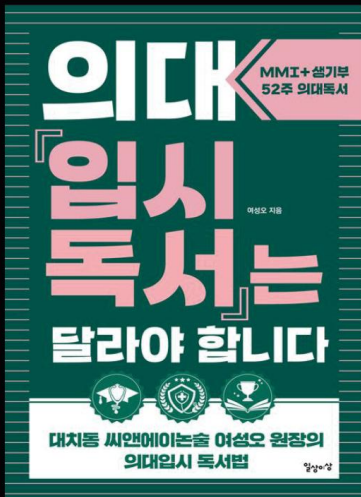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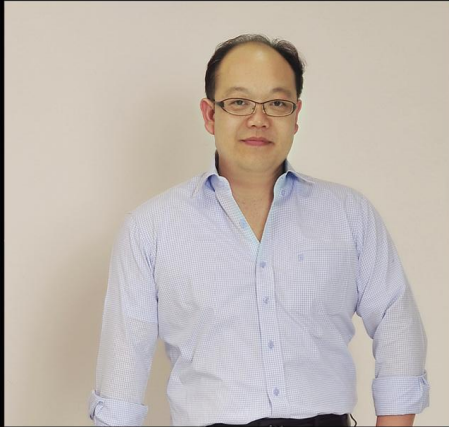
zoom 설명회

일시 : 4월 13일(월요일) 오후 9시

수시논술과 수능국어 특집!

1부 - 수시논술

연사 : 여성오 대치본원 원장
(대일외고 명덕외고 방과후논술 출강)



2부 - 수능국어

연사 : 이경은 원장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
前 대치본원 대표강사
광주 남구배움터 원장

Zoom 설명회

ID - 695 045 7173
PW - 0628

대치동 씨앤에이논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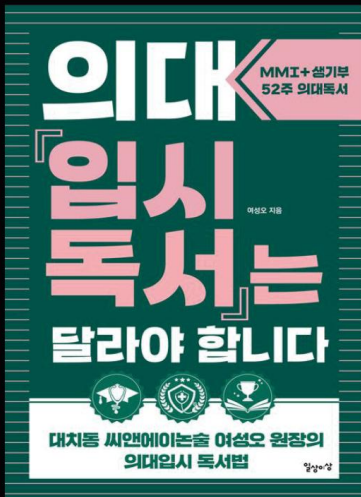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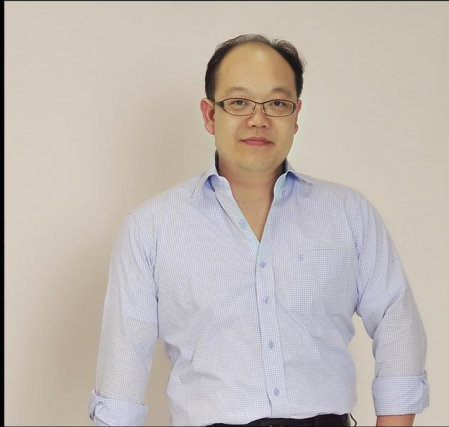
zoom 설명회

일시 : 4월 13일(월요일) 오후 9시

수시논술과 수능국어 특집!

1부 - 수시논술

연사 : 여성오 대치본원 원장
(대일외고 명덕외고 방과후논술 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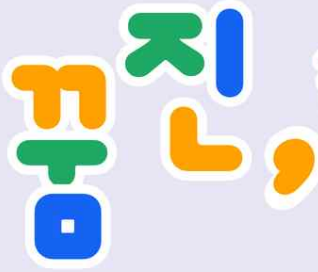


2부 - 수능국어

연사 : 이경은 원장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
前 대치본원 대표강사
광주 남구배움터 원장

Zoom 설명회

ID - 695 045 7173
PW - 0628



꿈을 만들어 가는 진로 진학교실

경기진학정보센터

발행처 : 경기진학정보센터 집필진 : 꿈진집필위원단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의 이해

2027학년도 논술전형의 특징 및 주요 변경 사항

시행대학 및 모집인원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2,712명을 선발(수시모집 인원의 4.77%) (전년 대비 131명 감소) • 총 44개교에서 시행 • 단국대[천안] 논술 폐지 • 중앙대 '논술<창의형>'전형, 홍익대[세종] 인문논술 신설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고사 비중 증가, 학생부 비중 감소 추세 • 일부 대학 논술 100% 선발(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대학: 36개교
계열별 출제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계열 : 언어논술 중심으로 출제, 일부 모집단위에서 통계문항, 수리논술 문항, 영어 제시문 출제 • 자연계열 : 수리논술 중심으로 출제, 일부 모집단위에서 과학논술 출제 • 약술형 논술 : 국어문항과 수학문항 위주, 짧은 논술형 문항 출제

논술전형 실시 대학 및 반영비율

2027학년도 논술전형은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131명 감소한 가운데, 중앙대 '논술<창의형>'전형과 홍익대[세종] 인문계열에서 논술전형을 신설했습니다. 반면, 단국대[천안]은 기존에 운영하던 논술전형을 폐지하였습니다. 논술전형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교과성적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논술고사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단위: %]

대학	논술	교과	기타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국민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강대, 서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대, 한국외대[글로벌], 한국항공대, 한양대	100	-	-
경기대, 단국대, 상명대★, 숙명여대, 숭실대, 신한대★, 연세대[미래], 홍익대, 홍익대[세종]★	90	10	-
강남대★, 광운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세종대, 아주대, 을지대★, 인하대, 한국공학대★, 한신대★	80	20	-
수원대★	75	25	-
경북대, 서울과학기술대	70	30	-
동국대, 중앙대, 중앙대[다빈치]	70	20	10(출결)

※ ★표시는 약술형 논술 실시 대학임.



인문계열 논술고사 유형

인문계열 논술은 언어논술을 바탕으로 대학이나 모집단위에 따라 통계자료나 수리논술 문항을 포함하기도 하고, 영어 제시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유형별로 요구하는 역량이 각기 다르므로, 반드시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시모집 논술전형 인문계열 논술고사 유형 예시(2025학년도 기준)

유형		대학
언어 논술	비문학 제시문 중심	경기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부산대, 서강대, 세종대, 중앙대(인문사회), 아주대, 한양대(인문), 홍익대(인문)
	문학 제시문 포함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성균관대, 세종대
	영어 제시문 포함	이화여대(인문 I), 한국외대(인문)
	통계자료 포함	건국대, 경북대, 고려대, 단국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송실대(인문), 연세대[미래], 인하대, 한국외대(사회), 한국항공대, 홍익대(인문)
	영어 제시문, 통계자료 포함	연세대
상경논술 (수리형 포함)		건국대(인문사회II), 경희대(사회), 송실대(경상), 이화여대(인문II), 중앙대(경영경제), 한양대(상경)
약술형 논술	국어+수학	가천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수원대, 신한대, 을지대, 한신대
	국어+사회	한국기술교육대
	수학	한국공학대

※ 2025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기준으로 함. <출처: 2027학년도 대입상담 역량강화 자료집>

자연계열 논술고사 유형

자연계열 논술은 대학이나 모집단위에 따라 수리논술, 과학논술, 의학 자료 해석 등 출제 유형이 다양합니다. 연세대의 통합형 제시문 출제와 같이 논술고사 유형에 변화가 있는 대학들이 있으므로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을 통해 논술고사 방법에 대해 확인하고, 논술 가이드북과 기출문제 등을 분석하여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수시모집 논술전형 자연계열 논술고사 유형 예시(2025학년도 기준)

유형		대학
수리논술		가천대(의예),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수리형),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송실대, 아주대(자연), 연세대, 연세대[미래],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국외대[글로벌], 한국항공대, 한양대, 홍익대
수리+과학선택 [물/화/생 중 택1 (과제 포함)]		경희대(의약학)
수리+과학지정 [생I, 생II]		아주대(의학)
수리+과학통합 [통과, 물, 화, 생I, 지 등]		경북대(의예, 치의예, 수의예 제외),
수리+의학+과학지정 [통과, 생I, 생II 등]		경북대(의예, 치의예, 수의예)
국어 언어형 논술		성균관대(언어형)(자연계열 모집단위)
약술형 논술	수학+국어	가천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수원대, 신한대, 을지대, 한신대
	수학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육대, 홍익대[세종]

※ 2025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기준으로 함. <출처: 2027학년도 대입상담 역량강화 자료집>



▶ 논술전형 - 약술형 논술

약술형 논술은 인문계열논술이나 자연계열논술에 비해 문항 구조가 단순하고 작성해야 할 답안 분량도 적은 편입니다. 주로 국어교과와 수학교과의 수능 공통 범위에서 출제되며, 대부분의 대학이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활용해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 대학의 기출문제와 논술 가이드북, 모의논술 문제 등을 통해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유형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약술형 논술 실시 대학 유형 분석

대학	계열	출제유형		고사 시간	출제 범위		수능최저학력기준	
		국어	수학		국어	수학		
가천대	인문	9문항	6문항	80분	국어, 문학, 독서, 화법, 작문, 문법	수 I, 수 II	인문/자연	국,수,영,탐(1) 1개 3
	자연	6문항	9문항				바이오로직스	국,수,영,탐(1) 2합 5
강남대	인문 사회	8문항	2문항	60분	문학, 독서	수 I, 수 II	-	
	자유	5문항	5문항					
	자연	3문항	7문항					
국민대	인문	8문항	2문항	90분	국어, 문학, 독서	수학, 수 I, 수 II	국,수,영,탐(1) 2합 6	
	자연	2문항	8문항		국어, 문학, 독서	수학, 수 I, 수 II, 미적분	국,수,영,과(1) 2합 6	
삼육대	인문	9문항	6문항	80분	화법, 작문, 문학, 독서, 문법	수 I, 수 II	국,수,영,탐(1)(사/과/직) 1개 3	
	자연	6문항	9문항					
상명대	인문	8문항	2문항	60분	국어, 문학, 독서, 화작, 언매	수 I, 수 II	-	
	자연	2문항	8문항					
서경대	미래 자유	4문항	4문항	60분	문학, 독서	수 I, 수 II	-	
수원대	인문	10문항	5문항	80분	독서, 문학	수 I, 수 II	-	
	자연	5문항	10문항					
신한대	인문	9문항	6문항	80분	문학, 독서	수 I, 수 II	-	
	자연	6문항	9문항					
을지대	인문 자연	7문항	7문항	70분	언매, 독서, 문학	수 I, 수 II	-	
한국공학대	경영 자연	-	9문항	80분		수 I, 수 II	-	
한국기술교육대	사회	자료제시형 언어논술 10문항 내외	-	80분	국어, 사회	수 I, 수 II	-	
	공학	-	수리논술 10문항 내외					
한신대	인문	10문항	5문항	80분	문학, 독서	수 I, 수 II	-	
	자연	5문항	10문항					
홍익대[세종]	인문	-	-	-	-	-	2027 수시모집 요강 참조	
	자연	-	7문항	70분	-	수 I, 수 II	국,수,영,탐(1) 1개 4	

※ 홍익대[세종] 인문계열은 2027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신설함. 2026년 5월 말에 발표되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안내

2027학년도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변경된 대학이 있습니다. 부산대(인문), 송실대, 홍익대 등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였고, 연세대[미래]는 폐지하였습니다. 반면, 동덕여대와 한국외대[글로벌]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앙대는 전형에 따라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지원 전에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대학

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인문	가천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강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송실대, 이화여대, 중앙대(일반형), 한국외대, 한국외대[글로벌], 한국항공대, 한양대, 홍익대	경북대, 고려대[세종], 부산대, 홍익대[세종]	
자연	가천대, 가톨릭대(의,약,간호),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강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송실대, 아주대(의,약), 이화여대, 중앙대(일반형), 한국외대(Language & AI 융합학부), 한국외대[글로벌], 한국항공대, 한양대, 홍익대	경북대, 고려대[세종], 부산대, 홍익대[세종]	
선택과목 지정	수(미/기)+과탐	가천대(의,약,한), 삼육대(약학)	고려대[세종](약학)
	과탐	가톨릭(의,약), 국민대(자연), 인하대(의예)	경북대(모바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대학

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인문/ 자연	가톨릭대(의,약,간호 제외), 강남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수원대, 신한대, 아주대(의,약 제외), 연세대, 을지대, 인하대(의예 제외), 중앙대(창의형), 중앙대[다빈치], 한국공학대, 한신대	한국기술교육대, 연세대[미래]

참고자료

1.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각 대학 입학처)
2. 2027학년도 대입정보119(한국대학교육협의회)
3. 2026학년도 수시모집 요강(각 대학 입학처)
4. 쉐(SEN)진학 2027대입 고3 학년초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5. 2027학년도 대입상담 역량강화 자료집(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각 대학별로 세부사항이 변동될 수 있으니, 수험생 여러분은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지사항과 모집요강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교육기관 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빨간색: 필수 반영)	비고	
가천대	인문/자연	국,수,영,탐(1) 1개 3		
	바이오로직스학과	국,수,영,탐(1) 2합 5		
	의예	국,수(미/기),영,과(2/절사) 3개 각 1		
	약학	국,수(미/기),영,과(2/절사) 3합 5	[2026]미선발	
	한의예	국,수(미/기),영,과(2) 2개 각 1 (과학탐구 적용시 2과목 모두 1등급)	[2026]미선발	
가톨릭대	의예	국,수,영,과(2/절사) 3합 4, 史4	국,수,영,탐 필수 응시	
	약학	국,수,영,과(1) 3합 5		
	간호	국,수,영,탐(1) 3합 7		
건국대	수의예	국,수,영,탐(1) 3합 4, 史5	국,수,영,탐 필수 응시	
	인문/자연/KU자유	국,수,영,탐(1) 2합 5, 史5		
경북대	의예	국,영,탐(2/반올림) 2개와 수학 등급 합 4	[2026] 국,수,영 2개와 탐(2/반올림) 3합 4	
	치의예	국,영,탐(2/절사) 2개와 수학 등급 합 4	[2026] 국,수,영 2개와 탐(2/절사) 3합 4	
	수의예, 약학	국,영,탐(2/절사) 2개와 수학 등급 합 5	[2026] 국,수,영 2개와 탐(2/절사) 3합 5	
	인문, 사회, 자연, 농생명, 생활과학	국,수,영,탐(1) 2합 6		
	모바일공학	수,과(2/절사) 2합 3		
	경상, 사범, 간호, 행정, 자율전공	국,수,영,탐(1) 2합 5		
	공과, 첨단기술융합, 공학첨단자율	국,수,영,탐(1) 2합 6		
	IT대학	국,수,영,탐(1) 2합 5		
경희대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	국,수,영,탐(2) 3합 4, 史5		
	인문/자연/자율	국,수,영,탐(2) 2합 5, 史5		
	체육	국,수,영,탐(2) 1개 3		
고려대	인문/자연	국,수,영,탐(1) 4합 8, 史4		
고려대 [세종]	약학	국,수(미/기),영,과(2) 3합 5		
	인문/자연/예체능	국,수,영,탐(1) 2합 6		
국민대	인문	국,수,영,탐(1) 2합 6		
	자연	국,수,영,과(1) 2합 6		
덕성여대	약학	국,수,영,탐(1) 3합 5 (영어와 사탐은 상위 1개만 적용)	[2026] 국,수,영,탐(1) 3합 5	
	글로벌융합	국,수,영,탐(1) 2합 7 (제2외국어/한문 ⇄ 영어 대체 가능)	[2026] 국,수,영,탐(1) 2합 7	
	과학기술	국,수,영,탐(1) 2합 7		
동국대	인문	국,수,영,탐(1) 2합 5, 史4		
	경찰행정	국,수,영,탐(1) 2합 4, 史4		
	컴퓨터·시	인문	국,수,영,탐(1) 2합 5, 史4(수학 포함)	
		자연	국,수,영,탐(1) 2합 5, 史4(수/과탐 1개 이상 포함)	
	자연	국,수,영,탐(1) 2합 5, 史4(수/과탐 1개 이상 포함)		
	약학	국,수,영,탐(1) 3합 4, 史4(수/과탐 1개 이상 포함)		
동덕여대	인문/자연	국,수,영,탐(1) 2합 6	[2026] 국,수,영,탐(1) 2합 7	

※ 2026년 5월 말에 발표되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빨간색: 필수 반영)	비고
부산대	의예	국,수,영,탐(2) 3합 4, 史4	국,수,영,탐(2) 필수 응시
	약학	국,수,영,탐(1) 3합 4, 史4	국,수,영,탐(2) 필수 응시
	자연과학, 공과, 학부 사범(자연), 나노과학, 정보의생명	국,수,영,탐(1) 2합 5, 史4 (탐구 2과목 중 과탐 1과목 이상 필수 응시)	국,수,영,탐(2) 필수 응시 [2026] 국,수,영,탐(1) 2합 4(일부 학과)
	인문/인문(사범)/ 예술	국,수,영,탐(1) 2합 5, 史4	
	경영	국,수,영,탐(1) 3합 7, 史4	
	통계, 산업공학	국,수,영,탐(1) 2합 5, 史4	
삼육대	약학	국,수(미기),영,과(1) 3합 5	
	인문/자연	국,수,영,탐(1)(사/과/직) 1개 3	
서강대	인문/자연	국,수,영,탐(1) 3합 7, 史4	
성균관대	의예	국,수,영,탐(2) 4합 5	
	글융, 인문, 사회, 경영, 자연, 공학, 건설환경	국,수,영,탐(2) 3합 6	◎ 제2외국어/한문 ⇄ 탐구 1과목 대체 가능 ◎ 과(1)/ 탐구(2) 평균 중 우수 등급 반영
	자유, 글리, 글경제, 글경영, 전자전기, 반도체시스템, 소프트, 에너지, 글바메, 지능형소프트, 반도체융합, 약학	국,수,영,탐(2) 3합 5	◎ 자연, 공학, 건설환경, 전자전기, 소프트 : <언어형>에 지원할 경우 수학 필수 반영 [2026] 국,수,영,탐,탐 3합 5~6
성신여대	인문/자연	국,수,영,탐(1)(사/과/직) 2합 7	
세종대	인문/자연/자유전공	국,수,영,탐(1) 2합 5	
숙명여대	약학	국,수,영,탐(1) 3합 4	
	인문/자연	국,수,영,탐(1) 2합 5	
송실대	인문/자연	국,수,영,탐(1) 2합 6	[2026] 국,수,영,탐(1) 2합 5
아주대	의학	국,수,영,탐(2) 4합 6	
	약학	국,수,영,탐(2) 3합 5	
이화여대	의예	국,수,영,탐(1) 4합 5	
	약학	국,수,영,탐(1) 4합 6	
	인문	국,수,영,탐(1) 2합 5	
	자연	국,수,영,탐(1) 2합 5	
	스크랜튼학부	국,수,영,탐(1) 3합 5	
인하대	의예	국,수,영,과(2) 3개 1	
중앙대	의학	국,수,영,탐(2) 4합 5, 史4	<일반형> 영어 2등급은 1등급으로 인정
	약학	국,수,영,탐(1) 4합 5, 史4	
	인문/자연	국,수,영,탐(1) 3합 6, 史4	
한국외대	인문/자연	국,수,영,탐(1) 2합 4	[2026] 국,수,영,탐(1) 2합 3~4, 史4
한국외대 [글로벌]	인문/자연	국,수,영,탐(1) 2합 6	[2026] 국,수,영,탐(1) 1개 3, 史4
한국항공대	인문/자연	국,수,영,탐(1)(사/과/직) 2합 6	
한양대	의예	국,수,영,탐(2) 3합 4	국,수,영,탐(2) 필수 응시
	인문/자연	국,수,영,탐(1) 3합 7	국,수,영,탐(2) 필수 응시
홍익대	인문/자연	국,수,영,탐(1) 2합 5, 史4	[2026] 국,수,영,탐(1) 3합 8, 史4
홍익대 [세종]	인문/자연	국,수,영,탐(1) 1개 4	

※ 2026년 5월 말에 발표되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논술전형, 과학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서울대 수시 구술면접고사와 의대 mmi, 그리고 연고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의 수시 논술전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합격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시 전형이므로 경쟁률을 고려한 출제와 채점 원칙입니다.
2. 수시 1단계 합격 인원으로 학과별 2배수를 선발하는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의 구술면접고사와 의대 mmi의 경우 둘 중 하나를 뽑으면 됩니다. 그러나, 2026학년도 수시 논술전형 연세대 경영학과의 경우 15명 모집에 1,231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82:1입니다. 고려대 경영학과의 경우 12명 모집에 2,047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170:1입니다.
3. 수능 전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연세대(2026년의 경우 9월 27일)와 수능 후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고려대(2026년의 경우 11월 16일)의 경쟁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연세대와 4과목 등급합 8 이내를 요구하는 고려대의 실질 경쟁률은 또 다릅니다. 어떻게요?
4. 2008학년도 이후 20년 가까이 수시 논술전형 지원 전략과 합격/불합격 사례를 누적해 온 전문가의 시선에서 올바른 수시 논술전형 대비 방향과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왜 강남권 일반고나 외고/국제고에서 수시 6장을 연고서성한중(이)처럼 상향 지원을 하게 되는지? 수능과 논술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의논드리겠습니다.



대학	반영 방법	수능 최저학력 기준	2026학년도 일정 및 특징
성신여대	논술90+학생부10%	2합7 탐1	9.29(일) 100분
가톨릭대	논술80+학생부20%	X	10.6(일) 90분
홍익대	논술90+학생부10%	3합8 탐1	10.6(일) 120분
연세대	논술100%	X	10.12(토) 120분 (M)+E
단국대	논술80+학생부20%	X	11.2(토) 120분
2026.11.19(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송실대	논술80+학생부20%	2합5 탐1	11.16(토) 120분 경상M
성균관대	논술100%	국수영탐탐 5개 영역 3합6 제2외국어탐구호환 글로벌학과 5개 영역 3합5 제2외국어탐구호환	11.16(토) 100분
건국대	논술100%	2합5 탐1	11.16(토) 100분 상경M
서울여대	논술80+학생부20%	국수영 중 1개 3등급 → 수능 최저 X	11.16(토) 90분
숙명여대	논술90+학생부10%	2합5 탐1	11.16(토)+17(일) 120분
경희대	논술100%	2합5 탐2평균(2025 실질 15:1) 한의예 3합4 탐1	11.16(토)+17(일) 120분 사회M
고려대	논술100%	4합8 탐1(2025 총족률51% 실질 경쟁률 9:1)	11.17(일) 8:30 경영 문과대 식자경 국제 12:30 정경대 사범 미디 보건 자전 심리
서강대	논술100% 변경	3합7 탐1(2025 총족률32% 실질 경쟁률 25:1)	11.17(일) 100분
동국대	논술70+학20+출결10%	2합5 탐1 경찰행정 국수영 중 2합4	11.17(일) 100분
경기대	논술60+학생부40%	X	11.22(수) 120분
연세대 미래	논술100%	2합7 탐1 간호 2합4 탐1 → 2합5 탐1	11.22(금) 120분
동덕여대	논술100%	2합7 탐1	11.23(토) 90분
세종대	논술70+학생부30%	2합5 탐1	11.23(토) 120분
한양대	논술90+학생부10%	3합7 탐1(2026 신설)	11.23(토) 90분 상경M
한국외대	논술100%	2합4 탐1 LD LT 2합3 탐1	11.23(토)+24(일) 100분
한국외대 글로벌	논술100%	3등급 1개	
이화여대	논술100%	3합6 탐1 → 2합5 탐1(2026) 스크랜튼 3합5 탐1	11.23(토) 100분 인문1E 인문2M
덕성여대	논술100%	2합7 탐1	11.24(일) 90분
중앙대	논술70+학생부30%	3합6 탐1 영어 1등급 2등급 모두 1등급 간주 수능 최저없는 창의형 논술전형 신설(86명 모집)	11.24(일) 120분 경영경제M
광운대	논술70+학생부30%	X	11.24(일) 120분
인하대	논술70+학생부30%	X	11.30(토) 120분
아주대	논술80+학생부20%	X	12.1(일) 120분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2026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인문학]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는 성숙한 도덕적 주체로 거듭난다. 왜 어떤 행위가 그르니 설명할 능력을 결여한 채 그저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말에 따라 이 행위가 그르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이 행위의 그름에 대한 도덕적 이해에 도달했다고 할 수 없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그르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왜 그런지를 스스로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로부터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추론해 낼 수 있어야 하며, 유사한 이유로부터 유사한 결론을 추론해 낼 수도 있어야 한다. 예컨대, 누군가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것이 그르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개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의식적 존재라는 정보로부터 반려견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양이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 역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도덕적 이해의 핵심은 일인칭적 경험이다. 조지 오웰은 버마에서 목격한 처형 장면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 순간에서야 나는 의식을 지닌 건강한 인간을 죽인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사형수가 두 어깨를 붙잡힌 상태에서 물웅덩이를 피해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만조에 다다른 삶을 끊어버리는 것의 불가사의함을, 그 형언할 수 없는 그릇됨을 보았다.” 이때 오웰이 처형 장면의 경험을 통해 왜 사형이 잔혹한지를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이나 그의 도덕적 이해 능력이 확장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가 이 상황에서 이유를 따져 추론을 했다거나, 그의 도덕적 추론 능력이 확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될 것인지 상상하지 않으면 그 감정에 대해 어떤 관념도 형성할 수 없다.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상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당사자는 느낄 수 없을 것 같은 열정을 관찰자가 상상을 매개로 느끼기도 한다. 나아가,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상상해 도덕적 이해에 이르기도 한다. 누군가가 분노의 충동에 싸여 다른 이에게 적개심을 표출하고 싶다고 하자. 분노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해도, 과도한 분노의 표출은 사회적으로 유쾌하지 않은 행위이다. 그는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즉각적 감정과 사적 이익을 초월하여 모두의 이해를 고려하는 관찰자를 상상해야 한다. 이 내재적

관찰자가 분노를 긍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 이렇듯 스스로의 행동을 상상된 관찰자의 시각으로 반추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조절과 도덕적 판단을 수행한다. 이 내재적 관찰자는 편견이 없는 공정한 관찰자로 개인과 사회의 조화에 기여한다.

[문제 1] 도덕적 이해에 대한 (가)와 (나)의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른 하나를 비판하시오.

[문제 2] 문학을 통한 도덕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가), (나), (다)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여 이 주장을 뒷받침하시오.

<p>활용 모집단위</p>	<p>학부대학(자유전공학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제외) 사범대학(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소비자아동학부 아동가족학전공)</p>
<p>문항해설</p>	<p>[문제 1] 행위가 왜 옳고 그른지를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도덕적 추론 능력이 도덕적 이해의 핵심이라고 보는 견해와, 도덕적 의의를 지닌 상황을 체험하는 것이 도덕적 이해의 핵심이라고 보는 견해 중 자신이 더 공감하는 견해를 바탕으로 상대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라는 문제이다.</p> <p>[문제 2] 문학이 상상, 공감, 감정을 매개로 한 간접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을 (다)와 연결시켜 도덕적 이해가 가능한 근거를 설명하고, 문학 독해에 추론, 직접 경험, 상상의 기제가 동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가), (나), (다)를 모두 사용해 분석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이다.</p> <p>문학의 도덕적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 (가), (나), (다)의 유기성을 파악하지 않은 채 각 지문과의 개별 비교에 주목하거나, [문제 1]에서 사용했던 (가)와 (나)의 대조적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 1]의 근거를 반복할 경우,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거나, 추론, 직접 경험, 상상의 동시적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p>
<p>출제의도</p>	<p>[문제 1] 도덕적 이해의 요건에 대해 (가)와 (나)가 보이는 차이에 대한 분석적 이해력을 평가하고, 두 견해 중 하나에 입각하여 상대 견해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p> <p>[문제 2] 각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와 종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학을 통한 도덕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해 내는 확장적, 비판적, 응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p>
<p>교육과정 출제근거</p>	<p>[개념] 도덕적 이해, 추론,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문학의 가치와 기능, 공감, 상상</p> <p>[출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자료출처

[교과서]

고형진 외, 《국어》, 동아출판, 2018, 172-192쪽
김동환 외, 《국어》, 교학사, 2018, 12-33쪽
류수열 외, 《국어》, 금성출판사, 2018, 164-173쪽
박영민 외, 《국어》, 비상교육, 2018, 290-301쪽
신유식 외, 《국어》, 미래엔, 2018, 160-173쪽
고형진 외, 《독서》, 동아출판, 2019, 26-39, 74-95, 114-133쪽
박영목 외, 《독서》, 천재교육, 2019, 24-41, 64-81, 100-115쪽
방민호 외, 《독서》, 미래엔, 2019, 22-36, 94-115, 134-151쪽
서 혁 외, 《독서》, 좋은책신사고, 2019, 20-38, 68-75, 84-93, 102-121쪽
이삼형 외, 《독서》, 지학사, 2019, 96-109, 74-89, 118-135쪽
한철우 외, 《독서》, 비상교육, 2019, 20-38, 68-75, 84-93, 102-121쪽
김창원 외, 《문학》, 동아출판, 2019, 10-45, 32-43, 112-125, 270-306쪽
류수열 외, 《문학》, 금성출판사, 2019, 11-41, 74-91, 110-127, 290-327쪽
방민호 외, 《문학》, 미래엔, 2019, 12-25, 74-98, 292-329쪽
이송원 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9, 12-19, 76-89, 276-321쪽
한철우 외, 《문학》, 비상교육, 2019, 7-36, 58-83, 104-108, 301-327쪽
구정화 외, 《통합사회》, 천재교육, 2018, 14-21쪽
박병기 외, 《통합사회》, 비상교육, 2018, 10-17쪽
육근록 외, 《통합사회》, 동아출판, 2018, 14-17쪽
이진석 외, 《통합사회》, 지학사, 2018, 12-19쪽
정창우 외, 《통합사회》, 미래엔, 2018, 12-17쪽
김국현 외,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2018, 32-41쪽
변순용 외,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2018, 34-43쪽
정창우 외, 《생활과 윤리》, 미래엔, 2018, 32-41쪽
정탁준 외, 《생활과 윤리》, 지학사, 2018, 34-41쪽
차우규 외, 《생활과 윤리》, 금성출판사, 2018, 30-39쪽
류지한 외, 《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2019, 10-15, 128-135쪽
박찬구 외, 《윤리와 사상》, 씨마스, 2019, 15-18, 132-141쪽
변순용 외,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2019, 10-15, 128-135쪽
정창우 외,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19, 11-17, 133-141쪽
황인표 외, 《윤리와 사상》, 교학사, 2019, 11-17, 134-143쪽

[기타]

아담스미스(김광수 역), 《도덕감정론》, 한길사, 2016
Alison Hills, 《Moral Testimony and Moral Epistemology(*Ethics* 120에 수록)》, Chicago University Press, 2009
Paulina Sliwa, 《Moral Understanding as Knowing Right from Wrong(*Ethics* 127에 수록)》, Chicago University Press, 2017

2026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사회과학]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십시오.

(가) 뇌는 주관적 예측을 통해 환경에 적응한다. 자신의 지식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낮아지면 뇌는 새로운 정보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해 활발한 학습 활동을 수행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능성과 해결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민감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뇌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느라, 인지 자원의 과도한 소모와 행동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환경에 대한 부적응의 한 양상이다. 반대로 지식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면 뇌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어 기존 패턴에 집중해 학습량을 감소시킨다. 이때 뇌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신속하게 판단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식과 믿음을 과신하는 경우 다른 대안과 가능성을 무시함으로써 판단 오류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 결정자는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 분석, 해석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 검증과 편향 제거 방법을 사용하여 환경 적응성을 높이려 노력해야 한다. 진화적으로 볼 때 개체 수준에서 이와 같은 인지 기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개체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 왔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도태되어 왔다.

(나) 적정 가치를 벗어난 주가 상승은 필연적으로 하락을 수반한다. 우리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는 2001년의 인터넷 주식 폭락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주가가 적정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모형이 아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현재 이익과 주가를 비교하는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식이 최선이다. 이 방식을 적용해야 과거의 주가 하락 사례들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미래 주가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최근 첨단 기술 산업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리라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적정 가치 모형으로 보면 현재 주가는 이미 적정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상태다. 이들 기업의 현재 이익보다 주가가 고평가되었으며, 우리의 적정 가치 모형에 따르면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므로 주가는 적정 가치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다) 미래에 대한 확신의 부재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다.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의 증가로 주가가 어떻게 변화할지 전혀 가늠할 수 없다. AI 기술의 혁신으로 미래 주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뉴스와 국제 무역 분쟁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뉴스를 매일 접하고 있다. 주변인들은 주가가 시간이 지나면 상승한다는 경험 법칙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뉴스에 근거한 직관적 투자로 많은 수익을 얻기도 한다. 주변인들을 따라 직관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지금은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다양한 정보의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주가 동향은 지나치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조사하고 연구해도 투자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 결국 나는 투자를 하고 싶으나 아무런 투자도 못하고 있다.

[문제 1]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 각각에 나타난 판단 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하시오.

[문제 2] (나)와 (다) 각각의 인지 성향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p>활용 모집단위</p>	<p>학부대학(자유전공학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농경제사회학부) 사범대학(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p>
<p>문항해설</p>	<p>[문제 1] (가)에 따르면 인지 성향에 따라 정보의 학습률이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른 인지 성향에 의해 (나)와 같이 새로운 정보에 대한 무시, 자신의 모형에 대한 과신 혹은 맹신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와 같이 정보에 대한 과도한 반응, 직관적 판단 결여, 행동 지연 혹은 과도한 위험 회피적 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인지 성향의 극단적인 오류들을 해결하고 개인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다.</p> <p>[문제 2] 이 문항은 두 인지 성향—(나)의 “확신 기반 직관”과 (다)의 “불확실성에 의한 신중 탐색”—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사례와 결부하여 설명하라는 문항이다.</p>
<p>출제의도</p>	<p>[문제 1] 논리적,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점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확장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p> <p>[문제 2] (나)의 확신에 기반한 직관적 인지 성향과 (다)의 불확실성에 의한 신중 탐색의 인지 성향이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어떻게 발전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한다.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지 성향이 사회적 구조와 정책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파악했는지 묻고자 하였다.</p>
<p>교육과정 출제근거</p>	<p>[개념] 환경 적응성, 확신, 불확실성, 행동 지연, 판단 오류, 주시</p> <p>[출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p>자료출처</p>	<p>[교과서]</p> <p>고형진 외, 《독서》, 동아출판, 2019, 46-59, 72-83쪽</p> <p>박영목 외, 《독서》, 천재교육, 2019, 46-55, 64-73쪽</p> <p>방민호 외, 《독서》, 미래엔, 2019, 74-83, 116-129쪽</p> <p>서 혁 외, 《독서》, 좋은책신사고, 2019, 52-61, 70-97쪽</p> <p>이삼형 외, 《독서》, 지학사, 2019, 40-49, 68-75쪽</p> <p>한철우 외, 《독서》, 비상교육, 2019, 40-49, 68-75쪽</p> <p>구정화 외, 《통합사회》, 천재교육, 2018, 140-155쪽</p> <p>박병기 외, 《통합사회》, 비상교육, 2018, 128-145쪽</p> <p>육근록 외, 《통합사회》, 동아출판, 2018, 132-145쪽</p>

이진석 외, 《통합사회》, 지학사, 2018, 134-149쪽
정창우 외, 《통합사회》, 미래엔, 2018, 126-141쪽
김종호 외, 《경제》, 씨마스, 2019, 13-17, 27-33, 53-89, 175-181, 195-201쪽
김진영 외, 《경제》, 미래엔, 2019, 13-31, 47-81, 169-195쪽
박형준 외, 《경제》, 천재교육, 2019, 12-21, 30-37, 52-73, 82-85, 174-183, 192-203쪽
유종열 외, 《경제》, 비상교육, 2019, 11-33, 53-91, 171-193쪽
허수미 외, 《경제》, 지학사, 2019, 10-17, 28-35, 50-77, 168-175, 183-191쪽
구정화 외, 《사회·문화》, 천재교육, 2020, 13-49쪽
김영순 외, 《사회·문화》, 교학사, 2019, 10-51쪽
서범석 외, 《사회·문화》, 지학사, 2020, 12-47쪽
손영찬 외, 《사회·문화》, 미래엔, 2018, 12-47쪽
신형민 외, 《사회·문화》, 비상교육, 2018, 10-47쪽

[기타]

Karl Friston, 《The free-energy principle: a unified brain theory?(Nature Reviews Neuroscience 11(2) 에 수록)》, Nature, 2010
Peter Dayan, Geoffrey E. Hinton, Radford M. Neal, Richard S. Zemel, 《The Helmholtz Machine(*Neural Computation* 7(5)에 수록)》,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95
E.S. Browning, 《Worries Rebound on Bull's Birthday》, The Wall Street Journal, 2010
N. Gregory Mankiw, Stephan P. Zeldes, 《The Consumption of Stockholders and Nonstockholder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ume 29, Issue 1)》, 1991

2026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인문계열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총 100점)

제시문 (가)

순자도 맹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선천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본성이란 배우거나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도덕적인 측면에 주목한 맹자와 달리 순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에 주목했습니다. 순자는 이러한 기본적 욕구를 바탕으로 한 이기심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대로 간다면 다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이 악한 행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선한 행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순자는 인간의 마음 작용을 성(性), 정(情), 려(慮), 위(偽)의 네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네 부분은 마음이 움직이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이 네 단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봅시다. 첫 단계인 '성'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삶의 자연스러운 본질이자 날 때부터 지닌 본성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생리적 본성입니다. 둘째 단계인 '정'은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생기는 감정입니다. 좋다, 나쁘다, 노엽다, 슬프다, 즐겁다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단계인 '려'는 구체적인 감정이 생긴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고하는 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사흘 동안 굶은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싶다는 본성적 욕구를 느낄 것이고, 그때 떡을 본다면 입에 침이 고이면 서 저 떡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감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곁에 자기보다 더 볼썽한 어린아이나 노인이 있다면 모르는 척하고 혼자 먹을지 나누어 먹을지 아니면 그냥 다 줄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려'입니다. 넷째 단계인 '위'는 자기 본성의 욕구와 반대 방향으로 행동을 선택하고 굳센 의지로 본성을 억누르면서 참아내는 작용입니다.

순자는 본성대로 가면 결과가 악이고 본성을 거스르는 의지적 실천대로 가면 선이기 때문에 '성'은 악이고 '위'는 선이라고 합니다. 순자에게는 의지적인 실천을 통해 본성이 가져올 악한 결과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순자의 철학은 '위'에 그 가치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순자의 철학은 의지에 기초한 실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나)

In a peaceful revolution, the nobles of Sweden in 1809 deposed King Gustav IV whom they considered incompetent. Then, they surprisingly invited Jean Baptiste Bernadotte, a French general who served under their enemy Napoleon, to become the King of Sweden. When Bernadotte addressed in the Swedish Parliament in their language, his broken Swedish made the Swedes roar with laughter. In this incident, Bernadotte was a victim of culture shock: never in his French education and military career had he experienced subordinates who laughed at the mistakes of their superior. He was a good learner, however, and he led the country as a highly respected constitutional ruler until 1844.

A social psychologist developed the concept of power distance,** the emotional distance between the more powerful and the less powerful in social contexts, based on the research among the employees of a global firm in similar positions but different countries. Power distance is one of the dimensions of national cultures. It reflects the range of answers found in the various countries to the basic questions of how to handle the fact that people are not equal. The index of power distance (PDI) for 50 countries was calculated. The PDI of Sweden was 31 out of 100 and that of France was 68. The higher the PDI, the greater the feeling of power distance. Nonetheless, it does not mean that a country of small power distance is culturally better than that of large power distance.

The PDI informs us about dependence relationships in a country. In small power distance countries, there is limited dependence of subordinates on bosses, and a preference for consultation,** that is, interdependence between boss and subordinate. The emotional distance between them is relatively small: subordinates will quite readily approach and contradict their bosses. In large power distance countries, in contrast, there is considerable dependence of subordinates on bosses. Subordinates respond by either preferring such dependence on a dictator or an authoritarian boss, or rejecting it entirely, which is known as counter-dependence. For example, when there is a disagreement, a few subordinates refuse to follow their bosses. Large power distance countries thus show a pattern of polarization**** between dependence and counter-dependence. In most cases, however, subordinates are unlikely to approach and contradict their bosses directly.

Power distance is explained from the perceptions of the less powerful members. Still, previous studies on leadership have often forgotten that leadership can only exist as a complement to subordinateship.***** Authority survives only where it is matched by obedience.***** Bernadotte's problem was not a lack of leadership on his side: the Swedes had a different conception of the respect to a ruler from the French, and Bernadotte was a Frenchman. Comparative research projects on leadership value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show that the differences observed exist in the minds of both the leaders and those led.

* depose: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다.
**** polarization: 양극화

** power distance: 권력거리
***** subordinateship: 부하로서의 행동 양식

*** consultation: 토의, 협의
***** obedience: 복종

제시문 (다)

드디어 드레퓌스가 프랑스 군사 법정에서 풀려났다. 재판은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적에게 국경을 열어 독일 황제를 노트르담 성당까지 안내한 반역자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쉬쉬하며 재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민들은 온갖 풍문이 떠도는 이 무시무시한 배신 행위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초치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에 대한 공개 군적 박탈식에 갈채를 보냈고, 죄인이 회환을 씌우며 오욕의 바위에 영원히 묶여 있기를 바랐습니다.

군부는 기상천외한 삼류 소철을 실화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날조했습니다. 군사 법정에서 낭독된 기소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사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야!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기소장인지요! 이런 기소장으로 한 인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의의 극치입니다. 명세



서가 유일한 물증이었지만 필적 전문가들조차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군부는 국민 감정 뒤에 몸을 숨긴 채 못사람의 가슴을 동요시키고, 정신을 왜곡하고, 입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국가적 범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사법적 오판이 저질러졌습니다.

드레퓔스 사건이 시작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참모 본부의 한 장교가 어느 날 외국의 한 대사관 요원이 에스테라지 소령에게 보낸 엽서 한 통을 수중에 넣게 되었습니다. 엽서를 본 장교는 명세서의 작성자가 드레퓔스가 아니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즉각 자신의 의심을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당시 국방부 장관직에 막 취임한 비요 장군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었고, 결과를 들은 비요 장군과 참모 본부는 에스테라지 소령의 유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테라지 소령의 유죄 선고는 필연적으로 드레퓔스 사건의 재심을 초래할 것이고, 그것은 참모 본부가 어떤 대가를 치르려고도 막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요 장군은 드레퓔스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십시오. 몹시 깨끗한 체로 장관직에 취임했기에, 그는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지휘하는 참모 본부 전체를 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그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순간 자신이 군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양심 사이에서 분명히 갈등을 하기는 했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이 끝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이 사건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책임은 커져만 갔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까지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만큼,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죄인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정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자인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비요 장군과 부하들이 드레퓔스가 무죄라는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건만, 그들은 여전히 그 무시무시한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합니다!

위의 고발을 함으로써 저는 1881년 7월 29일 제정된 프랑스 언론법 30조 및 31조에 따라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행위는 순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토록 큰 고통을 겪은 인류, 바야흐로 행복 추구의 권리를 지닌 인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의 열정, 즉 진실의 빛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의 불타는 항의는 저의 영혼의 외침입니다. 부디 저를 중죄 재판소로 소환하여 푸른 하늘 아래에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존경과 더불어 인사드립니다. 대통령 각하, 안녕히 계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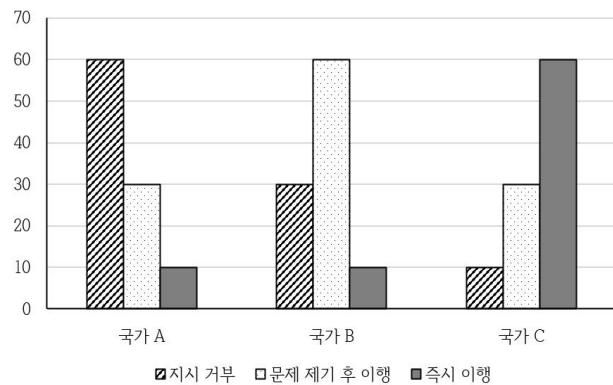
제시문 (라)

어떤 조사기관에서 국가별 개인 윤리성 정도와 권력거리가 기업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세 국가 A, B, C를 조사했다. 기업 문화 중 특히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부하 직원의 대응 방식을 조사한 결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 (1) 끝까지 거부, (2) 문제를 제기하지만 결국 이행, (3) 문제 제기 없이 즉시 이행. 국가별 개인 윤리성 정도와 권력거리 평균의 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국가별 대응 유형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개인 윤리성과 권력거리 외의 다른 요인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표> 국가별 개인 윤리성과 권력거리 비교 (국가 평균)

국가	A	B	C
개인 윤리성	높음	높음	낮음
권력거리	큼	작음	작음

<그림> 국가별 직원들의 대응 유형 (단위: %)



[문제 1-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화자와 비요 장군의 행위를 설명하십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1-2]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아래 [지문 A] 저자의 주장을 분석 평가하십시오. (600자 안팎, 25점)

[지문 A]

백성이 군주를 사랑하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군주에게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써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특히 군주가 군대를 통솔할 때 잔인하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군대란 병사들이 그 지도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단결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니발의 군사적 업적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의 부대에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의 부하들이 그를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든 그의 냉혹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 2-1] 제시문 (라)의 <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에 나타난 국가별 차이를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을 적용하여 비교 설명하십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2-2] 어떤 회사의 대표가 회사 전체의 조직 문화 지수 x 를 구간 $[0, 1]$ 에서 정한다. $x=0$ 이면 모든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완전히 수평적인 조직 문화이고, $x=1$ 이면 상사의 의견을 그대로 수행하는 완전히 수직적인 조직 문화이다. x 가 증가할수록 수직적 조직 문화에 가까워진다. 대표가 x 의 값을 정하면, 부서 A의 성과는 $g(x) = -5x^2 + 2x + 3$ 이 되고, 부서 B의 성과는 $h(x) = x^3 + x$ 가 되며, 회사 전체의 성과는 $f(x) = g(x) + h(x)$ 가 된다. 구간 $[0, 1]$ 에서 부서별 성과 $g(x)$ 와 $h(x)$ 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 의 값을 각각 x_1, x_2 라 하자. 이때 대표는 지나치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거부감이 있어서 전체 성과 $f(x)$ 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 의 값 x_3 을 $x \geq m$ ($0 < m < 1$)에서 정한다. m 은 수평적 조직 문화에 대한 거부감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이다. x_1, x_2, x_3 의 값을 각각 구하고, 그 값들을 비교하여 해석하십시오. (글자 수 제한 없음, 25점)

V. 부록_ 문항별 문항카드

문항카드 01. 논술전형 인문계열 1번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국어, 도덕, 사회, 영어) / 제시문 (가), (나), (다), 문제 1-1, 1-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심화국어, 고전 읽기,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사회·문화, 사회문제 탐구, 영어 I, 영어 II, 영어 독해와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작문의 전략, 작문의 표현과 전달 방법, 논리적 사고, 정보 활용, 비판적 사고, 인간 본성, 성악설, 성정려위, 감정, 판단, 의지, 실천, 권력거리, (반)의존, 문화상대성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자료

<p>제시문 별책 참고</p> <p>[문제 1-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화자와 비요 장군의 행위를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p> <p>[문제 1-2]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아래 [지문 A] 저자의 주장을 분석 평가하시오. (600자 안팎, 25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지문 A]</p> <p>백성이 군주를 사랑하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군주에게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써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특히 군주가 군대를 통솔할 때 잔인하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군대란 병사들이 그 지도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단결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니발의 군사적 업적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의 부대에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의 부하들이 그를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든 그의 냉혹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p> </div>
--

3. 출제 의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인문계열> 논술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지문과 문제를 통해 수험생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려는 취지로 구성되었다. 고등학교 교과 “독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에서 다루는 인간의 본성과 권력거리를 대주제로 설정하고, 인간의 본성이 순자가 이야기한 ‘성’, ‘정’, ‘려’, ‘위’의 단계를 거쳐 실천에 이르며,
--

- 인간관계는 상대방과의 권력거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된 지문을 발췌하고 편집하였으며, 교과서에 출처가 표시된 원전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접하는 주제와 개념을 이해하고 교과서 지문에 익숙한 수험생이라면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인간 본성의 발현 4단계와 권력거리를 설명하는 제시문들을 비교, 분석하여 수험생의 독해력, 논리력, 표현력과 독창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조직의 다양한 구성원(지도자, 여러 부서 구성원) 사이에 권력거리의 차이가 조직 문화 및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표와 그래프를 통해 해석하는 능력, 수리적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4. 교육부 고시 제 2020-255호 [별책 14] “영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1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제시문 (가), (다) [문제 1-1], [문제 1-2]
	성취 기준2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제시문 (가), (다) [문제 1-1], [문제 1-2]
	성취 기준3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문제 1-1], [문제 1-2]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1 [12화작01-03]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문제 1-1], [문제 1-2]
	성취 기준2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문제 1-1], [문제 1-2]
	성취 기준3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문제 1-1], [문제 1-2]
	성취 기준4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문제 1-2]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문제 1-2]
성취 기준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제시문 (가), (다)
성취 기준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제시문 (가), (다) [문제 1-1], [문제 1-2]
성취 기준4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가), (다) [문제 1-1], [문제 1-2]
성취 기준5	[12독서03-04]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대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을 읽는다.	제시문 (가), (다) [문제 1-1], [문제 1-2]

과목명: 심화국어		관련
성취 기준1	[12심국01-02]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문제 1-1], [문제 1-2]
성취 기준2	[12심국01-03] 정보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한다.	[문제 1-1], [문제 1-2]

과목명: 고전 읽기		관련
성취 기준1	[12고전02-03] 현대 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고전을 재해석하고 고전의 가치를 주체적으로 평가한다.	제시문 (가), (다) [문제 1-1], [문제 1-2]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1	[12윤사02-02] 선진유교의 전개 과정을 탐구하여 도덕의 성립 근거에 대한 상대되는 입장의 특징과 한계를 토론할 수 있고, 성리학파 양명학을 비교하여 도덕법칙의 탐구방법에 상대되는 입장의 특징과 한계를 토론할 수 있다.	제시문 (가) [문제 1-1]
성취 기준2	[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가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문제 1-2]
성취 기준3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문제 1-2]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1	[12생윤01-02] 현대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법 및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제시문 (가) [문제 1-1]
성취 기준2	[12생윤03-01] 직업의 의의를 행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따른 직업윤리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동체 발전을 위한 청렴한 삶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가) [문제 1-1]
성취 기준3	[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한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문제 1-2]

3.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1	[10통사01-02] 사례를 통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의미를 성찰한다.	제시문 (가), (나), (다)
성취 기준2	[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제시문 (가), (나), (다)
성취 기준3	[10통사04-02]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	제시문 (다)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1	[12사문01-01] 사회·문화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제시문 (가), (나), (다)
성취 기준2	[12사문02-0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	[문제 1-1], [문제 1-2]
성취 기준3	[12사문02-02]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설명하고 역할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제시문 (나), (다)
성취 기준4	[12사문02-03]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의 유형과 사례를 조사하고 그 특징을 비교한다.	[문제 1-1], [문제 1-2]
성취 기준5	[12사문02-04] 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탈 행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다.	[문제 1-1], [문제 1-2]

과목명: 사회문제 탐구		관련
성취 기준1	[12사탐01-01] 사회문제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한다.	제시문 (가), (나), (다)
성취 기준2	[12사탐06-03] 선정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토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문제 1-1], [문제 1-2]

4. 영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영어 I		관련
성취 기준1	[12영 I 03-02]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나)
과목명: 영어 II		관련
성취 기준1	[12영 II 03-02]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나)
성취 기준2	[12영 II 03-05]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제시문 (나)
과목명: 영어 독해와 작문		관련
성취 기준1	[12영 독03-02]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나)
성취 기준2	[12영 독03-03]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나)
성취 기준3	[12영 독03-04]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나)

나) 자료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	박영목 외 4명	천재교육	2020	108-110	제시문 (가)	○
독서	박영목 외 4명	천재교육	2020	124-127	제시문 (다)	○
독서	박영목 외 4명	천재교육	2020	174-177	[문제 1-2]	○
독서	이삼형 외 5명	지학사	2020	98-101	[문제 1-2]	○
독서	서혁 외 6명	좋은책 신사고	2020	108-109	[문제 1-2]	○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9명	(주)교학사	2019	40	제시문 (가) [문제 1-1]	○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9명	(주)교학사	2019	184-193	[문제 1-2]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9명	미래엔	2019	42-43	제시문 (가) [문제 1-1]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9명	미래엔	2019	181-189	[문제 1-2]	○
윤리와 사상	류지한 외 8명	비상교육	2019	38	제시문 (가) [문제 1-1]	○
윤리와 사상	류지한 외 8명	비상교육	2019	176-185	[문제 1-2]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5명	씨마스	2019	48	제시문 (가) [문제 1-1]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5명	씨마스	2019	184-191	[문제 1-2]	○
윤리와 사상	변순용 외 10명	천재교과서	2019	37-38	제시문 (가) [문제 1-1]	○
윤리와 사상	변순용 외 10명	천재교과서	2019	176-185	[문제 1-2]	○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7명	지학사	2018	22-23	제시문 (가) [문제 1-1]	○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7명	지학사	2018	100-107	[문제 1-2]	○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5명	(주)금성출판사	2018	21	제시문 (가) [문제 1-1]	○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5명	(주)금성출판사	2018	104-111	[문제 1-2]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6명	미래엔	2018	20-21	제시문 (가) [문제 1-1]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6명	미래엔	2018	100-107	[문제 1-2]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10명	천재교과서	2018	22-23	제시문 (가) [문제 1-1]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10명	천재교과서	2018	106-113	[문제 1-2]	○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9명	비상교육	2018	20-21	제시문 (가) [문제 1-1]	○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9명	비상교육	2018	103-111	[문제 1-2]	○
통합사회	이진석 외 12명	지학사	2018	13-33, 112-119	제시문 (가), (나), (다)	○
통합사회	박병기 외 11명	비상교육	2018	10-33, 106-113	제시문 (가), (나), (다)	○
통합사회	정창우 외 12명	미래엔	2018	12-31, 108-111	제시문 (가), (나), (다)	○
통합사회	구정화 외 9명	천재교육	2018	14-35, 116-127	제시문 (가), (나), (다)	○
사회·문화	손영찬 외 4명	미래엔	2018	13-47, 63-67	제시문 (가), (나), (다)	○
사회·문화	서범석 외 5명	지학사	2018	12-49, 62-67	제시문 (가), (나), (다)	○
사회·문화	구정화 외 4명	천재교육	2018	13-51, 61-65	제시문 (가), (나), (다)	○
사회·문화	김영순 외 4명	(주)교학사	2018	10-51, 63-68	제시문 (가), (나), (다)	○
사회·문화	신형민 외 4명	비상교육	2018	10-47, 58-61	제시문 (가), (나), (다)	○
사회문제 탐구	모경환 외 5명	전라북도교육청	2018	13-31, 185-188	제시문 (가), (나), (다)	○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교과서 <고등학교 독서> (천재교육, 2020, 108-110쪽)에 제시된 “순자의 성악설” 내용을 발췌하여 출제의도에 맞추어 수정한 것이다. 제시문 (가)에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천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한 이기심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성’, ‘정’, ‘여’, ‘위’의 네 단계 인간의 마음 작용을 생리적 본성인 ‘성’의 단계에서부터 굳센 의지로 본성을 억누르면서 참아내는 ‘위’의 단계까지 설명한다. 순자는 본성대로 가면 결과가 악이고 본성을 거스르는 의지적 실천으로 가면 선이기 때문에 ‘성’은 악이고 ‘위’는 선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는 순자의 철학은 ‘위’에 가치가 있으며 의지에 기초한 실천 철학이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나)는 교과서 <고등학교 독서> (천재교육, 2020, 130-131쪽)에 게재된 “평등 문화와 불평등 문화”의 일부에 해당하는 영어 번역본 부분을 발췌하여 출제의도에 맞추어 수정한 것이다. 제시문 (나)에서 저자는 어느 사회나 불평등은 존재하며,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 권력거리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권력거리가 큰 사회에서는 상사와 부하간의 관계가 수직적이며, 대화와 타협이 부족하다. 또한 부하들은 상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부하들이 상사에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의존과 반의존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에서는 상사와 부하간의 관계가 수평적이며, 대화와 타협이 쉽게 이루어진다. 한편, 권력거리는 권력이 작은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리더십에 관한 연구들은 부하들의 인식이나 행동 양식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 제시문 (나)는 리더십의 가치에 대한 비교 연구들은 국가간의 차이가 리더와 이를 따르는 조직구성원 모두의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제시문 (다)는 교과서 <고등학교 독서> (천재교육, 2020, 124-127쪽)에 게재된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를 발췌하여 출제의도에 맞추어 수정한 것이다. 제시문 (다)는 드레퓌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군부와, 이를 나중에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국방부 장관 비요 장군을 비판하고 드레퓌스에 대한 재심을 촉구하는 고발문이다. 화자는 드레퓌스가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아무도 비판하지 않은 프랑스의 억압적인 분위기를 지적하고, 진상을 알게 되고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덮은 비요 장군을 비판한다. 화자는 이러한 고발로 인해 자기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을 알면서도 양심에 따라 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을 중죄재판소로 소환하라고 대통령에게 호소한다.

제시문 (라)의 <표>는 국가 A, B, C의 개인 윤리성 정도와 권력거리의 평균을 각각 ‘높음-낮음’, ‘큼-작음’으로 제시한다. 개인 윤리성과 권력거리는 <그림>에서 제시되는 국가별 직원들의 대응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요인들은 세 국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림>에서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부하 직원 대응 방식의 세 가지 유형(지시 거부, 문제 제기 후 이행, 즉시 이행)이 차지하는 비율에 국가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문 A]는 군주는 공포로써 통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일부를 출제 의도에 맞추어 수정한 것이다. 이 글은 <고등학교 독서> (천재교육, 2019, 174-177쪽)에 실려 있다. [지문 A]는 백성이 군주를 사랑할 때보다는 두려워할 때 군주가 더 안전할 수 있으며, 인간은 이기적이며 믿을 수 없으므로 공포로 통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한니발이 냉혹하게 군대를 통솔하여 군사적 업적을 이루었다는 점을 예로 들어 군주는 특히 군대를 통솔할 때에는 잔인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참고: 제시문 (나) 영문 번역

1809년 스웨덴 귀족들은 평화 혁명을 통해 국왕인 구스타프 4세를 꺾어냈다. 이후 새로 취임한 국왕은 놀랍게도 그들의 적이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아래에서 복무했던 베르나도트 장군이였다. 베르나도트는 스웨덴 국회에서 스웨덴 말로 취임 연설을 하였는데, 그가 스웨덴 말을 더듬거리는 것을 보고 청중들은 크게 웃으며 떠들어 댔다. 이는 베르나도트에게 큰 문화적 충격이었는데, 이전까지 베르나도트가 살아왔던 프랑스에서는 상관의 실수에 부하가 웃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스웨덴의 평등주의적 사고방식에 적절히 잘 적응했고 이후 1844년까지 아주 존경받는 입헌군주로 스웨덴을 잘 다스렸다.

한 사회심리학자는 어느 다국적 기업에서 시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권력거리’라는 개념을 창안하였다. 권력거리는 부하들이 상관(권력자)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적인 거리를 의미하며, 국가의 문화를 구별하는 하나의 예시이다. 이는 또한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다양한 국가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권력거리 지수가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는데, 100을 지수의 만점으로 할 때 스웨덴의 권력거리 지수는 31이었고, 프랑스의 권력거리 지수는 68이었다. 권력거리 지수가 크면 권력거리를 크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거리가 작다고 해서 권력거리가 큰 것보다 문화적으로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거리 지수는 한 국가 내에서 상사와 부하 간의 의존관계를 알려준다. 권력거리가 작은 나라에서는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정도가 낮으며,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상호의존을 선호한다.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감정적 거리는 비교적 가까운 편이다. 그래서 부하 직원은 상사에게 쉽게 접근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 권력거리 지수가 큰 나라에서는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 부하 직원은 독재적이거나 권위적인 상사에게 의존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아니면 의존을 완강히 거부하는 반의존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상사와 부하간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일부 부하들은 상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기도 한다. 즉, 의존과 반의존의 양극화

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권력거리 지수가 큰 국가에서는 부하 직원이 직접 상사에게 다가가서 반대의견을 내놓는 일이 좀처럼 드물다.

권력거리는 힘없는 조직구성원들의 내면화된 인식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여전히 리더십을 다루는 연구들은 리더십이 부하들의 복종정신과 행동 양식이 있어야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리더십을 지도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그러나 권위는 복종이 따라주어야 유지되는 것이다. 베르나도트의 문화 충격은 그에게 리더십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 스웨덴 국민들의 존경 개념은 프랑수아의 존경 개념과는 달랐다. 베르나도트는 프랑수아이었으나 그가 다스려야 할 백성은 스웨덴 국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리더십 가치에 관한 국가간 비교 연구는 국가 간의 차이가 지도자와 추종자 양자의 마음에 존재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고교 검토교사>

[국어과]

제시문 (가)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선한 행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를 순자가 주장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의지적 실천을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순자는 인간의 마음 작용을 ‘성, 정, 려, 위’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각 단계의 작용과 마지막 단계인 ‘위’의 작용을 통해 선과 악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드레퓌스 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비요 장군과, 진실을 밝히려는 화자의 입장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대응 방식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가)와 (다)는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 독서, 심화국어 등의 과목에서 학습해 온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통합적 읽기 등을 활용하여 사실적 내용, 주제, 숨겨진 의도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고등학교 기간 동안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학습해 온 요소이다.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읽기 목적에 맞게 읽기 방법을 조정하며 읽고, 글에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여 중심 내용, 주제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글의 의도, 숨겨진 주제 등을 추론해서 읽는 것, 글을 읽으며 인간에 대한 성찰, 사회적 현상의 특징에 대한 비판적 이해 등을 다룬다. 또한 제시문 (가)와 (다)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도 실린 글이고, 해당 교과서로 학습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제시문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충분히 다루어 온 글의 난이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월하게 접근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각각의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통합적으로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활용하여 내용을 조직하여 답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 1-1]은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화자와 비요 장군의 행위를 비교, 설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시문에서 사실적 읽기에 기초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야 하고, 이를 (다)에 적용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이기도 하다. 이때 제시문 (가)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가)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제시문 (가)의 관점을 적용해야 하는 제시문 (다)의 경우는, 화자와 비요 장군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자와 비요 장군의 행위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는 것도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제시문 (가)의 관점을 제시문 (다)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순자의 네 가지 인간 마음 작용 성, 정, 려, 위를 화자와 비요 장군에 어떻게 적용하여 비교 설명할 것인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데, 화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는 점, 비요 장군은 진실을 알고 갈등은 하였지만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외면하였다는 점은 제시문 (다)에 구체적으로 주어진 사실적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시문 (가)로 설명하는 것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충실

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제시문 (나)의 관점으로 제시문 (다)의 화자와 비요 장군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은, 제시문 (나)가 영어 지문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제시문 (나)에서 권력거리의 개념과 특징, 권력거리가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 권력거리의 순위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제시문 (다)의 화자와 비요 장군의 행위에 대해 비교, 설명하는 것은 사실적 독해를 바탕으로 해도 충분히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1-2]는 (나)의 관점에서 [지문 A]의 주장을 분석, 평가하는 것인데, 먼저 이를 위해서는 [지문 A]의 주장이 제시문 (나)의 권력거리에 대한 두 가지 입장 중 어느 입장을 담고 있는지를 추론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문 A]는 내용의 길이가 길지 않고 권력거리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핵심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제시된다는 점 등에서 [지문 A]의 주장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고등학생 수준에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문 A]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는 글이므로 난이도도 고등학생 수준에 적합하다. 따라서 [문제 1-2]의 [지문 A]는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문 A]가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권력거리가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제시문 (나)가 영어 지문이기 때문에 영어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제시문 (나)에서 권력거리가 크고 작은 것에 대해 어느 쪽 입장이든 우열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문 A]의 주장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 A]의 주장에 따른 권력거리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장단점 등을 등을 바탕으로 [지문 A]의 주장을 평가하여 한다는 점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보를 적절하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덕과]

‘도덕의 성립 근거’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 행위 실천’을 주제로 한 이번 논술 문항은 2015 개정교육과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핵심 학습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시문 (가)는 순자의 본성론을 다루고 있으며 ‘선천적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 작용을 설명하며 도덕의 성립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국가문화 차원의 하나로서 ‘권력거리’를 설명하며 그러한 문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는 글이다. 제시문 (다)는 드레퓌스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비요 장군에 의해 진실이 숨겨졌음을 고발하는 글이다.

[문제 1-1]은 제시문 (가)와 (나)의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화자와 비요 장군의 행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 (다)에서 화자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도덕적 행위를 하지만 비요 장군은 진실을 숨기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다. 대비되는 두 행위의 근거를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도덕적으로 탐구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항이므로 도덕과 교육과정과 부합한다 할 수 있다. 특히,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 성취기준 [윤사02-02]의 학습 요소를 직접적으로 담고있다. 순자의 ‘성’과 ‘위’는 「윤리와 사상」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루는 학습 요소이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제시문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다)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배우지 않았더라도 ‘성’과 ‘위’ 사이의 ‘정’과 ‘려’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제시문의 관점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 1-2]는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지문 A] 저자의 주장을 분석하고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문 A]는 교과서에 수록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발췌한 것으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 성취기준 [12윤사04-02], [12윤사04-03]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해당 성취기준에서는 국가 권위의 성립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기르고자 한다. 이는 [문제 1-2]가 제시하는 방향과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며 도덕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수월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특히,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실려있는 것을 발췌하고 재구성하여 지문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접하는 주제와 개념을 이해하고 교과서 지문에 익숙한 수험생이라면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과]

제시문 (가)는 약한 본성을 거스르고 선한 의지적 실천을 통해 선을 행하는 인간의 마음 작용을 언급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권력적 강자와 약자의 정서적 거리감을 다룬 ‘권력거리’ 개념을 소개하며 이는 해당 사회가 갖는 문화의 측면을 반영하는 동시에 개인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권력거리’가 강한 사회와 약한 사회에서 상사의 리더십과 이를 따르는 부하의 수용 양상이 발현되는 유형을 나누어 언급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은 비요 장군의 태도를 비판하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화자의 주장이 제시되어 있다. 문항은 [문제 1-1]부터 [문제 1-2]까지 제시문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물음에 답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공통과목인 「통합사회」 교과목에서는 사회 현상을 통합적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점으로 사회 제도 및 사회 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사회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리적 관점으로 도덕적 가치 판단과 규범적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욕구와 양심을 윤리적 판단의 준거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행복의 기준과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으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행복의 조건으로 시민참여는 주권자인 시민이 기본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극적 참여를 강조한다. 도덕적 실천에서 도덕적 가치의 합의와 도덕적 실천을 요구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관용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문제 1-1] 및 [문제 1-2]의 질문 내용과 연결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택과목인 「사회·문화」 교과목과 「사회문제 탐구」 교과목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으로서 당위성, 가치 함축성 등을 자연현상과 비교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이는 제시문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교과목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영어과]

제시문 (나)에서 화자는 권력거리에 대한 스웨덴과 프랑스 사람들의 차이를 보여준다. 화자는 권력거리의 크기가 좋고 나쁨의 척도가 아니라 사회가 가지는 맥락 안에서 서로를 향한 감정적 거리가 만들어 내는 국가의 문화적 측면 중 하나임을 이야기한다. 스웨덴이 적국인 프랑스의 장군을 왕으로 만든 상황에서 발생한 권력거리에 대한 오해와 수용을 통해 근거를 제시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의 경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글의 주제, 요지, 의도를 파악하여 문제가 요구하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2015 영어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적합한 제시문으로 판단된다. 제시문에서 사용되는 어휘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해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장의 구조는 관계사 구조와 병렬구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교과서에서 배우는 어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구성되어 있어 해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글의 구조도 교육과정에서 많이 보게 되는 스토리 형의 예시를 주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나열식으로 전개한 후 마지막 단락에서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요지의 방점을 찍어주며 전달력을 높이는 형태로 여러 번에 걸쳐 화자가 전해주는 내용과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단편적인 언어 지식보다는 전체 글을 이해하고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종합적 이해를 통해 주어진 각 문항의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하고자 함은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수와 평가 목표에도 부합한다.

문항카드 02. 논술전형 인문계열 2번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국어, 도덕, 사회, 수학, 영어) / 제시문 (가), (나), (라), 문제 2-1, 2-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심화국어,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통합사회, 사회·문화, 사회문제 탐구, 수학, 수학II, 영어 I, 영어II, 영어 독해와 작문
	핵심개념 및 용어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작문의 전략, 작문의 표현과 전달 방법, 논리적 사고, 정보 활용, 비판적 사고, 인간 본성, 성악설, 성정려위, 감정, 판단, 의지, 실천, 권력거리, (반)의존, 문화상대성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자료

제시문 별책 참조

[문제 2-1] 제시문 (라)의 <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에 나타난 국가별 차이를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을 적용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문제 2-2] 어떤 회사의 대표가 회사 전체의 조직 문화 지수 x 를 구간 $[0,1]$ 에서 정한다. $x=0$ 이면 모든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완전히 수평적인 조직 문화이고, $x=1$ 이면 상사의 의견을 그대로 수행하는 완전히 수직적인 조직 문화이다. x 가 증가할수록 수직적 조직 문화에 가까워진다. 대표가 x 의 값을 정하면, 부서 A의 성과는 $g(x) = -5x^2 + 2x + 3$ 이 되고, 부서 B의 성과는 $h(x) = x^3 + x$ 가 되며, 회사 전체의 성과는 $f(x) = g(x) + h(x)$ 가 된다. 구간 $[0, 1]$ 에서 부서별 성과 $g(x)$ 와 $h(x)$ 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 의 값을 각각 x_1, x_2 라 하자. 이때 대표는 지나치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거부감이 있어서 전체 성과 $f(x)$ 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 의 값 x_3 을 $x \geq m(0 < m < 1)$ 에서 정한다. m 은 수평적 조직 문화에 대한 거부감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이다. x_1, x_2, x_3 의 값을 각각 구하고, 그 값들을 비교하여 해석하시오. (글자 수 제한 없음, 25점)

3. 출제 의도

- 이번 <인문계열> 논술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지문과 문제를 통해 수험생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려는 취지로 구성되었다.
- 고등학교 교과 “독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에서 다루는 인간의 본성과 권력거리를 대주제로 설정하고, 인간의 본성이 순자가 이야기한 ‘성’, ‘정’, ‘려’, ‘위’의 단계를 거쳐 실천에 이르며, 인간관계는 상대방과의 권력거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3.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된 지문을 발췌하고 편집하였으며, 교과서에 출처가 표시된 원전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접하는 주제와 개념을 이해하고 교과서 지문에 익숙한 수험생이라면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4. 인간 본성의 발현 4단계와 권력거리를 설명하는 제시문들을 비교, 분석하여 수험생의 독해력, 논리력, 표현력과 독창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5. 조직의 다양한 구성원(지도자, 여러 부서 구성원) 사이에 권력거리의 차이가 조직 문화 및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표와 그래프를 통해 해석하는 능력, 수리적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4. 교육부 고시 제 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5. 교육부 고시 제 2020-255호 [별책 14] “영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어과 교육과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과목명: 국어</th> <th style="text-align: center;">관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취 기준1</td> <td>[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문제 2-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취 기준2</td> <td>[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문제 2-1]</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과목명: 화법과 작문</th> <th style="text-align: center;">관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취 기준1</td> <td>[12화작01-03]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문제 2-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취 기준2</td> <td>[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문제 2-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취 기준3</td> <td>[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문제 2-1]</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과목명: 독서</th> <th style="text-align: center;">관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취 기준1</td> <td>[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시문 (라) [문제 2-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취 기준2</td> <td>[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시문 (라) [문제 2-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취 기준3</td> <td>[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시문 (라) [문제 2-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취 기준4</td> <td>[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문제 2-1]</td> </tr> </tbody> </table>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1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문제 2-1]	성취 기준2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문제 2-1]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1	[12화작01-03]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문제 2-1]	성취 기준2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문제 2-1]	성취 기준3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문제 2-1]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라) [문제 2-1]	성취 기준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제시문 (라) [문제 2-1]	성취 기준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제시문 (라) [문제 2-1]	성취 기준4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제 2-1]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1	[10국02-04]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는다.	[문제 2-1]																																				
성취 기준2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문제 2-1]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 기준1	[12화작01-03]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문제 2-1]																																				
성취 기준2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문제 2-1]																																				
성취 기준3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문제 2-1]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라) [문제 2-1]																																				
성취 기준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제시문 (라) [문제 2-1]																																				
성취 기준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제시문 (라) [문제 2-1]																																				
성취 기준4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제 2-1]																																				

과목명: 심화국어		관련
성취 기준1	[12심국01-02]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문제 2-1]
성취 기준2	[12심국01-03] 정보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한다.	[문제 2-1]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1	[12윤사02-02] 선진유교의 전개 과정을 탐구하여 도덕의 성립 근거에 대한 상대되는 입장의 특징과 한계를 토론할 수 있고, 성리학과 양명학을 비교하여 도덕법칙의 탐구방법에 상대되는 입장의 특징과 한계를 토론할 수 있다.	제시문 (가) [문제 2-1]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1	[12생윤01-02] 현대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법 및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제시문 (가) [문제 2-1]
성취 기준2	[12생윤03-01] 직업의 의의를 행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따른 직업윤리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동체 발전을 위한 청렴한 삶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가) [문제 2-1]

3.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1	[10통사01-02] 사례를 통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의미를 성찰한다.	제시문 (가), (나), (라)
성취 기준2	[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제시문 (가), (나), (라)
성취 기준3	[10통사07-01]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과 삶의 방식을 탐구한다.	제시문 (가), (나), (라)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1	[12사문01-01] 사회·문화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제시문 (가), (나), (라)
성취 기준2	[12사문01-03]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과 특징을 비교한다.	제시문 (라)
성취 기준3	[12사문01-04] 바람직한 연구 태도와 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 절차를 실제 사례에 적용한다.	제시문 (라)
성취 기준4	[12사문02-02]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설명하고 역할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제시문 (나)
성취 기준5	[12사문02-03]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의 유형과 사례를 조사하고 그 특징을 비교한다.	제시문 (나) [문제 2-1]

과목명: 사회문제 탐구		관련
성취 기준1	[12사탐01-01] 사회문제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한다.	제시문 (가), (나), (라)
성취 기준2	[12사탐01-02]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과학적 방법과 절차를 파악하고, 사회문제 탐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설명한다.	제시문 (라)
성취 기준3	[12사탐06-02] 선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탐구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여 선정한 사회문제의 현황을 분석한다.	제시문 (라)

4.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관련
성취 기준1	[10수학01-11]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 2-2]

과목명: 수학II		관련
성취 기준1	[12수학II02-09]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문제 2-2]

5. 영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영어 I		관련
성취 기준1	[12영 I 03-02]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나)

과목명: 영어II		관련
성취 기준1	[12영 II 03-02]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나)
성취 기준2	[12영 II 03-05]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심정이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다.	제시문 (나)

과목명: 영어 독해와 작문		관련
성취 기준1	[12영독03-02]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나)
성취 기준2	[12영독03-03]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나)
성취 기준3	[12영독03-04]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나)

나) 자료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9명	(주)교학사	2019	40	제시문 (가)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9명	미래엔	2019	42-43	제시문 (가)	○
윤리와 사상	류지한 외 8명	비상교육	2019	38	제시문 (가)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5명	씨마스	2019	48	제시문 (가)	○
윤리와 사상	변순용 외 10명	천재교과서	2019	37-38	제시문 (가)	○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7명	지학사	2018	22-23	제시문 (가)	○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5명	(주)금성출판사	2018	21	제시문 (가)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6명	미래엔	2018	20-21	제시문 (가)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10명	천재교과서	2018	22-23	제시문 (가)	○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9명	비상교육	2018	20-21	제시문 (가)	○
통합사회	이진석 외 12명	지학사	2018	13-33, 112-119	제시문 (가), (나), (라)	○
통합사회	박병기 외 11명	비상교육	2018	10-33, 106-113	제시문 (가), (나), (라)	○
통합사회	정창우 외 12명	미래엔	2018	12-31, 108-111	제시문 (가), (나), (라)	○
통합사회	구정화 외 9명	천재교육	2018	14-35, 116-127	제시문 (가), (나), (라)	○
사회·문화	손영찬 외 4명	미래엔	2018	13-47, 63-67	제시문 (가), (나), (라)	○
사회·문화	서범석 외 5명	지학사	2018	12-49, 62-67	제시문 (가), (나), (라)	○
사회·문화	구정화 외 4명	천재교육	2018	13-51, 61-65	제시문 (가), (나), (라)	○
사회·문화	김영순 외 4명	(주)교학사	2018	10-51, 63-68	제시문 (가), (나), (라)	○
사회·문화	신형민 외 4명	비상교육	2018	10-47, 58-61	제시문 (가), (나), (라)	○
사회문제 탐구	모경환 외 5명	전라북도교육청	2018	13-31, 185-188	제시문 (가), (나), (라)	○
수학	김원경 외 14명	비상교육	2018	63-66	[문제 2-2]	○
수학	류희찬 외 10명	천재교과서	2018	70-73	[문제 2-2]	○
수학	홍성복 외 10명	지학사	2018	73-75	[문제 2-2]	○
수학II	김원경 외 14명	비상교육	2018	86-89	[문제 2-2]	○
수학II	류희찬 외 10명	천재교과서	2018	86-89	[문제 2-2]	○
수학II	홍성복 외 10명	지학사	2018	90-92	[문제 2-2]	○

5. 문항 해설

[문제 2-1]

제시문 (라)의 <표>는 국가 A, B, C의 개인 윤리성 정도와 권력거리의 평균을 각각 ‘높음-낮음’, ‘큼-작음’으로 제시한다. 개인 윤리성과 권력거리는 <그림>에서 제시되는 국가별 직원들의 대응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요인들은 세 국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림>에서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부하 직원 대응 방식의 세 가지 유형(지시 거부, 문제 제기 후 이행, 즉시 이행)이 차지하는 비율에 국가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와 <그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① <표>를 통해 <그림>의 국가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조합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함.
- ② <표>에서 국가 A, B는 모두 개인 윤리성 수준이 높은 국가이지만 권력거리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그림>에 나타난 두 국가의 차이를 비교하면 권력거리의 효과를 유추할 수 있음.
- ③ <표>에서 국가 B, C는 모두 권력거리가 작은 국가이지만 개인 윤리성 수준은 차이가 있음. 따라서 <그림>에 나타난 두 국가의 차이를 비교하면 개인 윤리성의 효과를 유추할 수 있음.

[문제 2-2]

(1) 부서와 회사 전체의 성과가 최대가 되게 하는 값 도출

부서 A의 성과인 $g(x)$ 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_1 을 구하기 위해 함수를 변형한다.

$$g(x) = -5x^2 + 2x + 3 = -5(x - 0.2)^2 + 3.2$$

따라서 $x_1 = 0.2$ 임을 알 수 있다.

부서 B의 성과인 $h(x)$ 는 구간 $[0, 1]$ 에서 증가하는 함수이다.

따라서 $x_2 = 1$ 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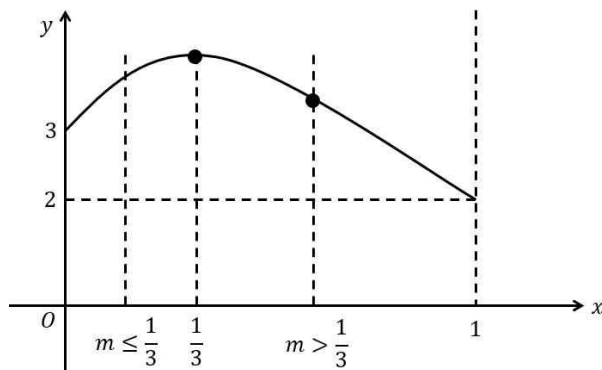
회사 전체의 성과는 $f(x) = x^3 - 5x^2 + 3x + 3$ 이다. 먼저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인수분해한다.

$$f'(x) = 3x^2 - 10x + 3 = (3x - 1)(x - 3)$$

이 도함수의 부호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x	0		$\frac{1}{3}$		1
$f'(x)$	+	+	0	-	-
$f(x)$	증가	증가	극대	감소	감소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함수 $f(x)$ 의 그래프의 개형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 함수 $f(x)$ 가 최대가 되는 x 의 값은 m 의 값에 따라 달라진다.

- (a) 만약 $m \leq \frac{1}{3}$ 이면, $x = \frac{1}{3}$ 이 $x \geq m$ 을 만족하므로, $f(x)$ 는 $x_3 = \frac{1}{3}$ 에서 최대가 된다.
- (b) 만약 $m > \frac{1}{3}$ 이면, $x = \frac{1}{3}$ 이 $x \geq m$ 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f(x)$ 는 $x_3 = m$ 에서 최대가 된다.

(2) 결과 비교 해석

- ① 부서 A의 성과인 $g(x)$ 는 $x_1 = 0.2$ 에서 최대가 된다. 이는 부서 A의 성과가 비교적 수평적 조직 문화에서 가장 좋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g(0) = 3 > g(1) = 0$ 이므로 지나치게 수직적 조직 문화가 부서 A의 성과를 낮출 수 있다.
- ② 부서 B의 성과인 $h(x)$ 는 구간 $[0,1]$ 에서 증가하고, $x_2 = 1$ 에서 최대가 된다. 이는 부서 B의 성과는 조직 문화가 수직적일수록 더 좋아지고, 완전히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서 가장 좋을 것을 의미한다.
- ③ 회사 전체의 성과 $f(x)$ 는 원래 구간 $[0,1]$ 에서 $x = \frac{1}{3}$ 에서 최대가 된다. 이 값은 $x_1 = 0.2$ 와 $x_2 = 1$ 사이에 위치한다. 이는 수평적 조직 문화에서 성과가 좋은 부서 A와 수직적 조직 문화에서 성과가 좋은 부서 B의 성격을 절충하여 중간 정도의 조직 문화를 택하는 것이 회사 전체에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다만 $x = \frac{1}{3}$ 은 $x_1 = 0.2$ 에 더 가까운, 비교적 수평적인 조직 문화이다. 따라서 부서 A가 회사 전체의 성과에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④ 그러나 회사의 대표는 지나치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x \geq m$ 에서 조직 문화를 선택한다. 수평적 조직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약한 경우, 즉 $m \leq \frac{1}{3}$ 이면, 회사의 대표는 회사 전체의 성과를 고려하여 $x_3 = \frac{1}{3}$ 을 선택한다. 하지만, 수평적 조직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경우, 즉 $m > \frac{1}{3}$ 이면, 회사의 대표는 회사 전체의 성과를 가장 높여주는 $x = \frac{1}{3}$ 대신 $x_3 = m$ 을 선택한다. 이처럼 대표는 부서 A와 B를 종합한 회사 전체의 성과와 자신의 개인적 선호를 절충하여 조직 문화를 선택한다.

<고교 검토교사>

[국어과]

제시문 (라)는 국가 A, B, C의 국가별 개인 윤리성과 권력거리를 바탕으로 국가별 직원들의 대응 유형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은 개인의 윤리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권력거리가 크고 작음에 따라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부하 직원의 대응 방식을 국가별로 보여준다. 글에 포함된 그림이나 표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는 것 등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저학년 때부터 꾸준히 학습되어 온 내용이고,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독서 영역을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학습 내용이다. 따라서 제시문 (라)의 <그림>을 해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문제 2-1]은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을 적용하여 <그림>을 해석하고 국가별 차이를 비교

설명하는 문제이다. [문제 2-1]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라)의 <그림>을 분석해야 하는데, 그 분석 기준을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이해하고, 그 글의 내용을 활용하여 시각 자료를 해석하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학습 내용이므로 [문제 2-1]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도덕과]

‘도덕의 성립 근거’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 행위 실천’을 주제로 한 이번 논술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의 핵심 학습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시문 (가)는 순자의 본성론을 다루고 있으며 ‘선천적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 작용을 설명하며 도덕의 성립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국가문화 차원의 하나로써 ‘권력거리’를 설명하며 그러한 문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는 글이다. 제시문 (다)는 드레퓌스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비요 장군에 의해 진실이 숨겨졌음을 고발하는 글이다.

[문제 2-1]은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을 적용하여 제시문 (라)의 각 국가별 기업 문화의 차이를 비교하고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문 (라)에서는 개인 윤리성 정도와 권력거리에 따라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직원들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음을 국가별로 비교하고 있다. 이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라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직원들의 대응 유형을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것이므로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목표와 상당히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두 관점을 논리적으로 적용하여 제시문 (라)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적절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과]

제시문 (라)는 <표>를 통해 국가별 개인의 윤리성과 권력거리의 상대적 경향성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그림>에서는 국가별로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부하 직원들의 대응 유형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문제 2-1]은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관점을 적용하여 제시문 (라)의 여러 요소들의 국가별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일반선택과목인 「사회·문화」 교과목 및 진로선택과목인 「사회문제 탐구」 교과목에서는 양적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질문지법의 특징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통계적 분석이 쉬운 양적연구의 특징과 이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질문지법의 결과 분석은 「사회·문화」 교과목과 「사회문제 탐구」 교과목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며, 이는 제시문 (라)의 내용 요소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교과목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다양한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능력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에서 배양하고자 하는 핵심 역량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참여한 학생이라면 주어진 제시문의 논지를 충분히 파악하여 물음에 답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수학과]

[문제 2-2]는 제시된 성과 함수 $f(x)$, $g(x)$, $h(x)$ 를 분석하고 제시된 조건을 이용하여 x_1 , x_2 , x_3 의 값을 구하고 m 의 값에 변화에 따라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문항이다. 문항 해결 과정에서 ‘수학’ 과목의 이차함수의 최댓값에 관한 내용과 ‘수학II’ 과목의 도함수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문항이다. 발문과 해결 과정에서 모두 교육과정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며 교육과정에 따라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종합적 사고를 이용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판단된다.

[영어과]

제시문 (라)는 국가별로 개인의 윤리성의 높고 낮음, 권력거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부하 직원의 대응 방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이나 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정보, 중심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 간에 연결하여 추론적으로 이해하는 등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꾸준히 교수하고 평가하고 있는 방식이다. [문제 2-1]은 제시문 (가)와 (나)에 대한 전체 글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여 화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림과 글을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주제와 요지를 찾아내고 문맥의 의미를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내고자 하는 영어과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교육과정 내 범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다.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문항 붙임번호	12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오전) / 1~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한국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세계사, 사회문화, 통합사회, 통합과학,
	핵심개념 및 용어	경제적 불평등, 분배적 정의,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분업, 노동자, 인간 소외, 물질만능주의, 부조리, 양극화, 빈부격차, 사회적 연대
예상 소요 시간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 아래의 글을 바탕으로 【문제 1】과 【문제 2】에 각각 700±50자로 답하시오.

①

A국의 대외 팽창 과정에서 유력자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을 경영하였다. 반면 자영 농민층은 토지를 잃고 몰락하여 빈민이 되었고, 이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사회 불안이 조성되었다. B는 시민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웅변하고 ○○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들짐승도 저마다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시민들에게는 햇볕과 공기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우고 용감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승리자이고, 세계의 지배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은 이제 자기 것이라고는 한 뼘의 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법>

- 개인이 임차할 수 있는 국유지의 상한선을 500유게룸*으로 정한다. 이밖에 아들의 명의로 한 명당 250유게룸까지의 임차를 인정한다. 다만 일가족 전체의 임차지가 1,000유게룸을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목축용 가축 수도 600마리를 상한으로 한다.
- 1,000유게룸 이상의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는 그것을 국가에 반환하고, 국가는 반환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런 다음 국가는 상설 실무 위원회를 설치하여 희망하는 농민에게 임차 농지를 재분배한다.

*1유게룸=0.25ha

②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③

농군은 밭일에 정통하지만 농사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고, 상인은 장사하는 일에 정통하지만 장사하는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으며, 공인은 그릇을 만드는 일에 정통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다. 여기 한 사람이 세 가지 일 중 어느 하나도 하지 못하지만 이들 세 가지 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가 도에 정통했기 때문이며 사물에 정통했기 때문이다. 사물에 정통한 사람은 사물을 사물대로 잘 처리하고, 도에 정통한 사람은 사물과 사물을 아울러 잘 다스린다. 각 분야에 능한 사람을 가려 그 분야를 맡기면 국부가 넉넉해진다.

④

장남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

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끼도 제대로 못
멕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
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
녁 일곱 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겁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
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중략)

처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쇄를 풀어헤치고, 소파 뒤의 막대기에 감겨 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 준다.)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시지 않아요?

교수 난 잘 모르겠어.

처 김 씨 만나봤어요?

교수 아니, 원체 바빠서.

처 그렇지만 김 씨 만나는 일이 제일 바쁘지 않아요?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전 어떡해
요.

교수 내일 만나, 내일 만나.

처 내일 누가 누구를 만난단 말이에요?

교수 내가 그 이 씨를 만난다니까.

처 이 씨는 또 누구요?

교수 당신이 만나라는 출판사 주인 말이야.

처 그 주인이 왜 이 씨예요? 김 씨지.

교수 그래, 김 씨랬어.

(중략)

처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교수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나 있지?

처 그러니까 밤낮 원고료를 짚리우지요.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
어떤 여자의 고백』,이렇게 셋뿐인가요?

교수 그렇겠지. 아이, 피곤해.

처 어떤 것이건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겠구, 축음기도 사야겠구,
또 이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⑤

생명체가 가진 많은 수의 유전자에는 효소뿐만 아니라 특정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유
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유전 정보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합성되며, 단백질에
의해 털 색깔, 뿔 모양, 귀 모양 등과 같은 여러 형질이 나타난다.

유전자의 DNA 염기 배열 순서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이를 '3 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3 염기 조합은 세균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물에서 동일하다.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합성될까? DNA의 유전 정보는 RNA로 전달되고,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합성된다.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사'라고 한다. 전사를 통해 만들어진 RNA가 리보솜과 결합하면 RNA의 코돈**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와 같이 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DNA를 전사하여 RNA를 만든 후, 코돈을 번역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 합성된 단백질 중에는 세포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것도 있고, 생명체에서 형질이 나타나게 하는 것도 있으며, 생명 현상이 유지되도록 작용하는 것도 있다.

* 리보솜: 세포질에 있는 세포 소기관으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 코돈: RNA에서 정보를 담고 있는 3개의 연속된 염기.

【문제 1】 위의 글 ① ~ 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아래 ⑥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 (±50자)로 작성)

⑥

[그림1]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

연도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2010	100.0	63.0	55.3	33.3
2015	100.0	65.0	49.7	35.0

※ 시간당 임금 총액 기준(대기업 정규직 = 100) (고용 노동부, 2016)

[그림2] 디지털 음원의 수익 구조

구분	비율 (%)
제작사	44
음원 유통 업체	40
작사·작곡·편곡가	10
가수	6

(문화체육관광부, 2015)

[그림3]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는 원인

원인	비율 (%)
부의 세습으로 계층 이동 곤란	31.0
비정규직의 노동 시장 불명확	22.2
과도한 학벌 사회	16.5
부족한 사회 안전망	14.7
기타	9.8
모름·무응답	5.8

자료: 한겨레 사회 정책 연구소, 2012

[그림4]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연도	부정 수급자 수(명)	부정 수급액(백만 원)
2013	21,735	11,725
2014	22,108	13,092
2015	21,493	14,806

(고용 노동부, 2015)

【문제 2】 위의 글 ① ~ 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옹호와 비판 가운데 어느 한쪽의 일관된 입장에서 아래 글 ⑦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50점, 답안지 2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⑦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과거의 단순 협업과는 다르다. 과거의 단순 협업은 개개인들의 노동 방식을 변경시키지 않았지만, 공장제 수공업에 의한 노동 방식의 급격한 변화는 개별 노동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의 모든 생산적인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면서 특수한 기능만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자를 소외시켰다. 사적 소유와 분업, 계급적 사회관계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인 노동을 왜곡하고 파편화함으로써 자아실현을 가로막는다. 결국 자본주의는 이윤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적을 지속해서 주입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화하고 인간이 물질에 종속되어 인간성을 상실하는 인간 소외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3. 출제 의도

- 고등학교 <문학>, <생활과 윤리>, <세계사>, <사회문화>,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등 교과가 다루는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사회와 윤리’,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사회 계층과 불평등’, ‘사회정의와 불평등’, ‘생명 시스템’, ‘대한민국의 발전’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분배의 정의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제도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고등학교 <문학>,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세계사>, <통합과학> 등 교과가 다루는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사회와 윤리’, ‘사회사상’,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생명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화자’의 관점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4.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사회과(한국사) 교육과정” 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	제시문 ②,④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 기준	(3) 사회와 윤리 [12생윤03-01] 직업의 의의를 행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따른 직업윤리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동체 발전을 위한 청렴한 삶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③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4) 사회사상 [12윤사04-05]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제시문⑦

3. 교과명: 사회

과목명: 세계사		관련
성취 기준	(4)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12세사04-01] 그리스·로마 문명의 특징을 이해하고, 고대 지중해 세계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탐구한다.	제시문①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그림①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12사문04-04] 사회 복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복지 제도의 유형과 역할 및 한계를 분석한다.	그림④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6) 사회 정의와 불평등 [10통사06-01]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다.	그림②
과목명: 한국사		관련
성취 기준	(4) 대한민국의 발전 [10한사04-07]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이 시기에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탐구한다.	그림③

4. 교과명: 과학

과목명: 통합과학		관련
성취 기준	(5) 생명 시스템 [10통과05-03]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을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방민호 외	미래엔	2023	268	제시문②	×
문학	조정래 외	해냄에듀	2019	260-272	제시문④	×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23	273-279	제시문④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23	85	제시문③	○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금성출판사	2023	79-83	제시문③	○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지학사	2023	80-83	제시문③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미래엔	2023	202	제시문⑦	○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23	209-212	제시문⑦	○
윤리와 사상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23	200-202	제시문⑦	○
세계사	최준재 외	미래엔	2023	103	제시문①	○
세계사	이병인 외	비상교육	2023	109-111	제시문①	○
세계사	김형종 외	금성출판사	2023	110-113	제시문①	○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23	169	제시문⑥	×
사회문화	서범석 외	지학사	2023	164	제시문⑥	×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3	160-163	제시문⑥	×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23	170	제시문⑥	×
통합사회	이진석 외	지학사	2023	172-177	제시문⑥	×
통합사회	육근록 외	동아출판	2023	164-167	제시문⑥	×
한국사	송호정 외	지학사	2022	289	제시문⑥	×
한국사	노대환 외	동아출판	2025	277-280	제시문⑥	×
한국사	신주백 외	씨마스	2025	312-315	제시문⑥	×
통합과학	김성진 외	미래엔	2023	162-163	제시문⑤	○
통합과학	신영준 외	천재교육	2023	162-173	제시문⑤	○

5. 문항 해설

- 1번 문항은 제시문 ⑥에서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 제시된 경제적 불평등과 분배적 정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문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서술할 수 있는지 평가함.
- 2번 문항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노동자의 인간 소외와 물질만능주의를 초래한다는 제시문 ⑦의 주장에 대한 옹호 또는 비판을 제시문의 관점에서 다양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평가함.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①, ②, ③을 활용하여 답안을 구성했으며, 각 지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⑥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의 근거로 삼은 경우, 높은 점수 부여. 단 ①, ②, ③ 외의 제시문을 활용한 경우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④, ⑤를 선택한 답안 참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성</th> <th>배점</th> <th>핵심 키워드</th> </tr> </thead> <tbody> <tr> <td>서론</td> <td>5</td> <td>경제 불평등, 분배적 정의</td> </tr> <tr> <td>①</td> <td>15</td> <td>업적에 따른 분배, 재분배 등</td> </tr> <tr> <td>②</td> <td>15</td> <td>사회적 연대를 통한 불평등 해결 등</td> </tr> <tr> <td>③</td> <td>15</td> <td>능력에 따른 고용,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td> </tr> <tr> <td>④</td> <td>최고점 13</td> <td>노동자 처우에 대한 관리 감독 등</td> </tr> <tr> <td>⑤</td> <td>최고점 13</td> <td>사회적 협력(상생) 관계 등</td> </tr> </tbody> </table>	구성	배점	핵심 키워드	서론	5	경제 불평등, 분배적 정의	①	15	업적에 따른 분배, 재분배 등	②	15	사회적 연대를 통한 불평등 해결 등	③	15	능력에 따른 고용,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	④	최고점 13	노동자 처우에 대한 관리 감독 등	⑤	최고점 13	사회적 협력(상생) 관계 등			
구성	배점	핵심 키워드																							
서론	5	경제 불평등, 분배적 정의																							
①	15	업적에 따른 분배, 재분배 등																							
②	15	사회적 연대를 통한 불평등 해결 등																							
③	15	능력에 따른 고용,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																							
④	최고점 13	노동자 처우에 대한 관리 감독 등																							
⑤	최고점 13	사회적 협력(상생) 관계 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옹호’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①, ②, ④를 골라 ⑦을 옹호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라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비판’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②, ③, ⑤를 골라 ⑦을 비판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라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옹호의 경우</th> </tr> <tr> <th>구성</th> <th>배점</th> <th>핵심 키워드</th> </tr> </thead> <tbody> <tr> <td>서론</td> <td>5</td> <td>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인간 소외, 물질만능주의</td> </tr> <tr> <td>①</td> <td>15</td> <td>빈부격차, 사회 불안, 계급적 사회관계 등</td> </tr> <tr> <td>②</td> <td>15</td> <td>사회적 약자, 고난과 시련, 소외된 노동자 등</td> </tr> <tr> <td>④</td> <td>15</td> <td>수동적 노동, 물질만능주의, 인간성 상실 등</td> </tr> <tr> <td>③</td> <td>최고점 13</td> <td>특수한 기능, 노동자 소외 등</td> </tr> <tr> <td>⑤</td> <td>최고점 13</td> <td>인간을 구성 요소(DNA, 단백질)로만 파악 등</td> </tr> </tbody> </table>	옹호의 경우			구성	배점	핵심 키워드	서론	5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인간 소외, 물질만능주의	①	15	빈부격차, 사회 불안, 계급적 사회관계 등	②	15	사회적 약자, 고난과 시련, 소외된 노동자 등	④	15	수동적 노동, 물질만능주의, 인간성 상실 등	③	최고점 13	특수한 기능, 노동자 소외 등	⑤	최고점 13	인간을 구성 요소(DNA, 단백질)로만 파악 등
옹호의 경우																									
구성	배점	핵심 키워드																							
서론	5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인간 소외, 물질만능주의																							
①	15	빈부격차, 사회 불안, 계급적 사회관계 등																							
②	15	사회적 약자, 고난과 시련, 소외된 노동자 등																							
④	15	수동적 노동, 물질만능주의, 인간성 상실 등																							
③	최고점 13	특수한 기능, 노동자 소외 등																							
⑤	최고점 13	인간을 구성 요소(DNA, 단백질)로만 파악 등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하위 문항	예시 답안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은 경제 불평등과 분배적 정의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룬다. [그림1], [그림3]은 경제적 불평등에, [그림2], [그림4]는 분배적 정의의 문제에 초점이 있다. 이에 대해 국가와 사회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에게 농지를 분배하고 기준 이상의 농지를 가진 자는 반환하도록 하는 법을 다룬다.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 내용과 성과에 따라 적절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한다면, [그림1]의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그림3]에서의 노동시장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누진적 조세 제도와 재분배를 통해 [그림3]에서의 부의 세습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 ③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각 분야에 능한 사람을 가려'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는 것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언급한다. 이처럼 능력에 따른 고용 제도를 통해 [그림3]에서의 부의 세습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농업, 상업, 공업 분야 등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찾기를 실업 급여와 연계하여 [그림4]의 실업 급여 부정 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 ②는 민중이 '햇살 따라워질수록'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짐과 같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극복하는 것을 묘사한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그림1]의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와 [그림2]의 작가.작곡.편곡가, 가수 등이 노동조합 조직과 집회 등 사회적 연대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과 분배적 정의의 확립을 촉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

- ④는 '밤낮 원고료를 찢리우'는 교수를 통해 번역 업계 수익 구조의 불공정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그림2]의 가수 등이 수익 구조에서 소외되는 상황과 유사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기업의 수익 구조와 노동자 처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⑤는 생명체의 유전자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성된 단백질을 설명하며,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이 생명체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는 단백질 합성 장소인 리보솜처럼 노.사.정 간 꾸준한 협력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여 상생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그림1]과 [그림2]의 노동시장 불평등 및 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옹호'의 경우>

- ⑦은 공장제 수공업 등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으로 인해 생기는 노동자의 인간 소외 현상과 물질만능주의를 지적하며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사회 양극화와 억압적 사회 구조 속의 약자를 보여주는 ①, ②와 인간성 상실을 보여주는 ④를 통해 이러한 시각을 옹호할 수 있다.
- ①은 유력자들의 대농장 경영으로 인해 농민층이 생산 기반인 토지를 잃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여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사회 불안이 조성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사회 양극화나 계층 갈등은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⑦의 계급적 사회관계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으로 인해 노동자의 자유로운 생산 능력이 억압당하고 파편화된 상황과 통한다.
- ②는 따가운 '햇살' 등 자연 현상으로 비유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쓰러지고 쓰러지는' 벽의 모습을 통해 무고한 민중의 고달픈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민중이 억압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 약자의 처지에 놓였다는 점에서 ⑦의 자본주의로 인해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이 왜곡당하고 마음이 황폐해진 소외된 노동자의 모습과 통한다.
- ④는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현대인의 생활상을 풍자하며,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번역에 종사하는 교수와 교수의 경제력에만 집착하는 처의 물질만능주의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⑦에서 비판한, 자본주의가 노동자의 생산적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고 특수한 기능만 촉진하여 인간을 물질에 종속된 존재로 만들어 인간성을 상실케 하는 인간 소외 현상을 심화시키는 문제점과 통한다.

<추가>

- ③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직업을 각각 맡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을 아울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도 있어야 국부가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⑦에서 자본주의가 노동자의 모든 생산적인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면서 특수한 기능만을 촉진해 노동자를 소외시켰다고 비판한 것과 연결될 수 있다.
- ⑤는 세균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물이 3 염기 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며 인간을 DNA와 단백질이라는 구성요소로만 파악한다. 이는 ⑦에서 자본주의가 특수한 기능만을 촉진해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노동을 왜곡하고 파편화함으로써 자아실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비판의 경우>

- ⑦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노동자를 소외시켜 그들의 자아실현을 가로막고 인간을 물질에 종속된 존재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한다. 이는 인간의 능동적 의지, 분업의 효용과 가치를 강조한 ②, ③, ⑤를 활용하여 비판할 수 있다.
- ②는 백성들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벼의 생명력과 속성에 빗대어 노래한다. 이는 억압에 굴하지 않고 연대하여 저항하는 민중의 주체성과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⑦에서 자본주의 속 노동자가 파편화되고 자아실현에 가로막혀 마음이 황폐해지고 물질에 종속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비판과 배치된다.
- ③은 어떤 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그 일을 아울러 다스리는 능력까지 갖춘 것은 아님을 지적하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일을 맡기고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 업무 간 효율을 증대시키는 생산 방식이 국부를 넉넉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분업의 효용과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분업이 특수한 기능에만 숙련된 노동을 촉진하여 노동자를 소외시킨다고 비판하는 ⑦의 주장과 배치된다.
- ⑤는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 즉,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렇게 합성된 단백질은 세포의 구성, 형질 발현, 생명 현상 유지처럼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구성요소 간 유기적인 상호 작용이 생명체의 본질을 이룬다는 점에서, 분업적 생산 방식이 노동을 왜곡하고 파편화한다는 ⑦의 주장과 배치된다.

<추가>

- ①은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토지를 잃고 몰락한 농민에게 임차 농지를 제공하는 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는 국가가 대농장 경영주와 자영 농민층의 계급적 사회 관계를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계급 관계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초래한 계층 갈등, 사회 양극화가 노동자의 소외와 파편화로 귀결된다는 ⑦의 주장과 배치될 수 있다.
- ④는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현대인의 생활상을 풍자한다. '교수'는 물질에 종속된 '치'의 요구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듯하지만, 동문서답을 하거나 피곤하다고 말하며 종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사를 은연중에 드러낸다. 또한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이 행복한 자신의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장남'의 말을 통해 자본주의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황폐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이윤 극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자본주의로 인해 인간이 물질에 종속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⑦의 주장과 배치될 수 있다.

[고려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문항 붙임번호	13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오후) / 1~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국어, 세계사, 세계지리,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통합과학
	핵심개념 및 용어	저출산·고령화, 공동체
예상 소요 시간	80분	

2. 문항 및 제시문

※ 아래의 글을 바탕으로 【문제 1】과 【문제 2】에 각각 700±50자로 답하시오.

①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각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씩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 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아득고 삭아 없어지고

큰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가
만져 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②

1929년 뉴욕 증권거래소 주가가 대폭락하는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수많은 은행과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미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유럽, 아시아 등도 타격을 받아 공황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공황 극복을 위해 자유방임주의 경제 원칙을 일부 포기하고, 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한 케인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다.

농업 조정법	곡물 가격 설정, 농업 생산 조절, 농민에게 보조금 지급
테네시 계곡 개발 공사법	국토 개발과 일자리 제공
국가 산업 부흥법	산업 부문의 생산 조절, 최저 가격과 노동 시간 규정
사회 보장법	노인 연금, 실업자 수당, 주 정부의 규제활동에 연방 정부의 지원

③

두레가 난 뒤로 마을 사람들의 기분은 통일되었다. 백룡이 모친과 쇠득이 모친도 두레 바람에 화해를 하게 되었다. 인동이와 막동이 사이도 웅매듭이 풀어졌다. 백룡이 모친은 밤저녁으로 두레 노는 것을 보고 오는 길에 쇠득이 집으로 들어가서 “형님, 쇠득이가 어짜면 춤을 그렇게 잘 춘다우?”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꺼내었다.

(중략)

백룡이네 논을 매러 와서 두레는 한바탕 들판에서 놀고 저녁때의 쉼 참이 되었다. 농군들은 논두렁에 앉아서 담배를 피운다. 술을 많이 먹으면 논을 거칠게 맨다고 그들은 누구에게나 한 번에는 한 사발 이상을 더 먹이지 않았다. 지금 그들은 담배 연기에 싸여서 이야기의 꽃이 피었을 때, 희준이도 그들의 틈에 끼여 앉아서 한 추렴을 들었다.*

“아니 희준이는 그러다가 농군이 되기 쉽겠네. 풍물 치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배웠나.”

김 선달은 앞니 빠진 말상 같은 얼굴을 흔들며 히히 웃는다.

“글쎄 말이지. 논두 매면 곧잘 매겠는데.”

“왜 농군이 되면 못쓰나요?”

희준이는 그들을 쳐다보며 따라 웃는다.

“자네 같은 사람이야 농군이 안 되더라도 잘살 수가 있을 터인데. 참 저 사람은 별일이여!..... 왜 월급 생활은 않는다나?”하고 조 첨지는 참으로 의심스러운 듯이 희준이를 노려본다.

“월급 생활보다도, 이런 일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도 무슨 주의가 다르기에 그렇지 않은가. 우리 같은 무지한 백성이야 여북 해서 *땅을 파먹느냐 싶은데? 원 참.”

조 첨지는 다시 의심스러운 눈을 희준이에게로 돌리는데 그러나 희준이는 잠자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 그들은 오히려 원시적인 우매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인간의 생산력이 유지하였을 때 자연에게 압박을 당하고 사회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은 이것을 불가항력으로 돌리는 동시에 인간을 무력하게 보고 따라서 ‘숙명적’ 인생관을 갖게 되지 않았던가? 지금 이들에게 노동은 신성하다. 사람은 누구나 노동을 해서 먹고사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농사짓는 것과 석탄 캐는 것과 고기 잡는 것과 길쌈하는 것 같은 생산적 노동은 그것들이 우리 생활에 직접으로 필요한 것인 만큼 더욱 귀중한 일이라고 설명을 한댔자,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은 놀고서도 잘사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놀면서 잘사는 까닭이 웬 일인지는 몰라도 사실이 그런 것만은 거짓말이 아니다.

*추렴을 들다: 남들이 말하는 데 한몫 끼어 말하다.

*여북하다: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다.

④

오늘날 한류(韓流)로 알려진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기려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록 한민족은 70여 년을 분단 상태로 지냈지만 대한민국은 경제적·문화적으로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어의 위상(位相)도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민족과 민족어에 대한 말살(抹殺)* 정책으로 한글의 사용을 금지당해 문맹률(文盲率)*이 약 80%에 이를 정도였다. 정부 수립 후 의무 교육의 시행과 국민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1958년에는 문맹률이 약 4%로 낮아졌다. (중략) 우리 한국어는 사용 인구가 2016년 기준 약 8천만 명으로 12위에 이른다. 또한 우리나라에 취업, 결혼, 유학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16년 9월 기준으로 약 204만 명이 되었고,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누적 응시자 수도 2016년 160만 명을 넘어섰다. (중략) 21세기 한국의 높아지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한국어가 국제어로 쓰이는 꿈을 그려 본다. 이를 위해 한국어를 아름답게 가꾸어 세계인이 즐겁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오늘의 우리 세대 그리고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살(抹殺): 있는 사물을 몽개어 아주 없애 버림.

*문맹률(文盲率): 배우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의 비율.

⑤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P_{손실}$)은 송전선의 저항(R)이 크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I)가 클수록 크다($P_{손실}=I^2R$). 따라서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송전선을 굵게 만들어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거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여야 한다. 송전선을 굵게 만들면 송전선의 제작 비용이 증가하고, 송전선이 무거워져 이를 지탱하기 위해 더 튼튼한 송전탑을 세워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않다.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전류를 줄이는 방법은 전압을 높이는 것이다. 전력($P_{송전}$)은 전압과 전류의 곱($P_{송전}=VI$)이므로 전력은 변화시키지 않고 전압을 높이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여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최종 소비지에서 사용하는 전력에 의해 결정된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크더라도 소비지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만 전력을 소모할 뿐이다. 반대로 전력 사용량이 최대 생산량에 가까워지면 모든 발전기가 최대로 가동되기 때문에 발전기에 무리가 가서 고장이 날 수 있다. 한 발전기가 고장나면 다른 발전기가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야 하므로 연쇄적인 고장과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이 연구되고 있다.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과 소비자 사이에 전선을 통한 양방향 통신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전력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즉, 한 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갑자기 증가하면 소비량이 적은 쪽으로 공급하던 전력을 이 지역으로 돌려 공급함으로써 전력 소비량이 초과되어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기존 전력망에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문제 1】 위의 글 ① ~ 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아래 ⑥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⑥

[그림1] 경제 발전 수준에 따른 인구 특성

[그림2]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그림3] 생애 주기별 수입과 지출

[그림4]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추이

【문제 2】 위의 글 ① ~ 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옹호와 비판 가운데 어느 한쪽의 일관된 입장에서 아래 글 ⑦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50점, 답안지 2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⑦

공화국은 기억과 기념이 무척이나 필요하다. 기억은 시민적 덕성을 키우는 강력한 수단이다. 우리는 독재에 대해 항거한 역사나 자유를 향해 투쟁한 역사를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함께 고통받았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회고함으로써,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들도 그러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슴 깊이 일깨울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념 행위들, 특히 공화국의 기념 행위들이 시장의 세계화와 폭증하는 정보 사회에서 더는 가치가 없는 케케묵은 애국주의의 표현이며, 지나간 시대의 잔재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들의 역사에 의미와 가치, 그리고 아름다움을 부여할 수 없는 국민이 시민적 문화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인 자긍심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긍심이 없는 사람은 쉽게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지는 것처럼 자기 나라에 대한 긍지가 없는 국민은 비굴해져 있다가 자신보다 약한 자들 앞에서는 쉽사리 포악한 압제자로 돌변하게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국과 조상의 위대함에 대해 비겁한 거짓말로 잔뜩 치장한 유치찬란한 국민적 자부심이 아니다. 우

리는 우리나라 역사의 이야기들 속에서 비록 짧았고 군사적으로 패배하여 사라졌던 것이라도 그런 자유의 소중한 경험들을 다시 발견해 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받았다는 느낌과 함께 우리나라를 진정한 시민 공동체로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도덕적 의무감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3. 출제 의도

- 제시문과 문항이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를 평가함.
- 주어진 제시문(그림 및 도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시된 사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사회 문제(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함.
-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사회사상과 관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사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며,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 옹호 또는 비판 주장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근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4.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성취 기준	(4) 문학에 관한 태도 [12문학04-02]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성취 기준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12문학03-02]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한다.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 기준	(4) 문법 [10국04-05]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①
성취 기준		제시문③
성취 기준		제시문④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세계사		관련
성취 기준	(5) 제국주의와 두 차례의 세계 대전 [12세사05-02] 제1, 2차 세계 대전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제시문②
과목명: 세계지리		관련
성취 기준	(3) 세계의 인문환경과 인문 경관 [12세지03-02] 세계의 일반적 인구 변천 단계와 그 지역적 차이를 파악하고, 국제적 인구 이주의 주요 사례 및 유형을 도출한다.	제시문⑥ 그림-1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 기준	(9)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10통사09-01] 세계의 인구 분포와 구조 등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인구 문제 양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제시문 ⑥ 그림-2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5) 경제생활과 금융 [12경제05-04] 개인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건전한 금융 생활을 위한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자신의 재무 계획을 설계한다.	제시문⑥ 그림-3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5) 현대의 사회 변동 [12사문05-02]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관련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⑥ 그림-4

3. 교과명: 과학

과목명: 통합과학		관련
성취 기준	(9)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10통과09-02] 발전소에서 가정 및 사업장까지의 원거리 전력수송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전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송 방안을 토의할 수 있다.	제시문⑤

4. 교과명: 도덕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 기준	(4) 사회사상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시문⑦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김창원 외	동아출판	2021	292~293	제시문①	0
문학	이송원 외	좋은책 신사고	2021	296		0
문학	최원식 외	창비	2022	282		0
문학	김동환 외	천재	2023	215~219	제시문③	0
문학	한철우 외	비상	2023	230		0
문학	방민호 외	미래엔	2023	226		0
국어	민현식 외	좋은책 신사고	2023	347~349	제시문④	0
국어	이삼형 외	지학사	2024	375		0
국어	김동환 외	교학사	2023	278		0
세계사	최준채 외	미래엔	2023	181	제시문②	0
세계사	김형종 외	금성출판사	2023	188		0
세계사	이병인 외	비상	2023	182		0
세계지리	박철웅 외	미래엔	2023	71	제시문⑥ 그림-1	0
세계지리	최병천 외	비상교육	2023	75		0
세계지리	황병삼 외	금성출판사	2023	75		0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3	276	제시문⑥ 그림-2	0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23	262		0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23	260		0
경제	허수미 외	지학사	2023	192	제시문⑥ 그림-3	0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23	204		0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2023	195		0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23	189	제시문⑥ 그림-4	0
사회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23	190		0
사회문화	서범석 외	지학사	2023	188		0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미래엔	2023	188	제시문⑦	0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23	184		0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씨마스	2023	188		0
통합과학	김성진 외	미래엔	2023	295	제시문⑤	0
통합과학	신영준 외	천재교육	2023	288		0

5. 문항 해설

- 1번 문항은 그림1~그림4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문 ①~⑤를 통해 제안하는 문항임.
- 그림1은 낮은 출생률, 그림2는 낮아지는 잠재 성장률, 그림3은 고령층의 수입과 지출 불균형, 그림4는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고갈을 보여줌.
- 제시문 ①은 생명과 역사의 연속 문제, 제시문 ②는 대공황 상황에서 뉴딜 정책과 같은 정부 정책, 제시문 ③은 두레 공동체, 제시문 ④는 한국어의 위상, 그리고 제시문 ⑤는 지능형 전력망을 다루고 있음.
- 1번 문항의 답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세대 간 화합을 포함한 개인 인식 차원의 해결책과 국가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복지를 포함한 정부 정책적 차원의 해결책을 제안할 것을 기대함.
- 2번 문항은 제시문 ①~⑤ 가운데 세 개의 제시문을 근거로 삼아 공동체와 개인에 관한 제시문 ⑦을 옹호 또는 비판함.
- 2번 문항의 답으로 공동체를 연속된 역사의 기억과 기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옹호하는 입장 또는 공동체를 개인의 희생 또는 갈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이 구성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비판하는 입장을 기대함.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①, ②, ③을 활용하여 답안을 구성했으며, 각 지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⑥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의 근거로 삼은 경우, 높은 점수 부여. 단 ①, ②, ③ 외의 제시문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④, ⑤를 선택한 답안 참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옹호'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①, ②, ④를 골라 ⑦을 옹호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에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비판'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③, ④, ⑤를 골라 ⑦을 비판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에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하위 문항	예시 답안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를 보여준다. [그림1]은 낮은 출생률, [그림2]는 잠재 성장률 감소, [그림3]은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의 경제적 어려움, [그림4]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고갈 문제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개인적, 사회적, 및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 ① ‘버팀목’은 죽은 나무는 산 나무를 살리고, 다시 산 나무는 죽어 다른 생명을 살린다. 서로 다른 세대가 동반자 관계로서,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노인 세대는 젊은 세대를 존중하는 세대 화합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노인과 청년이 서로 다른 처지를 이해함으로써 세대 정의의 태도를 가진다.
- ③은 ‘노동’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화합을 말한다. 양성평등 가치에 기반하여, 가족 공동체 내에서 공동 가사,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고, 사회 공동체에서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 고용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 ②은 국가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복지 정책을 설명한다. 정부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실버 산업과 같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직업교육과 인력개발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고, 전 연령대의 고용을 통해 청년과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연·기금 고갈을 예방할 수 있다.

<추가>

- ④를 활용한 경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증가는 한국 취업, 결혼, 유학 등의 체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외국인의 유입은 성장을 감소로 완화시키고 국민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⑤를 활용한 경우: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 소비량이 적은 지역에 공급하던 전력을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역으로 돌려 공급함으로써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전력망과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은 새로운 산업으로서 성장률 감소를 완화시키고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옹호’의 경우>

- 2 • ⑦에서 화자는 시민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해 공화국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 공유된 기억을 토대로 시민들은 자유를 지켜낸 공화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진정한 시민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지니게 된다는 화자의 주장은 ① ② ④를 통해 옹호할 수 있다.
- ①에서 산 나무는 죽은 나무인 버팀목에 기대어 생명력을 회복한다. 화자는 이를 보며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준 죽어간 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자신도 앞으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이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이에 대한 자긍심이 공동체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도덕적 의무감의 바탕이 된다는 ⑦의 주장을 옹호한다.
- ②에서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실시했다. 뉴딜정책은 공동체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구성원들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내어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애국심은 국가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른 맹목적인 미화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공화국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⑦을 옹호한다.
- ④에서 일제 강점기 민족어 말살 정책으로 잊혀질 위기에 처했던 한국어가 세계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는 한국어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자 노력해 온 결과다. 한국어와 한국어를 사용할 자유를 지켜낸 경험과 자긍심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한국어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⑦을 옹호한다.

<추가>

- ③을 활용할 경우: ③은 '두레'라는 조직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통일과 화해를 이루고자 함을 보여준다. 마을 사람들은 상부상조하며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서로를 재발견하고, 기존의 갈등을 해소하며, 유대감을 가진 공동체로 거듭난다. 이는 경험의 공유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개인들을 하나로 묶어 내어 더 나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⑦의 주장을 옹호할 수 있다.
- ⑤를 활용할 경우: ⑤에서 지능형 전력망은 기존 전력 수송 방식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 발전소와 소비자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전력 생산과 공급, 수요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듯이 현재의 시점에서 공동체의 자유를 지켜낸 역사에 대한 기억을 재발견해 낼 수 있을 때, 과거에 대한 무지와 맹목적인 미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⑦을 옹호한다.

<'비판'의 경우>

- ⑦에서 화자는 시민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해 공화국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 공유된 기억을 토대로 시민들은 자유를 지켜낸 공화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진정한 시민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지니게 된다는 화자의 주장은 ③ ④ ⑤를 통해 비판할 수 있다.
- ③은 두레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의 화해와 통합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의 신성함을 모르는 '우매한 생각'에 사로잡혀 삶은 불가항력의 운명에 따른다는 '숙명적 인생관'을 보인다. 이는 과거를 기억하면 도덕적 의무감이 생겨 시민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⑦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 ④는 한국어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한국어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는 한국 문화의 가치와 의미, 아름다움을 알고 즐기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를 공유하지 않고서도 한국어가 '국제어'로 통용되는 문화 공화국이 새로이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⑦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 ⑤는 전력 공급 시설과 소비자 간의 전력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양방향 '지능형 전력망'을 소개한다.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의 효율적인 수송을 위한 목적으로 발전소와 소비자를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포함하는 확장성이 있는 네트워크다. 이는 ⑦에서 말하는 과거와 현재를 한 방향으로 연결하고, 국가와 시민을 수직적으로 관계짓는 닫힌 공동체를 비판할 수 있다.

<추가>

- ①을 활용할 경우: ①은 버팀목과 산 나무의 관계를 통해, 과거는 사그라져 현재를 세우고 현재는 빛나지만 미래를 위해 다시 사그라져야 하는 순환적 소멸을 보여준다. 과거가 현재에 사라진다는 입장은, 과거의 기억과 재발견이 현재와 미래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⑦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 ②를 활용할 경우: ②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건실한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보장제도를 포함하여 국가가 시민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더 나은 시민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서 국가가 시민에게 공화주의적 덕성과 도덕적 의무감을 요구하는 ⑦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논술시험(언어형 1)

[2025. 11. 15.(토) 언어형 1교시]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위주
수험번호	성명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표지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사회적 병리 현상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 1>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병리 현상의 촉매가 되어 사회적 일탈을 가속하는 위협 요소로 부상했다. 데이터가 몇몇 대기업에 집중되고 알고리즘이 편향된 선택을 유도할수록 기존 사회 구조의 약점은 더 잘 드러나게 된다. 개인의 기존 선호를 강화하는 알고리즘은 자기가 미워하는 대상은 더욱 미워하고 좋아하는 대상은 더 좋아하게 만들어, 혐오와 증오가 사회 전체에 번지는 현상을 초래한다.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거대 통신 기업은 맹목적인 이윤 추구에 사로잡혀 사회 불신과 갈등 확산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와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 역량이 부족한 정부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더욱이 계층 간의 이동이 경직된 사회 구조에서는 소외 계층의 일탈이 주변으로 번질 수 있다. 이상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치'와 '통치'의 기능적 조화가 필요하다. 통치 기구로서의 정부는 법과 제도, 규제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자원 투자는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시민단체로 대표되는 협치 기구는 정부만이 아니라 시장,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시민 참여 기구의 구축과 운영, 민관 협력 모델 개발, 기술 표준화 등은 협치의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다. 법과 제도를 통해 통치의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협치다. 특히 급속한 사회 변동기에는 협치와 통치를 잇는 기민한 대응이 절실하다. 디지털 기술 발전의 속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빨라졌고, 익숙한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 문제 또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이 특정 인종·계층을 겨냥해 상품이나 정보를 제시하거나, 혐오·차별 콘텐츠를 부각하면 소수 집단은 차별과 배제에 직면하게 된다. 편향된 정보에 노출된 대다수 사용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8년 미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도 협치와 통치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다. 한 소셜 미디어 기업에서 제공한 사용자 데이터가 정치 캠페인에 활용되면서, 무단 수집된 수억 명의 이용자 정보로 분석된 맞춤형 선거 광고가 제작됐다. 당시 미국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었지만, 해당 기업이 수집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발생한 사회 변화에 정부는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고, 시민사회 역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책임지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디지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다. 협치와 통치의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의 혜택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제시문 2>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지식주의는 지식과 덕을 동일시한 도덕 철학으로서, 아크라시아(akrasia) 즉 의지박약의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아크라시아란 사람이 무엇이 선인지 알면서도 욕망에 이끌려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선악을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함으로써 전통적인 아크라시아의 존재를 부인했다. 소크라테스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간은 판단력을 타고나지 않으며, 옳고 그름의 구분은 경험과 성찰의 반복을 통해 형성된다. 이 훈련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채 종종 충동에 휩쓸린다. 예컨대 한 회사원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고 가정하자. 그는 자신의 행위가 단기적으로는 유리해 보일지 몰라도 중국에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규범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부패한 정치인의 거짓 선전에 속아 타인이나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행동도 사실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라기보다는 진실을 식별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악행은 판단력의 결핍에서 비롯되며, 인간은 참된 앎을 깨달으면 악을 택하지 않는다. 이처럼 범죄는 어리석음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악을 줄이는 방법은 앎의 확장에서 찾아야 한다. 생각하는 개인은 사회의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그것의 근거를 이해한다.

반면 생각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에서는 제도가 부패하고 권력이 도덕적 근거를 상실한다. 이해를 통한 깨달음만이 진정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사유 능력의 훈련은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더욱 시급하게 요청된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 과잉은 일상화된 문제가 되었다.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실시간으로 수많은 소식을 접한다. 이런 시대적 특성은 사람들을 피로하고 무감각하게 만든다. 사유하는 힘이 결여된 사람은 주의가 산만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다보니 정작 필요한 정보가 눈앞에 있어도 알아채지 못하며,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여론과 감정에 휩쓸리고 복잡한 문제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한다. 문제는 지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사회가 개인의 도덕성을 단속하는 대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을 길러줄 때에야 비로소 자율적이고 성숙한 시민이 탄생한다. 이성이 인간의 삶을 이끌 때, 도덕은 명령이 아니라 이해가 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화며, 문명의 가장 깊은 형태다.

<제시문 3>

고전적 형벌론자들은 인간을 완전한 책임능력을 지닌 주체로 전제했다. 그들은 모든 행위가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된 결과라고 믿었으며, 범죄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 논리에 따르면 범법자는 스스로 선악과 시비를 가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악을 택한 사람이며, 범죄는 개인의 타락과 부도덕함에서 비롯된 일탈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은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고 공포를 통해 질서를 강제하는 장치로 이해되었으며, 형벌의 원리는 '보복'과 '응징'이었다. 따라서 초기 근대 유럽의 형벌은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 몹시 잔혹하게 집행되었으며, 죄를 밝혀내고 처벌하기 위해서 고문도 합법으로 인정되었다. 단순한 절도죄로 중형을 선고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중범죄를 저지른 수인들은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방법으로 공개 처형되었다. 이런 형벌은 죄인의 행위에 걸맞은 응보로서 정당화되었고, 사법은 이와 같은 처벌 체계를 운용해야 할 책임을 진 국왕의 당연한 대권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8세기 말 영국의 철학자 윌리엄 고드윈은 이러한 전통적 형벌론이 경제와 교육 부문에 존재하는 현실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맥락과 구조적 요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가난한 청년이 부자의 보석을 훔쳤다고 하더라도, 고드윈은 그 청년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니까 처벌하자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청년의 행위가 자신이 처한 극심한 빈곤 상태와 부나 명예 같은 문화적 목표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조급하고 절망적인 몸부림이라고 보고, 진정한 책임은 그러한 상황을 조장한 사회에 있다고 판단한다. 범죄의 근본적 원인은 개인의 악의가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에 있으므로, 청년을 투옥하는 일은 사회적 책임을 은폐·회피하는 일이 된다. 고드윈은 형벌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가혹한 형벌이 범죄를 감소시키기는커녕 인간을 더 교활하게 만들고 제도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심화시키리라고 예상했다. 또한 사회의 임무가 인간을 처벌로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고난 여러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한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 허가가 끝난 뒤에도 다른 사람의 신분을 빌려 계속 일했다면, 그것은 형식상 분명 범법행위다. 그러나 그 행위는 노동법과 이민 제도의 구조적 배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법과 제도가 현실의 인간 조건을 외면한 결과다. 문제의 핵심은 이주노동자 개인의 불법적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그 노동자가 정직하게 살아도 결국 여러 권력에서 배제되게 만드는 사회 구조와 제도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드윈의 관점은 정의 개념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는 정의를 '개선'과 '회복'의 과정으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적 형벌론을 극복하고, 형벌의 목적을 공포에서 개혁으로, 도덕의 근거를 개인에서 사회로 이동시켰다. 법과 정치의 목적이 인간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을 선택하게 만드는 조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역설한 것이다. 이런 관점은 동시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체사레 베카리아나 볼테르 같은 문인들의 사상에서도 나타났으며,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제국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철학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나아가 이 새로운 사상의 조류는 19세기 후반 여러 학제가 독립적인 학문 분과로서 등장한 후 현대 법학사회학 이론은 물론이고 수많은 국가의 형법에도 각인되었다. 공개처형과 고문을 금지하고 잔인한 형벌을 배척하며 징역과 구금의 목적을 수인의 교화 및 재사회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처럼 고드윈의 사상은 형벌의 철학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했을 뿐 아니라, 개선이 가능한 사회의 구조 안에서 형성되는 인간 삶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혁명적 기획이었다.

<제시문 4>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덕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개인의 윤리적 성찰이 부족할 때 사회 질서가 얼마나 취약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성숙과 성찰의 계기였다. 방역 초기 한국인의 자발적 참여는 급속도로 감염이 확산하는 해외 사례와 비교되며 국가적 자부심이 되었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심을 보여주는 생생한 실천이었고, 국가 공동체가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방역 수칙 위반과 자가격리 이탈은 윤리적 실패의 단면이었다. 이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감염 확산을 가속화하고 사회를 마비시켰다. 2020년 2월 초까지만 해도 10명 이하였던 코로나 확진자 수는 3월 초에는 1,000명을 넘어섰고, 3월 말에는 4,000명을 돌파했다. 확진자 증가로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 조치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2020년 3월 말에는 검역·격리·감염자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인 코로나19 방역법 초안이 정부에서 통과됐다. 이와 함께 전자출입 명부와 안심밴드 등의 강력한 하향식 통제 정책이 도입된다. 이러한 통제 정책은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해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 불신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제도가 완벽하더라도 시민 개개인의 도덕적 책임감이 부족하면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자발적 시민 봉사 단체가 조직되어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응했던 것은 자발적 행동의 실제적인 효과를 보여준 사례다. 지역 주민들이 모여 비상식량 배급 네트워크를 구축해 물자 부족을 해소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구체적 실천은 개인의 덕성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복지와 질서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행복한 삶의 기초는 덕 있는 삶의 실현이며, 성숙한 인격의 완성은 건강한 사회 질서와 공동선 실현의 기반이 된다. 시민 각자가 성실, 배려, 정의, 책임과 같은 핵심 가치를 내면화하지 않으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는 책임과 의무를 둘러싼 복잡한 사회 관계가 얽혀있다. 팬데믹 동안에 근거 없는 음모론이 급속도로 퍼지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던 사건을 생각해 보자. 백신 부작용에 대한 과장된 주장이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정보 공론장에서 시민은 수용자인 동시에 진위를 판별하고 책임감 있게 공유할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시민의 책임감은 과소 평가될 수 없는 요소다. 감시와 통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시민들 스스로 더 좋은 세계를 만들 가능성을 억누르는 결과로 이어진다. 진정한 변화는 억압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선택과 실천에서 시작된다.

[문제 2] 자료 1>과 <자료 2>는 두 국가 A, B의 디지털 정보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보여준다. 두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 (자료에 제시된 정보 이외의 다른 모든 조건은 A, B국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함) (40점)

<자료 1> 국가별 디지털 정보 환경과 시민 조사 결과

<자료 1-1> 국가별 디지털 정보 환경

항목	A국	B국
최근 5년간 정부의 디지털 정책 공청회 건수	5	20
디지털 역량 격차 지수 ¹⁾	64	40
미디어 다원성 지수 ²⁾	35	84
인터넷 보급률(%) ³⁾	98.6	98.4

- 주1) 일반 국민 대비 디지털 취약 계층의 디지털 역량 미달 수준을 나타냄. 0~100의 값을 가지며 100에 가까울수록 일반 국민과의 격차가 큼을 의미함. 각 국가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측정한 디지털 역량 평균값은 동일함
- 주2) 국가에 다양한 정보원(언론, 정부기관, 연구소, 온라인 포털 사이트 등)이 존재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원에 접근 가능한 정도를 표준화된 값(0~100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다원성이 높음을 의미함)
- 주3) (인터넷 이용자 수 / 전체 인구 수) × 100

<자료 1-2> 악성 댓글 신고율⁴⁾ 시민 조사 분석 결과

- 조사 내용: A국과 B국 국민의 냉소적 태도,⁵⁾ 정보 이해력,⁶⁾ 악성 댓글 신고율
- 조사 기간: 2025년 1월 1일~31일
- 조사 대상자: 각국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표집한 A국 5,000명, B국 5,000명

<악성 댓글 신고율>

A국		냉소적 태도	
		약함	강함
정보 이해력	낮음	30	16
	높음	80	40
B국		냉소적 태도	
		약함	강함
정보 이해력	낮음	31	16
	높음	84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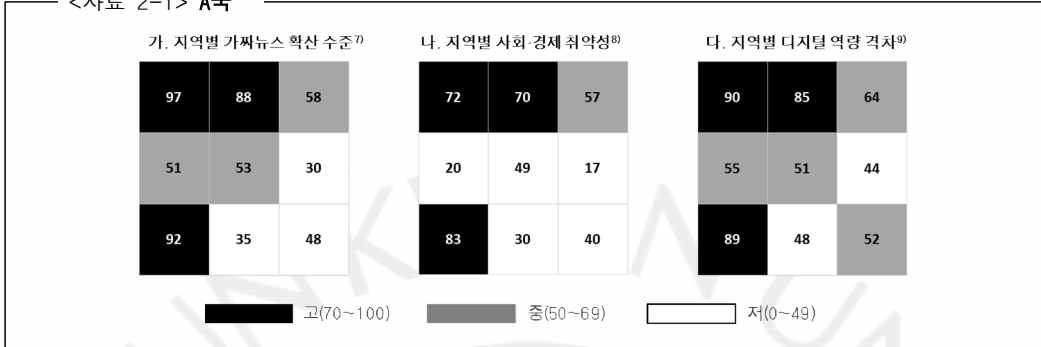
- 주4) 평소 악성 댓글에 노출되었을 때 해당 온라인 포털 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의 신고 기능을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0~100으로 나타냄. 값이 클수록 더 활발하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두 국가의 악성 댓글 노출 빈도 평균값은 동일함
- 주5) 다른 사회 구성원이나 사회 전체의 안녕에 대해 무관심하게 대하는 개인의 태도. 두 국가의 냉소적 태도 평균값은 동일함
- 주6) 개인이 정보의 의도와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두 국가의 정보 이해력 평균값은 동일함

논술시험 (언어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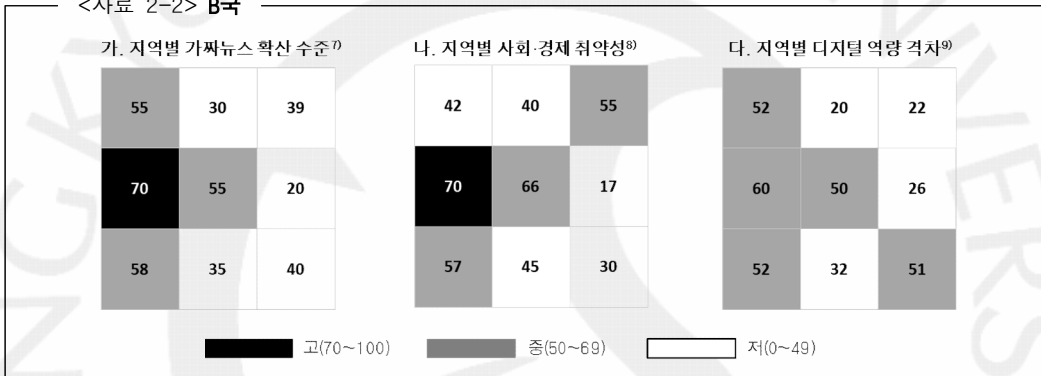
<자료 2> 각 국가의 지역별 가짜뉴스 확산 현황

다음은 A국과 B국의 지역별 가짜뉴스 확산 정도와 관계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 나타난 지리적 도표다. 각 칸은 국가 내 하나의 지역을 의미하며, 거리가 가까운 칸들은 실제 지리적 거리도 가까움을 의미한다.

<자료 2-1> A국



<자료 2-2> B국



주7) 각 지역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된 정도를 각 지역의 인구 수를 반영하여 표준화한 지표(0~100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확산 수준이 높음)

주8) 범죄율, 빈곤율, 실업률 측면에서 해당 지역이 취약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0~100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취약성이 높음)

주9) <자료 1-1>에 제시된 디지털 역량 격차 지수의 해당 국가 지역별 값임

논술시험(언어형) : 1교시 <문제 1> 분석

1. 제시문 분석

□ <제시문 1>

<제시문 1>은 이명학의 『거버넌스 신드롬』, 윤희철의 『협치는 어떻게 성공하는가』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 의도에 맞게 재구성했다. 제시문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혐오와 차별,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키는 사회 병리 현상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미비에서 찾는다. 특히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데이터 독점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 부재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통치와 협치의 조화를 강조한다. 이 제시문은 일탈과 갈등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조적·제도적 환경의 산물로 이해하는 관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으며, 일탈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사회문과 과목의 핵심 영역과, 디지털 사회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통합사회, 정치와 법 과목의 핵심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높다. 제시문의 논지는 비교적 명확하여 수험생이 사회 병리 현상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찾는 입장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 <제시문 2>

<제시문 2>는 토머스 A. 블랙슨의 「소크라테스 지성주의의 두 가지 해석」의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 의도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 제시문은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지식주의를 핵심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일탈과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악의나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라 판단력과 지식의 결핍에서 찾는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완전한 판단력을 지닌 존재가 아니며, 경험과 성찰을 통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깊이 숙고하지 못한 채 충동이나 감정, 여론에 휩쓸려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제시문은 디지털 시대의 정보 과잉이라는 현대적 상황을 제시하여, 정보의 양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비판적 사고와 사유 능력이 모자란 개인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병리 현상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개인의 사유 능력과 정보 이해력, 즉 지적 역량의 함양을 제시하며, 외적 통제나 처벌보다 앎의 확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생활과 윤리 및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 다루는 도덕적 판단에서 이성의 역할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사회적 병리 현상을 개인 책임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제시문으로 기능한다고 판단한다.

□〈제시문 3〉

〈제시문 3〉은 마크 필프의 「고드윈의 정치적 정의」, 이언 워드의 「도덕적 진리의 거처」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 의도에 맞게 재구성했다. 이 제시문은 고전적 형벌론이 전제 한 개인 책임 중심의 범죄 이해를 비판하고, 윌리엄 고드윈의 사상을 통해 범죄와 일탈의 근본 원인을 사회 구조와 제도적 조건에서 찾는다. 개인의 범죄 행위는 자유의지에 따른 도덕적 타락이나 악의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빈곤과 불평등, 물질만능주의와 같은 구조적 요인 속에서 형성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형벌의 목적을 단순한 응징이 아닌 개선과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병리 현상을 개인 처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 문제로 확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범죄 예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적 역할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 제시문은 사회·문화 및 정치와 법 교과에서 다루는 일탈 이론과 형벌의 기능을 심화한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서술이 비교적 상세하여 수험생에게는 다소 긴 지문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런데도 핵심 논지는 비교적 명확하여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사회적 병리 현상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 책임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분류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제시문 4〉

〈제시문 4〉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실제 사회적 위기 상황을 사례로 제시하여, 사회 질서 유지와 공동선 실현에 있어 개인의 윤리적 책임과 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방역 수칙 준수와 자발적인 시민 참여 사례를 통해 개인의 책임 있는 행동이 사회 전체의 안전과 신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개인의 도덕적 선택이 집합적 차원에서 사회 질서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아울러 일부 시민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를 통해 개인의 무책임한 행동이 사회적 혼란과 제도적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법과 제도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적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감시와 규제 중심의 하향식 통제는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한계 또한 드러낸다. 이 제시문은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을 제도적 장치보다 시민 개개인의 책임 의식과 도덕적 실천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명확히 제시한다. 이는 생활과 윤리 및 통합사회에서 다루는 민주시민의 자세와 공동체 윤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수험생이 비교적 친숙한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문의 논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례 기반 제시문으로 기능한다고 판단된다.

2. 문제 분석

□[문제 1]

[문제 1]은 네 개의 제시문을 사회적 병리 현상의 원인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 즉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핵심 논지를 요약하도록 요구한다. 이 문항은 단순한 제시문 요약에 그치지 않고, 공통된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문들을 체계적으로 범주화하며, 동일 입장 내에 속한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사고 과정을 요

구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제시문의 개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논지를 하나의 관점으로 통합하여 재구성하는 능력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이 문항은 분류 능력, 핵심 논지 파악 능력, 정보 조직 및 요약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으로서 세트형 논술의 도입 문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발문의 요구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수험생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인지하는데 혼란이 없다. 마지막으로 [문제 1]과 관련된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목	성취 기준
사회·문화	[12사문02-04] 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탈 행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다. [12사문02-02]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설명하고 역할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통합사회	[10통사03-02]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정치와 법	[12정법03-03]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 [12정법05-01]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를 탐구한다.
생활과 윤리	[12생윤04-0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와 매체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윤리와 사상	[12윤사03-05]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사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화법과 작문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위와 같이 제시문의 내용 요소 및 난이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며 [문제 2]와 [문제 3]으로 이어지는 논의의 기준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항 구성의 구조적 완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출제의도, 채점기준, 예시답안 분석

□[문제 1]

출제 의도는 사회적 일탈과 범죄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개인 책임론과 사회 구조 책임론이라는 상반된 관점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이는 사회·문화,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 여러 교과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핵심 개념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취지에 부합한다.

채점 기준은 제시문 분류의 정확성, 각 입장의 핵심 논지 요약 여부, 그리고 제시문별 나열에 그치지 않고 입장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서술했는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채점 포인트는 출제 의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등급별 기준 또한 답안 수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시 답안은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정확히 분류한 뒤, 각 입장의 공통 논지와 제시문 간 차이를 균형 있게 서술하고 있어 문항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서술 분량과 난이도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적절하며, 수험생이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답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타당성이 높다.

논술시험(언어형) : 1교시 <문제 2> 분석

1. 자료 분석

□ <자료 1>

<자료 1>은 두 국가 A, B의 디지털 정보 환경과 시민의 행위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병리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동시에 제시한다. <자료 1-1>은 디지털 정책 공청회 건수, 디지털 역량 격차 지수, 미디어 다원성 지수, 인터넷 보급률이라는 네 가지 지표를 통해 국가별 디지털 정보 환경의 질적 차이를 드러낸다. 두 국가는 인터넷 보급률이라는 물리적 환경에서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A국은 B국에 비해 디지털 정책 공청회 건수가 적고 미디어 다원성 지수가 낮으며 디지털 역량 격차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수험생은 단순한 정보 접근성보다는 제도적 기반과 정보 환경의 구조적 차이가 사회 문제와 연관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자료 1-2>는 냉소적 태도와 정보 이해력이라는 개인적 요인에 따라 악성 댓글 신고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시한다. 두 국가 모두에서 냉소적 태도가 약하고 정보 이해력이 높은 집단이 가장 높은 신고율을 보이며, 반대로 냉소적 태도가 강하고 정보 이해력이 낮은 집단은 가장 낮은 신고율을 보인다는 점이 공통으로 나타난다. 특히 악성 댓글이라는 사회 병리 현상에 대한 전체 신고율에 대한 국가 간 평균값은 유사하지만, 개인적 특성에 따라 행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사회적 병리 현상의 원인을 개인의 지적·도덕적 역량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자료의 구성과 지표 설명이 비교적 명확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자료 해석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자료 2>

<자료 2>는 A국과 B국의 지역별 가짜뉴스 확산 수준을 사회·경제적 취약성 및 디지털 역량 격차와 연관 지어 제시함으로써 사회 구조적 요인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적 관점에서 드러낸다. 지리적 도표의 형태로 제시된 <자료 2-1>과 <자료 2-2>는 지역 간 인접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적 병리 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음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A국은 전반적으로 가짜뉴스 확산 수준이 높은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높은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디지털 역량 격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B국은 상대적으로 가짜뉴스 확산 수준이 낮지만,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디지털 역량 격차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사회적 병리 현상이 개인의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구조적 조건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접 지역 간 유사한 확산 패턴은 일탈 행동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여, 차별 교제 이론과 같은 사회학적 설명과도 연결될 여지를 제공한다. <자료 2>는 지표에 대한 각주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고, <자료 1>과의 연계 해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수험생이 사회 구조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2. 문제 분석

□[문제 2]

[문제 2]는 <자료 1>과 <자료 2>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문제 1]에서 제시된 두 입장인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 과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 을 각각 옹호하도록 요구하는 자료 해석 중심 문항이다. 이 문항은 단순히 자료의 수치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료가 갖고 있는 의미를 추론하여 이를 [문제 1]의 이론적 입장과 연결하는 고차적 사고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변별력을 갖는다. 특히 [문제 2]는 [문제 1]에서 설정된 분석 틀을 그대로 활용하되, 추상적인 제시문이 아닌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지리적 도표를 근거로 논리를 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은 동일한 사회 현상을 개인적 요인과 사회 구조적 요인이라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구성은 세트형 논술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추상적인 이론적 관점을 실제 자료 해석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 발문에서 ‘각각 옹호하시오’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수험생이 두 입장을 모두 다루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입장 선택에 따른 편향을 방지하고 자료 활용의 폭을 넓히는 효과를 가진다. 자료의 조건을 동일하게 가정하도록 명시한 점 또한 불필요한 외적 변인을 배제하여 논증의 초점을 명확히 제시해 수험생이 불필요한 고민을 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문제 2]와 관련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목	성취 기준
사회·문화	[12사문02-04] 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탈 행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다. [12사문02-02]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설명하고 역할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통합사회	[10통사03-02]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정치와 법	[12정법03-03]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 [12정법05-01]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를 탐구한다.
생활과 윤리	[12생윤04-0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와 매체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윤리와 사상	[12윤사03-05]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사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지리	[12한지04-04] 지역 개발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공간 및 환경 불평등과 지역 갈등 문제를 파악하고, 국토 개발 과정이 우리 국토에 미친 영향에 대해 평가한다.
화법과 작문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전반적으로 [문제 2]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적합한 문제이며 자료 이해 능력, 논리적 연결 능력, 관점 전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으로서 적절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된다.

3. 출제의도, 채점기준, 예시답안 분석

□ [문제 2]

[문제 2]의 출제 의도는 수험생이 주어진 통계 자료와 시각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문제 1]에서 제시된 이론적 입장의 근거로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다. 이는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자료 해석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정보 조직 및 설명 능력을 통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다.

채점 기준은 자료 이해의 정확성, 자료와 입장 간의 연계 여부, 그리고 그 연계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은 수험생이 단순한 자료 나열이나 피상적인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자료가 각 입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까지 서술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출제 의도와 의 정합성이 높다. 또한 두 입장을 모두 다루도록 요구함으로써 답안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예시 답안은 <자료 1>을 개인의 지적·도덕적 요인과 연결하고, <자료 2>를 사회 구조적 요인과 연계하여 [문제 1]의 제시문들과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자료의 핵심 수치를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각 자료가 시사하는 바를 입장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어 문항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다. 서술의 수준과 분량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적절하며, 수험생이 답안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논술시험(언어형) : 1교시 <문제 3> 분석

1. 문제 분석

□[문제 3]

[문제 3]은 C국에서 만연한 모조품 구매 현상을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제시하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문제 1]에 등장한 두 입장 중 오직 하나를 선택하여 정당화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앞선 문제들과 달리 분류나 설명을 넘어, 수험생이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고 이를 일관되게 옹호하는 논증형 사고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세트형 논술의 종합 문항 역할을 한다. 특히 [문제 3]은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수험생이 개별 문항에서 다룬 개념과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는 단편적인 이해가 아닌, 제시문과 자료 간 연계와 적용 능력을 요구하는 고차적 사고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오직 하나의 입장을 선택’ 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단순 비교에 머무르지 않고 논리적 일관성과 주장 중심의 글쓰기를 유도한다. [문제 3]과 관련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목	성취 기준
사회·문화	[12사문02-04] 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탈 행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다.
통합사회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정치와 법	[12정법03-03] 정당,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언론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과 한계를 분석한다. [12정법05-01]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를 탐구한다.
생활과 윤리	[12생윤04-0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와 매체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은 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윤리와 사상	[12윤사03-05]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12윤사04-02] 국가의 개념과 존재 근거에 대한 주요 사상사들의 주장을 탐구하여 다양한 국가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화법과 작문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논술시험(언어형 2)

[2025. 11. 15.(토) 언어형 2교시]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위주
수험번호	성명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표지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논술시험 (언어형 2)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공익 실현의 방법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 1>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은 욕심에 사로잡혀곤 한다. 그리고 그 욕심이 군자가 되는 길을 가로막는다. 소인의 경우 어떤 일을 하는데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욕망에 관계된 것이라면 이 일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늘 집착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과 서로 친하게 지낼 때에도 자신의 사적인 입장에서 계산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내게 좋은 것은 이렇게 하고 또 내게 좋지 않은 것은 다르게 한다. 소인처럼 이기적이고 사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마음이 졸렬해지고 주위 사람들도 떠나가 삶이 힘들어진다. 여기에서 군자와 소인의 차이가 드러난다. 군자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의로움을 추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향한다.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낼 때에도 군자의 뜻과 생각은 크고 넓다. 소인처럼 마음의 병인 인욕(人欲)에 이끌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부여받은 도덕성이자 자연적인 이치인 천리(天理)를 따라 살아간다. 천리는 천지 만물에 터럭만큼이라도 떨어지거나 간격이 벌어지는 법이 없으며 한순간이라도 멈추는 일이 없다. 크게는 천지의 작용, 작게는 만물의 소멸과 성장, 한 사람의 마음의 운용, 넓게는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에 관통되어 있다. 그래서 천리를 따르는 군자는 늘 행동이 도리에 부합하고, 자연적인 도리를 따르기에 마음도 편안하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자녀의 부모를 향한 효는 과거나 지금이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공통의 도리이다.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도리에 맞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덕에 맞게 실행하는 삶으로, 이는 군자가 지향하는 삶이다. 이처럼 군자는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도덕성, 인간이 따라야 할 도리, 애초에 사(私)와 분리되지 않는 공(公)을 지향한다. 또한 인(仁)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치이다. 이것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으로 공평무사하다. 마치 봄이 되면 천지가 온화한 기운으로 온 생명의 싹을 틔워내듯이 만물이 제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인이다. 인간에게 인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인이 갖든 마음을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곧 타인과 내가 하나가 되며,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 공공의 이익이 실현되는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선 자기 자신에 비추어 보아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인을 발휘하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자신 안에 천지의 공평무사한 마음이 깃들어 있으므로 이러한 자신에 비추어 보아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 공과 사를 관통하며 이 둘의 조화 및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도덕적 근거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선 자신에게서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부터 그들이 원하는 삶, 선한 삶을 이룰 수 있게 해주면 그 영향력이 먼 데까지 확장되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하고 세상이 잘 다스러질 것이다. 자율적으로 인을 실현할 수 있으면 공익이 자연히 실현될 수 있다.

<제시문 2>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이기적·합리적 존재로서 누구나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본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인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까닭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처해 있는 이중적인 지위와 관련이 있다. 인간은 개인으로서의 지위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개인의 존재적 이중성은 오늘날 국가의 행정에 관한 논의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으로 발현된다. 사(私)의 영역은 개별적인 신체로서의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이며, 공(公)의 영역은 공동체가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개인은 살면서 여러 공동체에 속하게 되지만, 공적 영역을 규정 짓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국가이다. 단기적으로 사적 영역에서의 이익 추구가 공적인 이익의 추구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공적 이익의 실천은 일정한 강제력을 가진 행위자를 필요로 한다. 국가는 우월한 강제력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체로서 공적 영역의 가장 적합한 행위자이다. 그렇지만 공익의 실천이 오로지 국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현재 공익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이 과거에는 국가가 아닌 개인들의 주도로 실천되었는데, 도덕 및 종교가 공익을 위한 자발적 헌신을 이끌어내는 데 활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어떤 종교는 빈민의 구휼을 사람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인생의 가치로 규정하였는데, 국가

논술시험 (언어형 2)

복지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재해나 기아 상황 극복에 기여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국가가 공동체의 집단적 이익의 실현을 규범적으로 직접 도맡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공적 영역인가에 대한 질문이 발생한다. 많은 정치 문화에서 공과 사의 개념을 상정하고 그들을 서로 대비되는 영역으로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공의 영역이며 어디까지가 사의 영역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으며,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복지국가로 출현하였다. 보편적 인권 개념과 현대사회의 정교한 관료제에 힘입어 많은 나라에서 공익 추구의 주체가 국가로 규정되었고, 이전 시대에 온전히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던 실업, 출산, 육아, 가사노동, 건강 등의 현안들이 공적 실천의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합리적인 법과 제도,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은 현대 국가가 공익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공식적 제도가 가지는 투명성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며, 일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공적 기여를 회피하거나 전가할 수 없게 한다.

<제시문 3>

○○마을은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를 위한 자발적 협력관계에서 출발하여 생활공동체와 대안 가족공동체로까지 발전하게 된 사례이다. 어린이집 개원으로 마을 내 육아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조합의 주요 구성원인 맞벌이 부부들(여성과 남성 모두 포함)은 조합의 운영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나 직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였다. 이후 친목 행사, 상담, 부모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형성된 친밀한 관계는 나눔 장터나 취미 모임 같은 다양한 생활공동체의 모임으로, 더 나아가 가족 내부의 사적인 내용들까지도 대화를 통해 공유하고 격려할 수 있는 대안 가족공동체로까지 발전하였다. ○○마을은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대안학교 설립, 지역방송 개설, 저소득층 노인 및 아동 돌봄 사업 등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한 자율적·자치적 공익사업으로까지 확장하여 나아갔다. 친밀하지 않은 낯선 사람들과는 다양하고 비판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에는 친밀성이 공적 영역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가족적 친밀성이 공적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여러 실제 사례들로부터 증명되고 있다. 친밀한 관계는 사회적으로 자신의 인격적 개체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혈연, 지연, 학연을 바탕으로 형성되던 전통적 의미에서의 인간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친밀성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제도적 규범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체계나 내적 기준에 준거하여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가족의 가부장적 관계 질서에 갇힌 억압의 공간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들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민주적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적 관계의 정서적 만족, 배려, 돌봄, 공통적인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형성된 친밀성이 민주주의와 공익 실현을 위한 장으로까지 확대되는 사례들을 살펴볼 때, 친밀성은 공공복리, 공공안전 등 공익을 실현하는 핵심적 기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친밀성 영역에서 개인 간의 친밀한 관계가 개인 상호 간의 인격적 신뢰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친밀성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개개인의 삶에 관한 문제는 자신의 실존적 경험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사회변혁운동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이처럼 근래에 논의되고 있는 친밀성은 자신의 인격적 개체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공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될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친밀성은 공(公)과 사(私)를 관통하여 공과 사의 조화 및 통합에 기여한다. ○○마을 사례에서 보듯이 오늘날 사회에서 친밀성은 가족이라는 제도의 울타리에 갇힌 고정된 성격의 것이 아닌 다양한 관계의 형식을 통해서도 추구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친밀성은 가족의 틀 안에 제한되지 않고 친구나 연인, 지역자치회, 육아 공동체, 동호회 등과 같이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수한 관계로 확장될 수 있다. ○○마을 사례에서와 같이 친밀성 영역에서의 열린 지향성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는 민주주의와 공익 실현을 위한 가능성을 담고 있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 사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친밀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와 자발적으로 형성된 커뮤니티 속에서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각자의 고통을 드러내고, 이것이 사회 문제로 가시화되면서 공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등장하게 된다. 친밀성을 통해 우리는 사적인 문제를 서로 공감하고 개인 스스로 성찰하고 나아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을 추동하는 동력이 되며 공익의 실현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논술시험 (언어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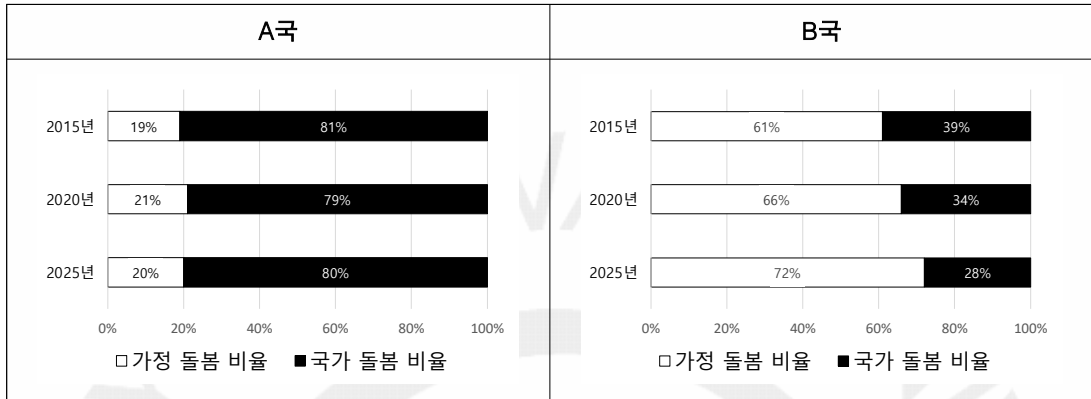
<제시문 4>

그리스어로 공(公)과 사(私)에 대응하는 용어는 코이논(koinon)과 이디온(idion)이다. 코이논은 공유, 공동성을 의미한다. 코이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폴리스(polis)로 규모는 작지만 주권을 가지고 있던 도시국가들이었다. 이와 달리 이디온은 구별, 분리를 의미하며, 공적 공간 밖에서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가정, 취미, 기호 등을 포함했다. 고대 그리스의 많은 폴리스는 공익과 구분된 사적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였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개인의 기여 역시 강조하였는데, 자신들의 복리가 공동체의 복리에 의존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쟁과 자연재해는 사적 영역의 영속이 오로지 폴리스의 성공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폴리스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그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헌신하는 정치적 존재였다. 그러나 사적 공간에서의 행복과 공익을 위한 헌신 사이에는 늘 갈등이 존재했다. 그러므로 고대 그리스의 모든 폴리스는 공익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나 헌신을 끌어내기 위한 나름의 제도를 두고 있었다. 폴리스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적 영역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았던 스파르타에서와 달리, 아테네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시민의 폴리스에 대한 기여를 끌어냈다. 아테네인들은 정치적 참여를 중요한 도덕적 가치로 여겼으며, 공론의 장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를 책임이 있었다. 페리클레스는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용사들을 추모하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웃 나라의 어떤 법·제도도 부러울 것이 없는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수가 아닌 다수에 의해 다스려지기 때문에 이를 또한 민주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분규와 관련해서는 법률상 모두에게 평등이 주어지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유롭게 지냅니다. 한 사람 안에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나라일을 배려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서, 모든 현안은 토론을 통해 결정합니다. 토론이 행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미리 토론을 통해 행동의 방향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야말로 장애물이라고 여깁니다.” 공론을 통한 의사결정은 시민에게 폴리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시민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아테네인들은 전쟁과 세금을 비롯한 여러 문제에서 공론적 결정에 따라야 했지만, 그 밖의 사항에서는 개인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었다. 페리클레스의 말처럼 그들은 “한 사람 안에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나라일을 배려하는 마음이 함께”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배려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인 희생이 아닌 정치적 참여와 공적인 결정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났다.

논술시험 (언어형 2)

[문제 2] A와 B 두 국가에 관한 <자료 1> ~ <자료 4>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A국과 B국의 사례가 각각 [문제 1]에 제시된 두 가지 입장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설명하시오.
 (모든 자료에서 제시된 내용 외에 두 국가의 차이는 없다고 가정함) (40점)

<자료 1-1> 노인 돌봄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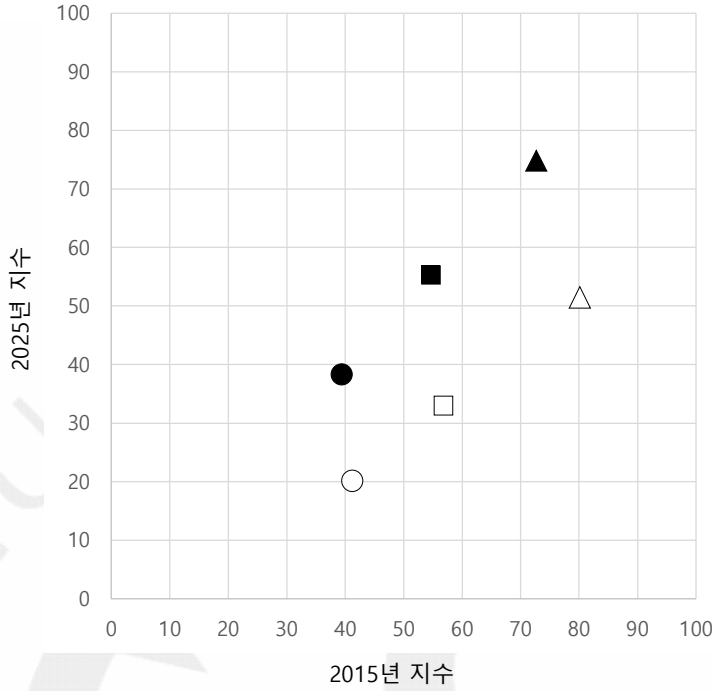
<자료 1-2> 노인 관련 주요 질환·사망률 비교

A국			노인 관련 주요 질환·사망률	B국		
2015년	2020년	2025년		2015년	2020년	2025년
14	15	14	중증 치매 발병률(%) ¹⁾	10	9	7
13	13	12	알코올 중독자 비율(%) ²⁾	8	6	4
30	31	29	우울증 비율(%) ³⁾	22	18	15
15	16	15	고독사 비율(%) ⁴⁾	11	8	6
28	27	28	암 사망률(%) ⁵⁾	27	28	28

- 주1) 65세 이상 전체 치매 환자 중 중증 치매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최소 0% ~ 최대 100%)
- 주2)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알코올 중독을 경험한 노인의 비율(최소 0% ~ 최대 100%)
- 주3)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우울증을 경험한 노인의 비율(최소 0% ~ 최대 100%)
- 주4)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율(최소 0% ~ 최대 100%)
- 주5)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중 암에 의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최소 0% ~ 최대 100%)

논술시험 (언어형 2)

<자료 2>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현황(2015년, 2025년)⁶⁾



	금품 수수 지수 ⁷⁾	알선 청탁 지수 ⁸⁾	공용물의 사적 사용 지수 ⁹⁾
A국	○	□	△
B국	●	■	▲

주6) A국은 2020년에 공직자 비리 감사제도를 도입함. 제시된 정보 외에 A국, B국의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함
 주7)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지수화한 값(최소 0점 ~ 최대 100점)
 주8) 제3자를 위해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특정 직무를 수행하도록 부탁하는 행위를 지수화한 값(최소 0점 ~ 최대 100점)
 주9)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공기관 소유의 물품, 차량, 건물 등 공용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지수화한 값(최소 0점 ~ 최대 100점)

<자료 3>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¹⁰⁾

설문 문항 ¹¹⁾	A국	B국
가) 나는 자율적·자치적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	4.0
나) 나는 예상치 못한 사회 재난 극복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3.0	4.5
다) 나는 국가가 포괄적 복지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5	3.0
라) 나는 가족과 친구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안녕에 관심이 높다.	4.0	4.5
마) 나는 우리나라의 행정 절차가 투명하게 집행된다고 생각한다.	4.5	3.5

주10) A국과 B국에서 무작위로 표집된 각각 500명의 성인남녀가 설문조사에 응답함
 주11) 각 설문 문항은 5점 만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국가별 점수는 설문 참여자의 응답 점수를 평균한 값임 (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

논술시험 (언어형 2)

<자료 4> 주요 사회지표 조사 결과

지표	A국	B국
가) 자원봉사 시간 ¹²⁾	4	9
나) 사회기반시설 안전도 지수 ¹³⁾	87	65
다) 행정 효율성 지수 ¹⁴⁾	88	71
라) 사회적 자본 지수 ¹⁵⁾	74	91
마) 공동체의식 수준 지수 ¹⁶⁾	78	88

주12) 국민 1인당 연간 자원봉사 시간 평균

주13) 건축물, 교량, 터널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도 평가 결과 지수(최소 0점 ~ 최대 100점)

주14) 한 국가에서 공공 서비스의 질, 공무원의 자질,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질,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지수(최소 0점 ~ 최대 100점)

주15) 한 국가에서 사회적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측정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과 소통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최소 0점 ~ 최대 100점)

주16) 한 국가에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소속감을 측정한 지수(최소 0점 ~ 최대 100점)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은 복잡하지 않으며, 모조품 구매라는 사례는 수험생에게 비교적 친숙한 사회 현상으로 인식될 수 있어 문제 이해 자체에는 큰 부담이 없다. 다만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반대 입장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야 하므로, 논리 전개 완성도에 따라 변별력이 확보되는 문항이라고 판단된다.

2. 출제의도, 채점기준, 예시답안 분석

□[문제 3]

[문제 3]의 출제 의도는 사회적 병리 현상의 원인을 개인 책임의 관점과 사회 구조적 관점 중 하나로 선택하여 설명하고, 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 합리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다. 이는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문제 해결력과 의사 결정 능력, 그리고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논증적 글쓰기 역량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다.

채점 기준은 입장 선택의 명확성, 제시문과 자료의 적절한 활용 여부, 그리고 논리적 정당화의 완결성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두 입장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했는지 여부를 핵심 평가 요소로 삼고 있어, 답안의 구조적 일관성과 논증의 방향성이 채점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기준은 답안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시 답안은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과 사회 구조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 각각에 대해 하나의 완결된 논증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과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택한 입장의 근거로 기능하도록 재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항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다. 또한 반대 입장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을 강화하는 방식이 드러나 있어, 수험생이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답안의 방향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한다.

논술시험(언어형) : 1교시 종합의견

언어형 1교시 논술 문항은 사회적 병리 현상의 원인을 개인 책임의 관점과 사회 구조 책임 관점이라는 두 가지 대립적 시각으로 구분하고, 이를 분류·해석·적용하는 사고 과정을 단계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개인과 사회 구조의 관계, 시민의 책임과 역할,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관점 이해라는 핵심 성취기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문제 1]은 사회 병리현상의 원인을 둘러싼 상반된 두 입장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분류하고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제시문들은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과 개인의 지적·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명확히 대비되며, 각 제시문 간 논지 또한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은 제시문의 핵심 주장과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통된 기준에 따라 정보를 조직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문항은 세트형 문항의 출발점으로서 이후 문항의 사고 틀을 제공하며, 교육과정 타당도가 높은 문제로 평가된다.

[문제 2]는 [문제 1]에서 제시된 두 입장을 구체적인 자료 해석 상황에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다. 국가별 통계 자료와 지리적 도표를 활용하여 개인적 요인과 사회 구조적 요인이 사회 병리 현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수험생의 자료 해석 능력과 논리적 연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 자료의 제시 방식과 난이도는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문제 3]은 앞선 두 문항에서 다룬 개념과 자료를 종합하여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이를 정당화하도록 요구하는 종합 논증형 문항이다. 수험생은 개인 책임 또는 사회 구조적 책임 중 하나의 관점을 선택한 뒤, 제시문과 자료를 활용해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전개해야 한다. 이는 단편적 이해를 넘어 사회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과 논증적 글쓰기 역량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문제에서 제시된 사례 또한 현실성과 교육적 적절성을 갖추고 있어 수험생이 자신의 경험과 학습 내용을 연결해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종합적으로 볼 때, 모든 문항은 고등학교 사회과·도덕과·국어과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출제되었으며, 문항 간 연계 구조가 명확하고 단계적 사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평가의 타당도가 높다. 또한 제시문 및 자료의 분량과 난이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되어 있으며,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 역시 출제 의도에 부합하게 제시되어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술 문항은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논술 평가로서 교육과정 적합성, 평가 안정성, 변별력을 고루 갖춘 문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논술시험(언어형) : 2교시 <문제 1> 분석

1. 제시문 분석

□ <제시문 1>

유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간 내면의 도덕성인 ‘인(仁)’ 과 우주의 보편적 이치인 ‘천리’ 가 사사로운 욕심인 ‘인욕’ 을 이겨낼 때 공익이 자연스럽게 실현됨을 역설한다. 사적 관계(효도 등)에서 시작된 덕성이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공사 관통’ 의 논리를 제시하며, 개인의 도덕적 각성과 실천이 곧 공익 실현의 근간이 된다는 동양적 공동체주의 관점을 담고 있다. 이는 <윤리와 사상>의 ‘한국 및 동양 윤리사상([12윤사 01-02])’ 에서 다루는 유교의 수양론 및 사회사상과 일치한다. 또한 <통합사회>의 ‘도덕적 실천’ 단원([10통사01-03])에서 강조하는 개인의 성찰과 공익의 관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 제시문의 논리 구조는 고교 윤리와 사상 수업에서 성리학의 핵심 논증을 다루는 과정과 동일하여, 해당 교과를 충실히 이수한 학생에게는 매우 익숙한 수준이다. ‘인(仁)’ 과 ‘역지사지’ 라는 개념은 고교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소재이며, 이를 공익 실현의 주체적 근거로 연결한 점이 돋보인다. 특히 천리와 인욕의 대비를 통해 공익과 사익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학생들의 추상적 사고력을 자극하는 동시에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 <제시문 2>

인간을 이기적·합리적 존재로 규정하고, 사적 이익과 공공 이익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라는 우월한 강제력을 가진 행위자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현대 사회의 전문적 관료제와 투명한 법·제도가 공익 실현의 핵심 기제임을 강조하며, 국가는 법, 제도, 전문적 행정 등 강제력을 통해 공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주체로 상정된다.

<정치와 법>의 ‘정치의 기능과 법의 이념([12정법01-01])’ 및 <생활과 윤리>의 ‘국가의 권위와 의무([12생윤03-03])’ 성취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한다. 또한 <통합사회>의 ‘사회제도와 질서 유지’ 단원에서 학습하는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현대 복지국가의 등장 배경과 역할을 설명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평소에 배우는 사회 현안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현대 민주 국가의 작동 원리를 ‘공·사 분리’ 라는 관점에서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어서 사회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높은 변별력을 제공하면서도 기본 지문으로 적절하다. 교육적 연계성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시문이다.

□ <제시문 3>

‘○○마을’ 의 공동육아 사례를 통해, 사적 영역의 ‘친밀성’ 이 어떻게 공적 영역인 복지와 민주주의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준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소통과 공감은 사회 문제를 가시화하고 해결하는 동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과 사의 경계를 허문다. 사적인 신뢰와 연대가 공동체 문제 해결,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사회·문화>의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12사문02-02])’ 및 <정치와 법>의 ‘시민 참여의 의의([12정법03-01])’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또한 <생활과 윤리>의 ‘공동체와 시민 참여’ 단원에서 강조하는 시민의 자율적 역할과 정확히 부합한다. 이론적인 <제시문 1>과 실제 사례인 <제시문 3>을 같은 입장으로 묶어 함으로써, 학생들의 귀납적·연역적 추론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생활공동체 사례를 통해 추상적인 ‘공사 통합’의 개념을 구체화한 점은 이론과 실재를 연결하는 통합적 사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매우 탁월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제시문 4>

고대 아테네의 사례를 통해, 사적 영역을 존중하되 공적 영역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복종 의무를 강조한다. 공론의 장에서의 토론은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인 동시에 공적 결정을 따르게 하는 체계로서 작용하며, 이는 자발적 희생보다는 제도적 기여에 가깝다. 여기서 공익 실현은 개인의 자발적 희생이 아닌, 공적인 결정에 대한 복종과 정치적 참여를 통해 제도적으로 이루어진다. <세계사>의 ‘고대 지중해 세계’와 <윤리와 사상>의 ‘고대 그리스 사상([12윤사03-01])’을 근거로 한다. 또한 <정치와 법>의 ‘시민 참여와 정치 과정’ 단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 등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사료를 활용하여 수험생의 가독성을 높였으며, <제시문 2>와의 미세한 차이(국가 주도 vs 시민 참여 제도)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심화 사고를 유도한다. 이는 학교 수행평가에서 학생들이 사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과 그 맥을 같이 하여 학생들에게 매우 친숙하게 다가온다.

2. 문제 분석

□[문제 1]

[문제 1]은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 하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의 정보 분류 능력과 핵심 논지 파악 및 요약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방대한 지문 속에서 핵심 정보를 추출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으로, 대학에서의 학술적 탐구에 필수적인 비판적 읽기 능력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문제 1]과 관련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목	성취 기준
독서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통합사회	[10통사01-0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정치와 법	[12정법01-01] 정치의 기능과 법의 이념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분석한다.

문학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제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생활과 윤리	[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윤리와 사상	[12윤사01-02] 우리의 도덕적 삶에서 한국 및 동·서양의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하는 역할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들을 탐구하여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학의 적정성 면에서 각 제시문의 난이도는 수능 국어 영역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교육의 도움 없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독해 가능하다. 제시문에 사용된 용어들은 각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개념들로 구성되었으며, 제시문의 수와 분량이 적절하여 난해한 개념 및 용어가 없다.

평가 기준의 객관성 면에서 대학교 측에서는 단순히 분류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통합 요약하였는지를 위계화하여 채점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의 ‘가치 있는 정보를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12화작03-01])’ 역량을 평가하기에 매우 적합한 방식이다.

또한 국어, 도덕, 사회, 역사 교과를 아우르는 통합 교과적 지문 구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융합적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과도 일치하며, 고교 교육 현장에서의 통합 수업 활성화에도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에서 언급된 내용 및 요구하는 능력과 수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며,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3. 출제의도, 채점기준, 예시답안 분석

□[문제 1]

출제 의도는 두 가지 입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장들로부터 각 입장의 핵심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각 입장의 논지를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문학의 요구사항과 정확히 일치하여 타당성이 매우 높다. 각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험생들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 각각의 논지를 요약할 수 있는 사실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채점 기준은 단순히 제시문 내용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의 미묘한 차이점(<제시문 1>과 <제시문 3>, <제시문 2>와 <제시문 4>의 차이)까지 고려하며 통합적으로 요약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채점 방식은 ‘공사 통합’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단일한 논리가 아님을 간파하도록 유도한다. 즉, 학생이 개인의 내면적 도덕성에 기반한 접근(<제시문 1>)과 관계적 친밀성에 기반한 사회적 접근(<제시문 3>)의 철학적 차이를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고교 <윤리와 사상> 심화 탐구 활동에서 요구하는 사고 수준과 정확히 일치한다.

제시된 예시 답안은 ‘공과 사의 조화·통합’ (<제시문 1>, <제시문 3>)과 ‘공과 사의 분리’ (<제시문 2>, <제시문 4>)라는 두 입장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의 핵심 내용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서술한 모범적인 답안이다. 이는 앞서 언급된 채점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채점 기준에 따라 예시 답안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문제 1]은 고등학교 국어, 사회(통합사회, 정치와 법, 사회·문화), 도덕(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교과 내용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논리적 분석력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공교육의 성취 수준을 정확히 반영한 적절한 난이도의 우수 문항이라 평가할 수 있다.

논술시험(언어형) : 2교시 <문제 2> 분석

1. 자료 분석

□ <자료 1>

<자료 1-1>은 A국이 국가 주도 돌봄(약 80%)에 의존하는 반면, B국은 가정 돌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72%)하고 있음을 수치로 보여준다. <자료 1-2>에서는 생물학적 요인인 암 사망률은 양국이 비슷하나, 고독사,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 ‘사회적 관계’와 밀접한 지표에서 B국이 월등히 양호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사적 영역인 ‘가정’과 공적 영역인 ‘복지’가 통합될 때(공·사 통합)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B국 사례를 통해 자율적 공동체의 가치를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이 자료는 <사회·문화>의 ‘사회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양적 연구 방법’ ([12사문01-02])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도표를 정확히 판독하고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노인 소외와 고독사 문제를 다루는 측면에서 <생활과 윤리>의 ‘가족 해체 현상 탐구 및 극복 방안’ ([12생윤02-03]) 및 ‘삶과 죽음에 대한 윤리적 문제 인식’ ([12생윤02-01]) 단원의 핵심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 <자료 2>

2015년과 2025년의 금품 수수, 알선 청탁, 공용물 사적 사용 지수를 비교한 산점도 자료이다. A국은 2020년 ‘공직자 비리 감사제도’라는 강력한 국가적 제도를 도입한 결과, 2025년에 이르러 모든 부패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공익 실현을 위해 국가의 강제력과 법적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공·사 분리적 관점’ (<제시문 2>)을 지지하는 강력한 실증적 데이터로 활용된다.

□ <자료 3>

국민의 주관적 인식을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양국의 가치 지향성을 비교한다. A국은 ‘국가의 포괄적 복지제도(4.5)’와 ‘행정 절차의 투명성(4.5)’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제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익 실현에 긍정적이다. 반면 B국은 ‘자율적 공동체 활동(4.0)’, ‘재난 극복 자발적 참여(4.5)’, ‘주변 사람의 안녕에 대한 관심(4.5)’ 등 개인의 자율성과 정서적 유대를 통한 공익 실현을 더욱 지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 <자료 4>

자원봉사 시간, 안전도 지수, 행정 효율성, 사회적 자본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사회의 질을 평가한다. A국은 ‘기반시설 안전도(87)’와 ‘행정 효율성(88)’이 높아 국가 시스템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반면, B국은 ‘자원봉사 시간(9시간)’, ‘사회적 자본(91)’, ‘공동체의식(88)’이 높아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과 신뢰가 공익의 핵심 동력임을 보여준다.

2. 문제 분석

□[문제 2]

[문제 2]는 주어진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1]에 제시된 두 입장을 자료에 적용시켜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 2]와 관련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목	성취 기준
사회·문화	[12사문01-02]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 및 차이점을 비교한다.
독서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화법과 작문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에서 언급된 내용 및 요구하는 능력과 수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다.

3. 출제의도, 채점기준, 예시답안 분석

□[문제 2]

출제 의도는 ‘제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지지하는 논리를 제시’ 하게 하는 것으로, 문항의 구성과 요구사항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채점 기준은 각 자료의 내용이 해당 입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평가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문제 2]의 모든 자료는 고등학교 사회, 도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성하고 있다. 각 자료는 독립적인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문제 1]의 이론적 논의를 현실화하는 증거로서 완벽한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라 볼 수 있다.

논술시험(언어형) : 2교시 <문제 3> 분석

1. 문제 분석

□[문제 3]

[문제 3]은 전체 문항의 최종 단계로서, 앞선 문제들의 분석 결과를 총망라하여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정당화하는 종합적 논술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일회용 제품 세금 부과’ 라는 현실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책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추상적 개념과 분석 능력을 실제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적용해 보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세금 부과 정책 찬성 입장 (공·사 분리 및 국가 제도 중심)

인간의 존재적 이중성(개인 vs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해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강제력을 가진 국가가 세금이라는 부정적 유인을 통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제시문 2>의 국가 행정론과 <제시문 4>의 공적 제도에 대한 복종 의무를 이론적 토대로 삼는다.

(2) 세금 부과 정책 반대 입장 (공·사 조화 및 자율적 공동체 중심)

인간은 보편적 도덕성(천리, 인)을 공유하고 있으며, 자발적 커뮤니티 내의 친밀성을 통해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제시문 1>의 자기 수양론과 <제시문 3>의 마을 공동체 사례를 근거로 한다.

이 문항은 찬성 또는 반대 중 한 가지 입장을 명확히 선택하고, 그 근거를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과목	성취 기준
통합사회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생활과 윤리	[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한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화법과 작문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문제 3]은 문제 간의 수직적·수평적 연계성이 탁월하다. [문제 1]에서 개념을 분류하고, [문제 2]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후, [문제 3]에서 이를 총동원하여 자기 주장을 펴게 하는 방식은 고등학교 국어과의 ‘주제 통합적 읽기 및 쓰기’ ([12독서01-02]) 과정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다. 또한 과정 중심 평가로서의 실효성이 돋보인다. 단순히 찬반의 결과가 아니라, [문제 1, 2]의 요소들을 얼마나 누락 없이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결했느냐를 채점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사교육에 의한 단기 속성 학습보다 학교 수업을 통한 꾸준한 논리 훈련이 빛을 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 출제의도, 채점기준, 예시답안 분석

□[문제 3]

출제 의도는 자신의 선택을 설득력 있게 정당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으로, 제시문과 자료를 모두 활용하라는 제약 조건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다.

채점 기준은 찬반 입장 선택 자체보다는, 그 선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의 질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제 3]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최종 도달점이라 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특정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논리의 정합성만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입시의 객관성을 확보했으며, 제시문과 자료를 전부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은 수험생이 전 과정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를 판단하는 훌륭한 척도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 문항은 많은 지식과 데이터를 하나의 논리적 관점으로 꿰어 설득력 있는 견해를 만드는 과정과 같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인문·사회적 소양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당당히 표현하는 법을 연습하게 하는 우수한 문항이다.

논술시험(언어형) : 2교시 종합의견

[문제 1]의 <제시문 1> ~ <제시문 4> 및 [문제 2]의 <자료 1> ~ <자료 4>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충분히 학습 가능한 내용이다. 제시문의 수와 분량이 적절하며, 난해한 개념 및 용어가 없어서 국어과, 사회과, 도덕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학습하고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자료를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언어형 2교시 논술 문항은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수험생의 고등사고 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매우 우수한 문항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제시문, 자료, 문항은 고등학교 각 교과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내실있게 반영하고 있으며, 내용의 수준과 난이도 역시 공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의 경우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논술 문항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정확히 목표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의 탐구 활동 및 서·논술형 평가의 방향과 일치하며, 학생들이 교과 지식을 통합하여 사회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본 논술 문항은 수험생에게는 자신의 학업 역량을 깊이 있게 보여줄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는 공교육 내실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1. 문항카드 1 - 인문계열 1차 1번

1.1. 일반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일반)전형	
계열(과목)/문항번호	인문계열 1차(인문학부, 영문학부, 사회과학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 1번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문학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 위험 부채 · 사회 구조적 빈곤 · 공간 불평등 · 사회 계층화 · 사회 갈등 · 사회 통합
예상소요 시간	40분	/ 100 분

1.2. 문항 및 제시문(문항)

제시문 [가]의 ‘나’가 당면한 문제를 [나]~[라]를 참고하여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를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 답안 작성 시 인물 ‘나’와 제시문 [나]의 표기를 구별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나’는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운다. 만두 집을 하는 엄마는 ‘나’에게 피아노를 사 주고, 그 피아노는 살림집이자 가게로 쓰이는 공간에 놓인다. ‘나’는 그 공간에서 이따금 피아노를 치고, 엄마는 그 모습을 좋아한다. ‘나’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가끔 악보를 사다가 유행가를 연주하지만 고등학교에 가서는 더 이상 피아노를 치지 않는다. 고 3 겨울 방학에 ‘나’의 집은 아빠가 선 빗보증 때문에 망하고, ‘나’는 그즈음 서울권 대학의 컴퓨터학과에 합격한다. ‘나’는 피아노와 함께 서울에 있는 언니의 반지하방에 도착하고, 그 모습을 못마땅해하는 집주인에게 피아노는 절대 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 전문 대학 치기공과를 다니다가 휴학 중인 언니는 취업이 잘된다는 말에 서둘러 원서를 쓴 것이 후회된다며 영문과에 편입하여 여학연수도 가고 취직도 하고 싶다고 한다. 언니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일하며 새벽에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는 반지하에서 디근자가 잘 먹지 않는 컴퓨터로 학원 교재나 시험지를 타이핑하는 일을 밤늦게까지 하며 등록금을 모은다.

방 안은 눅눅했다. 자판을 치다 주위를 둘러보면, 습기 때문에 자글자글 운 공기가 미역처럼 나풀대며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벽지 위론 하나둘 곰팡이 꽃이 피었다. 피아노 뒤에 벽은 상태가 더 심했다. 건반 하나라도 누르면 꼭 그 음의 파동만큼 날아올라, 곳곳에 포자를 흩날릴 것 같은 모양이었다. 나는 피아노가 썩을까 봐 걱정이었다. 몇 번 마른걸레로 닦아 봤지만 소용없었다. 우선 달력 몇 장을 찢어 피아노 뒷면에 덧대 놓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곧 피아노 건반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시골에서부터 이고 온 것인데, 이대로 망가지면 억울할 것 같았다. 한날 마음을 먹고 피아노 의자 위에 앉았다. 그런 뒤 두 손으로 건반 뚜껑을 들어 올렸다. 손안에 익숙한 무게감이 전해져 왔다. 내가 알고 있는 무게감이었다. 곧 88개의 깨끗한 건반이 눈에 들어왔다. 악기는 악기답게 고요했다. 나는 건반 위에 손가락을 얹어 보았다. 손목에 힘을 푼 채 뭔가 부드럽게 감아쥐는 모양을 하고, 서늘

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전해졌다. 조금만 힘을 주면 원하는 소리가 날 터였다. 밖에선 공사음이 들려왔다. 며칠 전부터 주인집을 보수하는 소리였다. 문득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사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일단 그런 마음이 들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한 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소리는 금방 사라져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는 용기 내어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도-” 도는 방 안에 갇힌 나방처럼 긴 선을 그리며 오래오래 날아다녔다. 나는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가슴속 어떤 것이 얽게 출렁여 사그라지는 기분이었다. 도는 생각보다 오래 도-하고 울었다. 나는 한 음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느낌을 즐기려 눈을 감았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쿵쿵쿵쿵. 주먹으로 네 번이었다. 나는 얼른 피아노 뚜껑을 덮었다. 다시 쿵쿵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을 열어 보니 주인집 식구들이었다. 체육복을 입은 남자와 그의 아내,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사내아이는 아빠와, 계집아이는 엄마와 똑 닮아 있었다. 외식이라도 갔다 오는지 그들 모두 입에 이쑤시개를 물고 있었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학생, 혹시 좀 전에 피아노 쳤어?” 나는 천진하게 말했다. “아닌데요.” 주인 남자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물었다. “친 거 같은데……?” 나는 다시 아니라고 했다. 주인 남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내가 곰팡이 애길 꺼내자 “지하는 원래 그렇다.”라고 말한 뒤,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나]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16년 150%를 넘어섰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한 가구가 1년 동안 번 돈을 모두 빚을 갚는 데 써도 모자란다는 의미이다.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가계 경제가 부실해질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가계 부실 위험 지수(HDRI)가 100을 초과하는 부실 위험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3월 기준으로 126만 3,000가구에 이른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벌리는 건전한 부채보다 상환 능력을 초과하여 빚을 지는 위험 부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다] 빈곤은 개인적으로 생계 유지 곤란, 건강 손상과 정신적 황폐 및 소외 등을 초래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기대와 기회를 제한한다. 또 사회적으로 빈곤층이 증가하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 불안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찾는 시각에서는 빈곤이 게으름, 무절제, 성취 동기 부족 등 개인적 노력이나 능력 등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시각은 근로 빈곤층과 같이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빈곤을 만들어 내는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계급, 성, 인종 등에 의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특정 집단의 빈곤 탈출에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본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라] 사회 구성원은 직업, 학력, 성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범주화할 수 있다. 이렇게 범주화된 사회 구성원 간에 사회적 희소 가치가 차등 분배됨으로써 뚜렷하고 구조화된 위계가 나타나는 현상이 사회 계층화 현상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삶의 목표 설정이나 직업 선택, 대인 관계 등에 영향을 주며, 사회 구성원 간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하기도 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재구성)

[마] 희망 ○○ 통장은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지원금을 추가

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희망 ○○ 통장 I 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대상이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비례하여 근로 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며, 3년 후에 적립된 근로 소득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희망 ○○ 통장 II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다.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되어 3년 만기 후 수령이 가능하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재구성)

1.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전체 제시문(총 5개 중 5개)을 교과서에서 발췌함으로써, 교과과정 이외의 사전 지식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시문의 내용에만 근거해도 충분히 답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학』 교과서에서 수록된 바 있는 [가] 제시문에 [나]-[라]의 제시문들에 기술된 사회·문화적 현상들이 반영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이로써 문학의 본질과 수용 과정에 관한 이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작품에 형상화된 바가 현실과 무관한 것이 아닌,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게 하는 기제임을 이해하고, 이를 사회나 세계와의 관련 속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10국05-04], [12문학02-01], [12문학02-02], [12독서03-02]의 성취기준과도 연관된다.

본 문항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12경제05-02], [12경제05-04], [10통사06-03], [12사문04-02], [12사문04-03]에서 학습하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적용하여 개인이 겪는 문제가 사회·문화적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와 같은 문제는 개인의 노력 외에도 국가와 사회의 지원과 조화에 의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이 문항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학습한 문학과 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제시된 자료를 해석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그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1.4. 출제 근거

1.4.1.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 국어		
	과목명 :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제시문 [가]
	과목명 :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가]-[마]	

과목명 :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2-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제시문 [가]
성취기준 2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제시문 [가]

2. 교과명: 사회

과목명 :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제시문 [다]-[마]

과목명 : 경제		관련
성취기준 1	[12경제05-02]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인식하고, 개인 자산과 부채의 합리적인 관리 방법을 파악한다.	제시문 [나]
성취기준 2	[12경제05-04] 개인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건전한 금융 생활을 위한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자신의 재무 계획을 설계한다.	제시문 [나]

과목명 :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12사문04-02]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유형과 특징을 분석한다.	제시문 [다]-[마]
성취기준 2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다]-[마]

1.4.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교과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여부
문학	김창원 외	동아출판	2023	256-257	제시문 [가]	×
경제	허수미 외	지학사	2021	181	제시문 [나]	×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3	151	제시문 [다]	×
사회·문화	서범석 외	지학사	2021	134-135	제시문 [라]	○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23	146	제시문 [마]	○

교과서 외						
자료(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여부
없음						

1.5. 문항 해설

1.5.1. 위원회 자체 평가 의견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적 사항은 모두 다섯이다.

1) 제시문 [가]의 문학적 형상화를 사회 문화적 상황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 [나]-[라]에서 설명하는 사항들과 대응되는 [가]의 문학적 형상화를 설명한다.

2) 제시문 [나]-[라]에서 추출한 바를 근거로 [가]의 문제적 상황을 파악:

[가]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청년의 궁핍한 삶이고, 이는 ‘나’의 아버지의 부채에 기인한다. 따라서 [나]는 문제 상황의 원인이 된다. 이때 [나]에서 건전한 부채와 위험 부채를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상한 능력을 초과하여 빚을 지는 것을 위험 부채로 규정하고 있음에, [가]에서 ‘나’의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원인은 ‘아버지의 위험 부채’라고 할 수 있다. [다]에서는 빈곤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라]에서는 사회 계층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에 [가]의 아버지의 빚보증이 ‘나’의 빈곤과 사회 계층화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3) 제시문 [다]-[라]를 통해 빈곤과 사회 계층화가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끼침을 파악:

[다]에는 빈곤이 개인과 사회 각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하고 있는 바, [가]에서 빈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인 ‘생계 유지 곤란’, ‘건강 손상’, ‘정신적 황폐화’의 구체적 형상화를 포착할 수 있다. 또한 빈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인 ‘사회적 부담 증가’, ‘사회 불안과 갈등’에 해당하는 [가]의 구체적 형상화를 대응할 수 있다.

[라]에서는 사회적 계층화를 구조화된 위계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에서 사회적 계층화가 구조화된 위계로 형상화된 바, ‘반지하방과 주인집’ 등으로 포착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계층화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가]에서 ‘인물’ 행위의 형상화 및 ‘나’와 ‘주인집’ 간의 대립 등으로 포착할 수 있다.

4) 제시문 [다]-[라]를 통해, 빈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파악:

[다]에서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찾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비롯된 바를 강조하는 바, [가]에서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빈곤의 형상화를 포착해 내야 한다. 예컨대, ‘가난의 대물림’ 및 ‘근로 빈곤층’, ‘공간 불평등’의 형상화를 짚어낼 수 있다.

또한 [라]에서 사회적 계층화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을 서술한 바, [가]에서 사회적 계층화의 문학적 형상화를 ‘나와 집주인’, ‘반지하방과 주인집’ 등으로 포착하고, 대립 사이에 위치한 갈등 및 상대적 박탈감의 형상화를 짚어낼 수 있다. 예컨대, ‘나의 피아노 치기’, ‘주인집의 감시’, ‘타인의 풍요에 대한 질시’, ‘거짓말’, ‘열악한 환경의 외면’ 등이 있다.

5) 제시문 [마]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문제에 관한 해결 방향 논의:

[마]에서 개인의 뜻과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으로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설명한 바, 이를 활용하여 [가]의 문제는 정부, 사회, 개인의 노력이 복합될 때 해소될 수 있음을 서술할 수 있다. 이때, [마]에 서술된 제도가 지원 대상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설명된 바, [가]의 문제에 관한 해결 역시, 유형별·단계별 지원, 혹은 중장기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다.

1.5.2. 출제 검토 교사 의견

인문계열 1차 1번 문제는 문제 상황을 겪는 인물이 등장하는 서사 텍스트를 바탕으로, 구조적 빈곤, 가계 부채, 사회 계층화 등의 문제를 분석한 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도록 하고 있다. 문학 텍스트를 적절히 해석하여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 텍스트(설명하는 글)를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으로 독해한 뒤 이를 문학 텍스트와 연계하여 분석하도록 한 점에서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학 작품과 설명하는 글을 적절히 독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에 제시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 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다룬 설명하는 글을 읽고 이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을 논술하도록 문항을 설계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총 5개의 제시문 모두 교과서에서 발췌되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하였다. 제시문 모두 학생들이 교과서 밖의 지식이나 선행 지식 없이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며,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바 또한 명확히 드러난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도도한 생활(김애란)>의 일부로, 청년 세대의 궁핍한 삶을 그려낸 문학 작품이다. 작품에 제시된 인물의 아버지의 빚보증, 즉 가족 구성원의 위험 부채에 기인한 빈곤, 사회 계층화 문제와 연계되는 박탈감 등 현실 세계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작품에 형상화된 인물의 삶을 현실과 연계하여 감상하며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어 교과 『국어』 과목의 [10국05-04], 『문학』 과목의 [12문학02-01], [12문학02-02], 『독서』 과목의 [12독서03-02] 등의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특히 문학 작품을 단순히 작품으로만 감상하는 것을 넘어 현실과 연계하여 독해하며 현실의 문제를 포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소설의 일부를 발췌한 지문이므로 평소 학교 교육 활동에서 다양한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관련지어 독해한 경험이 있다면 작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가계 부채가 증가하면서 부실 위험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위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특히 상환 능력을 초과하여 빚을 지는 위험 부채와 건전한 부채를 구별하여 모든 부채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위험 부채가 가계 경제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제시문 [가]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과정에서 위험 부채와 건전한 부채를 구별하는 분석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제시문 [가]에서 아버지의 빚보증으로 인해 가세가 기우는 내용과 제시문 [나]에서 설명된 위험 부채의 내용을 관련지어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 교과 『경제』 과목의 [12경제05-02], [12경제05-04] 등의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위와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의 의미 등 주요 용어의 의미가 제시되어 있어 경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지 않은 학생도 제시문을 통해 주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빈곤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하며 삶에 대한 기대와 기회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제시문 [가]의 인물이 ‘곰팡이 꽃’이 피어나는 반지하에서 생활하는 모습 등 인물이 겪는 궁핍한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또한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찾는 시각과 빈곤을 만들어 내는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시각으로 빈곤에 대한 관점을 구분하여 설명하여 학생들이 빈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찾는 시각이 근로 빈곤층과 같이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제시문 [가]에서 언니가 학업과 일을 병행하느라 새벽에도 공부를 하고, ‘나’ 또한 밤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여전히 빈곤한 삶을 겪는 상황과 관련되어 여실히 드러난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 교과 『통합사회』 과목의 [10통사06-03], 『사회·문화』 과목의 [12사문04-02], [12사문04-03] 성취기준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과서에 수록된 글을 그대로 발췌한 것으로 빈곤에 대한 관점을 사전에 접하

지 못했던 학생들도 제시문을 통해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수록된 글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회 구성원 간에 사회적 희소가치가 차등 분배됨으로써 뚜렷하고 구조화된 위계가 나타나는 현상인 사회 계층화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계층화 현상이 사회 구성원의 삶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제시문 [가]와 연계하며 문제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언니가 취업이 잘된다는 말에 학과를 선택했다는 제시문 [가]의 내용은 제시문 [라]의 사회 계층화 현상이 개인의 삶의 목표 설정, 직업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나’에게는 피아노를 치지 못하게 하면서도 서슴없이 방문을 주먹으로 두들기는 주인집의 모습, 외식을 하고 온 주인집의 행색을 신경 쓰는 ‘나’의 모습은 사회 계층화 현상이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제시문 [라]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 교과 『통합사회』 과목의 [10통사06-03], 『사회·문화』 과목의 [12사문04-02], [12사문04-03] 성취기준 등과 연결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충분히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 계층화 현상의 정의, 특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도 제시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수록된 글을 재구성한 것으로,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생계·의료 수급 가구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저축을 하면 근로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 교과 『통합사회』 과목의 [10통사06-03], 『사회·문화』 과목의 [12사문04-02], [12사문04-03] 성취기준 등과 연결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부합하며, 기존에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던 학생들도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은 이러한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 제시문 [가]에 제시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정부, 사회, 개인의 노력이 통합될 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제시문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인문계열 1차 1번 문항은 모든 제시문이 교과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교과와 관련되고 학생들의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등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라는 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 추구하는 인간상, 적용 범위, 수준 등 모든 면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서강대학교 논술전형의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적합한 문항이다. 문제의 지시 사항이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문학 작품과 설명하는 글을 종합적으로 독해하며 현실 세계의 문제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찰할 수 있는 문항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1.5.3. 자문위원 평가 의견

다음은 자문위원들에게 인문계열 1차 1번 문제의 각 제시문과 문항에 대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평가하여 순서대로 1~5점을 부여하고, 문항 난이도에 대해 ‘매우 쉽다,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를 평가하여 순서대로 1~5점을 부여한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수치는 5점 만점으로 평균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영하였다. 인문계열 1차 1번 문제에 대한 자문위원 15명의 평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평가하였으며 평균 4.80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은 15인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를 하였으며 평균 4.80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인문계열 1차 1번 문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있어 별도의 선행학습이나 선행 지식 없이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범위

와 수준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별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4.87로 평가됐고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4.80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교육과정 범위’와 ‘교육과정 수준’과 관련하여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도록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10국05-05], [12문학02-02], [12문학02-04], [12문학03-04], [12문학04-01], [12독서02-02], [12생윤06-03]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나]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4.60으로 평가됐고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4.67로 평가되었다. 학생들이 ‘가계부실 위험 지수’ 등의 용어를 몰랐더라도 부연 설명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10통사05-04], [12독서02-01], [12독서02-05], [12독서03-02], [10통사06-03], [12경제01-03], [12경제03-02], [12경제04-03], [12경제05-02]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다]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4.87로 평가됐고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4.87로 평가되었다. 제시문의 핵심 내용인 빈곤의 개인적, 구조적 원인 구분은 『사회·문화』 과목의 핵심 성취기준이며, 전문적인 사회학 이론이나 확장적인 개념을 요구하지 않아 고등학교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제시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12독서02-01], [12화작03-04], [12사문01-01], [12사문04-01], [12사문04-02], [12사문04-03], [12경제05-02], [12생윤06-03]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라]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4.73으로 평가됐고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5.00으로 평가되었다. 제시문 [라]는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나, 사회 불평등 현상은 『통합사회』 과목에서도 다루는 내용이므로 『사회·문화』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10통사06-03], [12독서02-01], [12독서03-02], [12사문04-01], [12사문04-02], [12사문04-03]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마]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4.53으로 평가됐고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4.67로 평가되었다. 제시문 [마] 또한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나 『통합사회』 과목의 ‘정의로운 사회’ 관련 단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므로 교육과정 내 출제일 뿐만 아니라 선택과목에 의한 유불리도 줄일 수 있는 문항 설계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10국02-03], [10통사05-04], [10통사06-03], [12독서02-05], [12사문04-04]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문위원의 평가를 토대로 인문계열 1차 1번 문제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적정성’ 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측면에서도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난이도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는 평균 3.07이며 개별 제시문에 대한 난이도는 평균 2.67로 평가되어 전반적인 문제의 난이도와 개별 제시문의 난이도가 ‘보통 수준’이거나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시문 [가]~[마] 모두

교과서에서 발췌되거나 재구성된 내용이므로 개별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며, 여러 제시문 간의 의미를 비교하고 연결하여 하나의 논리적인 구조로 유기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항 설계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전문적인 배경지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문제 상황 분석 → 사회·경제적 구조 분석, → 제도를 통한 해결의 구조가 학생들이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논술 문항의 설계라는 의견 또한 있었다. 더불어 문학 작품을 제시문으로 활용하면서도 단순히 요약하거나 감상하도록 하지 않고, 다른 제시문에 제시된 개념을 적용하고 구조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문항 설계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볼 때, 인문계열 1차 1번 문제는 모두 교과서에서 발췌되었고 이미 기출문제를 통해 서강대학교의 논술고사에 대한 연습 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익숙한 유형에 해당되어 문제를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별도의 사교육이나 선행학습 요소 없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교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한 학생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면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있어 모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1.6. 채점 기준

<결과 등급>

1. 제시문 [가]에서 ‘나’와 ‘반지하방’에 부채, 빈곤, 사회 계층화의 현상이 집약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는가?
2. 제시문 [나]에서 건전 부채가 아닌 위험 부채는 가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파악하였는가?
3. 제시문 [다]에서 빈곤의 문제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빈곤이 사회 구조에서 기인한 바가 있음을 파악하였는가?
4. 제시문 [라]에서 구조화된 위계로서 사회 계층화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는가?
5. 제시문 [마]에서 빈곤 등의 사회 문제가 국가와 사회의 유형별·단계별 지원과 개인의 노력이 복합될 때 개선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는가?

<과정 등급>

1. 제시문 [나]는 ‘부채’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는 바, [가]의 빚보증을 ‘위험 부채’와 연결하였는가?
2. 제시문 [다]의 빈곤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가]에서 ‘개인의 건강 손상’, ‘사회의 불안과 갈등’을 표현하는 문학적 형상화로 짚어내었는가?
3. 제시문 [다]에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비롯된 ‘빈곤’을 설명하고 있는 바, [가]에 드러난 ‘가난의 대물림’, ‘근로 빈곤층’ 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는가?
4. 제시문 [라]를 통해 사회적 계층화가 개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가]의 ‘등장인물’의 구체적 상황으로부터 짚어내고, 사회적 계층화가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가]의 ‘갈등’, ‘상대적 박탈감’ 등의 문학적 형상화를 짚어내었는가?
5. 제시문 [마]는 빈곤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설명된 제도의 운영 방식을 통해 [가]의 문제가 해결될 방향을 추론하였는가?

1.7. 답안 사례

[가]에서 ‘나’의 곤란은 [나]에 서술된 가계 부채가 원인이 된다. ‘나’의 아빠가 선 빚보증이 상환할 수 없는 위험 부채가 되어 집이 망한 것이다. 이에 ‘나’는 서울의 허름한 ‘반지하방’에서 궁핍하게 지낼 수

밖에 없다. [다]에서 빈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한다고 하였듯, ‘나’는 곱팡이에 건강을 위협 받고, 변변찮은 일이라도 쉴 수 없다. 주인집 눈치가 보여 피아노를 치지 못하면서도, 행여 곱팡이에 썩을까 걱정이다. 그러나 [다]에서 말하듯 이러한 가난은 결코 ‘나’만의 탓이 아니다. 아버지의 빚보증은 ‘나’의 가난으로 대물림된 것이고, ‘나’와 언니는 언제나 임시직 노동에 전전할 수밖에 없기에,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이에 빈곤은 [라]에서 말하듯, 빈부의 수직적 위계 구조를 만들고 이것이 사회 계층화로 속행된다. 이는 우선 개인에 영향을 끼친다. 언니는 취업이 잘되는 전공을 서둘러 선택하였다가 후회하며, ‘나’는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며 등록금을 버는 모순적 상황에 있다. 사회 계층화는 사회 갈등을 부추기기도 한다. ‘나’는 주인집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억울해 피아노를 치는데, 이를 따지러 온 주인집 가족이 혹시 외식이라도 하고 온 것이 아닌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한편, 주인집은 자신들의 거주 공간은 보수하면서도 반지하방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 곧 ‘반지하방에서 움츠린 채 사는 나’와 ‘방문을 광광 두드리는 주인집’이 대립하는 장면은 사회 계층화 및 사회 갈등을 선명히 보여준다.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빈곤이 결국 사회 갈등의 심화로 이어지듯, 이 문제의 해소 또한 개인의 의지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마]에서 제시하는 사례와 같이 국가와 사회의 지원, 개인의 분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고, 다양한 양상에 대한 파악 및 유형별·단계별 지원과 같은 실질적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때 사회 계층화의 격화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 문항카드 2 - 인문계열 1차 2번

2.1. 일반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일반)전형	
계열(과목)/문항번호	인문계열 1차(인문학부, 영문학부, 사회과학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 2번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사회·문화
	세계사	
출제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 경제와 정치사회 간의 상관성 · 극단주의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타자화 · 미디어 발전과 가짜 뉴스 문제 · 매체 정보의 비판적 수용 ·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꺼운 공론장
예상소요 시간	60분	/ 100 분

2.2. 문항 및 제시문(문항)

제시문 [가], [나]가 보여주는 문제의 발생 원인과 양상을 [가~라]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 [바]를 참고하여 논술하시오.

[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여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했던 독일은 대공황이 발생하자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틀러가 지도하는 나치스가 극단적인 게르만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앞세워 세력을 확대하였다. 결국 나치스는 제1당이 되었고, 히틀러가 총통에 취임하였다. 이후 재무장에 나선 독일은 라인란트를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스가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가리켜 홀로코스트라고 한다.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 장관 괴벨스는 “유대인은 기생적 생명체이고 창조성 없는 타락한 악령이고 우리 인종의 의도적인 파괴자”라고 연설했다. 당시 독일의 나치당은 유럽 전역의 유대인, 집시 등을 수용소로 몰아 넣은 후 강제 노동을 시켰고, 2차 세계대전 중 600여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다.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재구성)

[나] 일본에서는 대공황 이후 수백 개의 기업이 도산하는 등 경기가 침체되었다. 일본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대외 침략에 나서 만주 사변을 일으켰고, 일본 내에서는 군국주의화가 촉진되었다. [...] 1923년 관동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도쿄가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했다. 이런 와중에 일본 내각과 군부는 1918년 쌀 폭동 당시와 같은 민란 움직임을 사전에 막기 위해 도쿄 시내와 인근 5개 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출동시켰다. 완전 무장한 상태의 군대와 경찰은 이 사태를 사회주의자와 조선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의 기회로 악용하였다. 고의적인 유언비어가 살포되고 자경단과 민중들조차 이 광란의 대학살에 참여한 나머지, 오스키 사카에를 비롯한 일부 노동조합 간부들과 약 6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무참히 희생되었고, 6천여 명이 검속되기에 이르렀다.

-『고등학교 독서』,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재구성)

[다] 사회적 소수자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차별을 받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사회적 소수자는 구성원들의 절대적인 수가 아닌 그 집단이 가진 사회적 권력과 영향력의 크기에 의해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고정 관념과 편견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로 나타나고,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적인 사회생활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재구성)

[라] 2017년 2월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가짜 뉴스를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가짜 뉴스의 역사는 무척이나 길다. 백제 무왕이 지은 「서동요」는 선화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그가 거짓 정보를 노래로 만든 가짜 뉴스였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났을 때 조선인에 관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유포된 일 또한 가짜 뉴스의 예이다. 하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가짜 뉴스 현상을 살펴보면 이전 사례들과는 확연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21세기형 가짜 뉴스’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매체에 ‘정식 기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감쪽같이 변장한 가짜 뉴스들은 사람들의 입맛에만 맞으면 쉽게 유통·확산된다. 대중이 뉴스를 접하는 경로가 신문·방송 같은 전통적 매체에서 인터넷 사이트, 누리 소통망(SNS) 등 디지털 매체 쪽으로 옮겨 가면서 벌어진 일이다. [...]

뉴스와 관련된 돈은 대부분 광고에서 발생한다. 모든 광고는 광고 중개 서비스를 통하는데, 광고주가 중개 업체에 돈을 지불하면, 중개 업체는 높은 조회 수가 나오는 사이트에 높은 금액의 광고를 배치하는 식이다. 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바쁜 현대인들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잘 팔리는 뉴스가 된다. 따라서 가짜 뉴스는 어떤 식으로든 눈에 띄어 ‘돈’이 되기 위해 자극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면서 소비자를 치밀하게 속인다. 설령 그 내용이 비윤리적이어도, 또 진실이 아니어도 개의치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인해 대체로 혐오나 선동과 같은 자극적인 요소를 담아 만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게 되며, 이는 결국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방해하고 극단주의를 초래하기까지 한다.

누리 소통망의 정보 처리 규칙도 혐오와 차별, 극단적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기여했다. 정보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선별적으로 전달된다. 이때 정보 처리 규칙은 이용자가 좋아하고 자주 보는 것 위주로 보여 주는 방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개인의 편견과 고정 관념 역시 강화된다는 점이다. 이른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필터 버블은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검색 업체나 누리 소통망 등이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특정 정보만 편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개인 맞춤형의 정보 처리 규칙은 정치·사회 분야의 뉴스와 만나 필터 버블 현상을 극대화한다. 진위 여부보다 자신의 호불호가 뉴스를 보고 믿는 기준으로 더 강력히 작용하다 보니 잘못된 사실이 진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재구성)

[마]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전달하기 위해 특정한 언어와 요소를 선택하는 행위에는 생산자 자신의 관점과 가치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즉 생산자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고 재구성한 내용을 수용자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매체 자료에도 생산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른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담겨 있다. [...]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는 것과 더불어 비판적 태도도 갖추어야 한다. 즉 자료에 담긴 관점과 가치가 공정한지, 생산자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제시된 정보나 자료는 신뢰할 만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특히 누구나 생산자가 되어 쉽게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의 매체 자료는 출처가 불분명하여 신뢰할 수 없는 정보나 왜곡된 정보, 자극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용할 때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재구성)

[바] 화법과 작문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자기가 쓰는 말과 글의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기의 말과 글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거나 사회적 담론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해당 상품을 구입한 사람의 말이나 사용 후기에 영향을 받는 것도 말과 글이 지닌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논쟁이 활발한 사회는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껍다. 의견 양극화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곳에서는 집단들 간에 공유되지 않는 정보가 많아지고 소수자들은 침묵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견을 잘 내지 않는 사회가 되기 쉽다. 그런 곳에서는 의견의 양 극단만 보이고 중간이 보이지 않는다. 중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극단의 결정이 횡행하게 된다. [...]

공론장은 이용자 참여에 의해 사적 영역과 연결되는 사회적 공간으로, 개인이 사회 문제들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해 주어 국가와 시민 사회를 매개하면서 여론을 형성한다. 이렇게 볼 때, 누리 소통망도 정보가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전파될 뿐만 아니라 정보가 역동적으로 형성되고 감성적 동조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공론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누리 소통망을 통한 공론장에서는 뉴스의 가치가 언론사에 의해 지정되지 않고, 이용자가 뉴스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재구성)

2.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고등학교 세계사, 독서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적 사례에 대한 제시문을 주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양상을 다른 지문들을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읽기 및 쓰기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과 『독서』의 [12독서02-01], [12독서03-02]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의 파악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회·문화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현재의 사회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적극적 모색을 하도록 설계한 본 문항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 절차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 것을 권고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사회문화의 [12사문01-04], 매체 정보에 대한 비판적·주체적 수용과 말과 글의 사회적 책임 인식 및 의사소통 윤리를 강조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과 『언어와 매체』 [12언매03-06], [12언매04-03], 『화법과 작문』 [12화작04-01], [12화작04-03]의 성취 기준과 정확히 부합한다.

2.4. 출제 근거

2.4.1.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 국어		
	과목명 :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제시문 [가]-[바]
	성취기준 2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가]-[바]
	성취기준 3	[12독서03-06]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수용과 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매체 자료를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라]-[바]
	과목명 :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기준 1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	제시문 [라]-[바]
	성취기준 2	[12언매03-02]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제시문 [라]-[바]
	성취기준 3	[12언매03-06]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	제시문 [라]-[바]
	성취기준 4	[12언매04-03] 현대 사회에서 언어와 매체 언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언어문화와 매체 문화의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 [라]-[바]
	과목명 :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 1	[12화작04-01] 화법과 작문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의사소통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 [마], [바]
	성취기준 2	[12화작04-03] 언어 공동체의 담화 및 작문 관습을 이해하고, 건전한 화법과 작문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제시문 [마], [바]
	2. 교과명 : 사회		
	과목명 :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12사문01-04] 바람직한 연구 태도와 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 절차를 실제 사례에 적용한다.	제시문 [가]-[바]
	성취기준 2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가]-[바]
	3. 교과명 : 역사		
	과목명 : 세계사		관련
	성취기준 1	[12세사05-04] 제 1, 2차 세계 대전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제시문 [가]-[나]

2.4.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교과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여부
세계사	이병인 외	비상	2023	183	제시문 [가], [나]	○
				188	제시문 [가]	
세계사	김덕수 외	천재교육	2023	198-199	제시문 [가]	○
사회문화	김영순 외	교학사	2020	144-145	제시문 [다]	○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20	125	제시문 [나]	○
				224-227	제시문 [라]	
				229	제시문 [바]	
독서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24	68	제시문 [바]	○
언어와 매체	최형용 외	창비	2020	136-137	제시문 [마]	○
화법과 작문	박영민 외	비상	2023	32-33	제시문 [바]	○

교과서 외						
자료(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여부
없음						

2.5. 문항 해설

2.5.1. 위원회 자체 평가 의견

본 문항은 제시문 [가], [나]가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의 원인과 양상을 [가], [나]를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정보와 [다],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통합적·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마], [바]를 참고하여 해결 방안을 서술하도록 설계되었다.

[가]는 대공황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진 독일에서 히틀러의 나치스가 극단적인 게르만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앞세워 세력을 확대하고 외부 침략과 함께 유대인 등에 대한 학살을 저질렀던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나]는 일본에서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쌀 폭동과 같은 민란을 우려한 내각과 군부가 고의적 유언비어 살포로 조선인 등을 학살하고, 대공황 이후에는 경제위기에 벗어나고자 대외 침략과 함께 대내적으로 군국주의를 강화해 갔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가]와 [나]는 모두 사회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지자, 독일과 일본의 지배 세력이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외부 침략과 내·외부 특정 집단에 대한 극단적 차별 끝에 학살까지 했던 역사적 사례를 보여준다.

[가], [나]에 담긴 정보로 경제적 상황과 정치·사회와의 상관성을 읽을 수 있고, [라]의 가짜 뉴스의 정의를 설명하는 구절을 통해 '정치·경제적 이익'을 명시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 단서를 한 번 더 주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설명하고 있는 [다]를 통해 [가], [나]에서 벌어진 문제를 원인과 양상 면에서 분석할 수 있고, [라]를 통해 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가 갖는 위험성을 [가], [나]의 사례뿐만 아니라 현재적 차원으로까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에 관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유포됐던 것을 가짜 뉴스의 예로 제시하면서, 최근의 가짜 뉴스 현상의 원인과 양상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다. 특히 [라]는 6개의 지문 중 가장 긴 지문으로 현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가], [나]의 역사적 사례와 현재 문제를 연결시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뒤이어 제시된 [마], [바]를 통해서도 현재의 문제로 성찰하면서 이를 서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매체 정보 수용 시 자세를 다룬 [마]와 말과 글로 의견을 표시할 때의 책임 있는 태도 및 공론장의 중요성을 설명한 [바]를 통해 정보의 수용자이자 생산자로서의 비판적·주체적 태도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2.5.2. 출제 검토 교사 의견

인문계열 1차 2번 문제는 정치,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집단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소수자를 적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가짜 뉴스’를 퍼트렸던 역사적 상황과 누리 소통망과 인터넷의 발달과 확산으로 현대에 유포되는 ‘가짜 뉴스’를 연관 지어 분석한 뒤,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도록 설계되었다. 역사적 사건의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현재적으로 성찰한 뒤 사회 갈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문항의 구성에 따라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력,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등 고차원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총 6개의 제시문이 모두 고등학교 교과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하였다. 제시문 모두 교과서 밖의 지식이나 선행 지식 없이도 충분히 독해하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며,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바 또한 명확히 드러난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스의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대공황이 발생한 후 독일이 외부적으로는 침략을 자행하며 내부적으로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앞세워 국가적 결속을 유도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확산하여 타자화한 결과 제노사이드를 자행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제시문 [나]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상황, 제시문 [라]의 ‘가짜 뉴스’에 대한 설명과 맞닿아 전체주의와 전쟁을 통해 정치·경제적 위기를 타파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내용은 역사 교과 『세계사』 과목의 [12세사05-04] 등의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 강조되는 세계시민 의식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다른 국가의 역사적 상황을 그저 사실로만 이해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를 성찰하도록 설계된 인문계열 1차 2번 문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인간상에도 충실히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사』 교과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나 2차 세계대전의 배경과 전개 과정, 전체주의, 나치즘은 중학교 교육과정인 [9역08-02]에서도 다루어지며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학습 요소에도 반영되어 있어 공통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세계사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제시문의 내용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서 수록된 내용과 『세계사』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일본에서 대공황 이후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만주 사변을 일으킨 상황에서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를 학살한 상황을 설명하는 글이다. 이러한 일본의 역사적 상황은 제시문 [가]의 독일의 상황과 병렬적으로 독해되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사회적 소수자를 타자화하고 제노사이드를 자행한 문제적 상황은 현재의 사회적 소수자 차별에 대한 학생들의 성찰적 인식을 유도한다. 이러한 내용은 역사 교과 『세계사』 과목의 [12세사05-04] 성취기준, 국어 교과 『독서』 과목의 [12독서02-01], [12독서03-02] 등의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으나 관동대지진 전후 일본의 정치·경제적 상황, 일본이 자행한 대학살의 전개 과정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세계사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도 선행 지식 없이도 제시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차별적 행위가 나타나는 인과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권력과 영향력이 큰 집단에 의해 규정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극단적인 차별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다]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이 차별적 인식 및 차별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 제시문 [가]에 제시된 독일의 유대인에 대한 차별, 제시문 [나]에 제시된 일본의 조선인, 사회주의자에 대한 차별의 원인과

양상을 분석하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 과목 『사회·문화』 교과 [12사문01-04], [12사문04-03] 등의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충실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 사례, 그에 대한 차별은 공통 과목인 사회 교과 『통합사회』 과목의 [10통사04-03] 성취기준에서도 다루어지는 내용인 만큼 『사회·문화』 과목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학생들도 어려움 없이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가짜 뉴스’의 개념과 역사적 사례, ‘가짜 뉴스’가 생성되고 유포되는 이유 및 누리 소통망의 정보 처리 규칙이 가짜 뉴스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제시문 [라]에 제시된 가짜 뉴스의 개념, 역사적 사례는 제시문 [가], [나]에서 역사적으로 가짜 뉴스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생성되고 유포된 상황과 맞닿아 유기적으로 이해된다. 또한 학생들은 제시문 [라]에 제시된 누리 소통망의 정보 처리 규칙이 혐오와 차별, 극단적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기전, 필터 버블 현상을 야기하는 기전 등을 이해하며 가짜 뉴스가 갖는 위험성을 현재적 차원으로 연결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통합적 사고력 등 고차원적 사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은 국어 교과 『독서』 과목의 [12독서02-01], [12독서03-02], [12독서03-06] 등의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언어와 요소를 선택할 때 생산자의 관점과 가치가 반영됨을 설명하는 글이다. 제시문 [마]의 내용을 통해 매체 자료에 생산자의 목적과 의도가 반영됨을, 또한 이러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갖추어야 할 비판적 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제시문 [마]의 내용을 통해 제시문 [가]~[라]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비판적인 수용 태도와 관련지어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어 교과 『언어와 매체』 과목의 [12언매03-01], [12언매03-02], [12언매03-06], [12언매04-03] 등의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또한 제시문 [마]에서 설명된 비판적 수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및 추구하는 역량의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서, 『독서』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말과 글의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 논쟁이 활발한 사회에서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꺼운 특징, 공론장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제시문 [바]의 내용을 통해 학생들은 공적 발언에서의 책임감, 소수자가 침묵하지 않는 사회의 특징, 이용자 참여에 의해 형성되는 공론장의 중요성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라]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복합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여러 제시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고차원적인 사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국어 교과의 『화법과 작문』 과목의 [12화작04-01], [12화작04-03] 성취기준, 『독서』 과목의 [12독서02-01], [12독서03-02], [12독서03-06] 등의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문계열 1차 2번 문제는 모든 제시문이 교과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국어 교과의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과목, 『독서』, 역사 교과의 『세계사』 과목, 사회 교과의 『사회·문화』 과목 등 다양한 교과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중 하나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인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 추구하는 인간상, 적용 범위, 수준 등 모든 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서강대학교 논술전형의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적합한 문항이다. 문제의 지시 사항이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역사적, 세계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현재’의 문제를 성찰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문항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2.5.3. 자문위원 평가 의견

다음은 자문위원들에게 인문계열 1차 2번 문제의 각 제시문과 문항에 대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라는 질문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해 ‘전혀 아니다-아니다-보통이다-그렇다-매우 그렇다’의 평가 항목으로 1~5점을 부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문제 및 제시문에 대한 문항 난이도에 대해 ‘매우 쉽다-쉽다-보통이다-어렵다-매우 어렵다’의 평가 항목으로 1~5점을 부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자문위원 15명의 평가 의견을 바탕으로 항목별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영하였다. 인문계열 1차 2번 문제에 대한 자문위원 평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15명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73의 결과가 나왔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은 15명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67의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제시문이 모두 교과서를 재구성한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주의, 인종주의, 차별, 가짜 뉴스 등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역사, 사회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교과서에 제시된 개념을 활용하여 원인을 분석하는 수준으로 제한하여 답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인문계열 1차 2번 문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있어 별도의 선행학습이나 선행 지식 없이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문제 전반에 대한 평가 의견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별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평가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15명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73의 결과가 나왔다.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 역시 15명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73의 결과가 나왔다. 근대 이후 국제 질서의 변화, 제국주의 확산과 세계대전, 전체주의의 대두와 전쟁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민족주의, 인종주의, 전체주의와 같은 개념이 고교 세계사에서 기본 개념으로 다루는 부분이며 역사학적으로 깊은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평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10국02-03], [12독서01-02], [12독서02-02], [12독서02-05], [12독서03-02], [10통사07-03], [12세사04-02], [12세사05-02], [12생윤06-03], [12사문03-01]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나]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15명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67의 결과가 나왔다.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은, 1명을 제외한 14명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47의 결과가 나왔다. 관동대지진 직후 일본 사회에서 발생한 사회주의자와 조선인에 대한 학살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일본 내 군국주의화와 관련된 『세계사』의 교육과정과 이러한 자료에서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독서』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평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10국02-03], [12독서01-02], [12독서02-01], [12독서02-02], [12독서02-03], [12독서02-05], [12독서03-02], [10통사07-03], [12세사04-02], [12세사05-01], [12세사05-02], [12생윤06-03], [12사문03-01]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다]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15명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80의 결과가 나왔다.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도 역시 15명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93의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소수자, 차별과 편견, 사회 불평등 구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개념, 원인 분석 등 기본적 서술을 중심으로 사회학 이론이나 통계적 분석을 포함하지 않아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잘 지켰다는 평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10국02-03], [12독서01-02], [12독서02-01], [12독서02-02], [12독서03-01], [12독서03-02], [10통사04-03], [12생윤03-02], [12사문04-02], [12사문04-03]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라]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15명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73의 결과가 나왔다.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인가?’에 대한 의견은 1명을 제외한 14명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60의 결과가 나왔다. 가짜 뉴스의 사회적 심각성과 매체 환경이 정보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독자가 매체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읽도록 요구하고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10국02-03], [12독서01-02], [12독서02-01], [12독서02-03], [12독서02-05], [12독서03-02], [12독서03-06], [12언매03-01], [12언매03-02], [12언매03-06], [10통사03-02], [12생윤04-02], [12사문05-02]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마]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1명을 제외한 14명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67의 결과가 나왔다.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인가?’에 대한 의견도 1명을 제외한 14명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80의 결과가 나왔다. 매체 언어의 특성, 정보 비판 및 수용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출처, 근거, 의도 등 매체 비판 내용을 설명하는 기본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평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10국02-02], [12독서02-01], [12독서02-03], [12독서03-02], [12독서03-06], [12언매01-03], [12언매01-04], [12언매03-02], [12언매03-03], [12언매03-06], [12생윤04-02]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바]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15명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67의 결과가 나왔다.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인가?’에 대한 의견 역시 15명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67의 결과가 나왔다. 언어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과 우리 사회가 가진 공론장의 특성을 설명한 자료로,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독서』 교과서를 재구성하였고, 누리 소통망 등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경향을 경계하기 위한 내용은 앞선 제시문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 의사소통 관점을 다룬 화법과 작문 교육과정과 관련된다는 평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10국02-02], [12화작01-01], [12화작01-02], [12화작03-01], [12화작04-01], [12독서04-02], [12독서02-01], [12독서02-03], [12독서02-05], [12독서03-01], [12독서03-02], [12독서03-06], [12언매03-02], [12언매03-03], [12생윤03-03], [12언매03-06], [12생윤06-01]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난이도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는 3.27이며, 개별 제시문에 대한 난이도는 평균 2.93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인 문항 난이도가 ‘보통’ 수준이거나 ‘보통 이하’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문위원 평가 내용을 토대로 인문계열 1차 2번 문제의 ‘교육과정 범위’와 ‘교육과정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강대학교의 기출문제 풀이 연습을 통해 문항을 이해하거나 제시문을 분석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사교육이나 선행학습 요소 없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모두 준수한 문제로 평가된다.

2.6. 채점 기준

<결과 등급 기준>

1. [가], [나]의 역사적 사례로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양상을 [가~라]를 활용해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가? 사회·경제적 환경이 어려울 때 외부나 내부의 특정 집단을 타자화하고 그에 대한 혐오 담론이 더욱 크게 유통되는 맥락을 파악해 내고 있는가?
2. [가], [나]의 현상이 보여주는 문제를 일반화하여 현재를 성찰하면서 정치·경제적 이익과 정보 생산의 연계를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3. [매], [바]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기술할 때, 매체 자료, 정보에 대한 주체적·비판적 수용뿐만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말과 글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가?

<과정 등급 기준>

1. [가], [나]의 원인과 양상을 분석할 때:
 - [가], [나]에 서술된 사회·경제적 맥락과의 관계를 읽어내고 있는가?
 - [대]의 내용을 활용하여 외부나 내부로 타자 혹은 적을 만드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짚어내고 있는가?
 - 사회·경제적 위기 시 이러한 담론 생산이 거세질 때, 언론과 일부 대중의 동조 또한 문제임을 파악하고 있는가?
 - 타자화와 혐오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 벌어지는 일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임을 추론해 내고 있는가?
 -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문제를 [라]의 지문과 함께 현재의 사회 문제로 연결시켜 사고하고, 정치·경제적 이익과 정보 생산의 연계를 분석하고 있는가?
2. [매], [바]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기술할 때:
 - 정보의 수용자이면서 생산자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가?
 - 중간층이 두꺼운 의견 스펙트럼을 가진 공론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는가?

2.7. 답안 사례

[가], [나]는 독일과 일본에서 전체주의 세력이 발흥하여 외부로는 침략을 강행하고 내·외부의 특정 집단을 극단적으로 타자화하여 학살에까지 이르렀던 역사적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서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심의 동요나 국가에 대한 불만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 했던 지배 세력의 의도가 있다. 즉 외부의 ‘적’을 만들어 전쟁을 벌이는 한편 특정 집단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강화하여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것이다. 특히 당시 유대인이나 조선인 등 차별받는 집단에 속한 이들에 대한 학살이 광범위하게 벌어진 데는 당국에서 유포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와 선전이 큰 영향을 미쳤다. [대]는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일단 갖게 되면,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들에 대한 차별적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지적한다. [나]를 통해서도 고의적인 유언비어 살포에 일반인들도 휩쓸려 학살에 동조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타자화와 혐오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 벌어지는 일이 [가], [나]에서 볼 수 있는 제노사이드이다. [라]는 [가], [나]에서 다룬 허위 정보의 유통이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을 현재적 관점에서 성찰하게 한다. 가짜 뉴스는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로서, 자극적 요소를 담아 조회 수를 늘리려는 생산자와 누리 소통망의 개인 맞춤형 정보 처리 규칙으로 인해 특정 정보 편식과 극단적 주장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산된 정보들이 넘쳐나는 지금의 환경에서 극단으로 흐르지 않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에 담긴 관점과 근거의 타당성을 따져 보는 비판적 수용이 필요하다. 더불어 자신 또한 공론장을 만드는 생산자임을 인식하고 말과 글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그래야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꺼운 공론장 문화를 만들 수 있다.

3. 문항카드 3 - 인문계열 2차 1번

3.1. 일반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일반)전형	
계열(과목)/문항번호	인문계열 2차(경제학과, 경영학부) / 1번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생활과 윤리
		· 합리적 선택(비용과 편익) · 윤리적 소비 · 소비자 참여 · 집단 또는 연합 · 탄소발자국
예상소요 시간	40분	/ 100 분

3.2. 문제 및 제시문(문항)

제시문 [가]에 나타난 현상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문제의 원인을 [나], [다]를 활용하여 분석한 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라], [마]를 참고하여 제시하시오.

[가] A사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클린 디젤’이라는 개념의 친환경 차량을 시장에 출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런데 A사의 자동차 디젤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기준치의 40배나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클린 디젤’은 자동차 배기가스 환경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저감 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결과였던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A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결함 보상(리콜) 명령을 내렸지만, 국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보상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A사의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전월 대비 무려 337%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A사가 60개월 무이자 할부, 현금 구매 시 최대 1,772만원 할인 등의 파격 홍보를 펼쳤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재구성)

[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비용과 편익이다. 비용은 선택을 실행하는 데 드는 돈, 시간, 노력 등과 포기한 대안의 가치 중 가장 큰 것을 말한다. 편익은 경제적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효용이나 이득을 의미하며, 금전적인 것은 물론 심리적 만족감과 같은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한다. 경제적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한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재구성)

[다] 리프킨(Rifkin, J.)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과 관련된 제품과 방법에는 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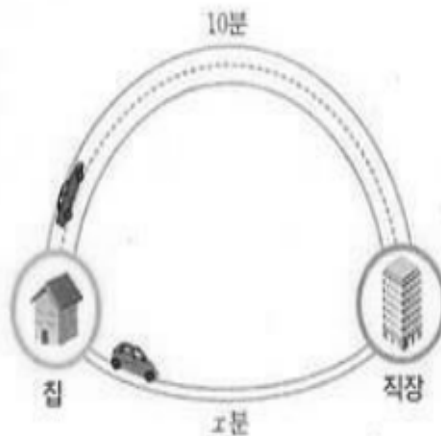
적인 이익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은 상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들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과학자들과 기업들이 생명공학 연구에 투자하는 동기가 아니라 소비자인 우리의 동기이다. 현재 우리의 기대, 욕망, 태도, 경향 등이 미래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 특징 요소들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재구성)

[라] 다음은 B라는 사람이 매일 기록하는 <탄소발자국> 메모장의 한 페이지이다.

구분	내용	점수
음식	하루에 몇 번 식사하는가? (회당 1점)	
	식사 중 주어진 음식을 다 먹었는가? (남긴 음식이 있었으면 1점)	
	시장에 갈 때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가? (들고 가지 않았으면 1점)	
의복	옷을 몇 가지나 입고 있는가? (속옷 각 1점, 겉옷 각 2점, 양말 1점)	
	얼마나 많은 액세서리를 하고 있는가? (벨트, 머리띠, 귀걸이 등 각 1점)	
교통	하루 동안 이용한 교통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전거 1점, 버스나 지하철 2점, 휘발유(가솔린)나 경유(디젤) 자동차 3점)	
∴	∴	∴
전기	하루 동안 얼마나 전기를 쓰는가? (텔레비전, 컴퓨터, 냉장고 등 전기용품 사용 시간 30분마다 1점)	
물	하루 동안 몇 번이나 화장실을 사용하는가? (회당 0.5점)	
	하루 동안 몇 번이나 샤워하는가? (회당 2점)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을 잘했는가? (잘했으면 1점, 부족하면 2점, 전혀 못했으면 3점)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재구성)



<그림 1>

[마] 위 <그림 1>은 출근길을 표현한 것인데, 왼쪽이 집이고 오른쪽이 직장이다. 출근을 하는 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윗길은 고속도로로 넓은 대신에 멀리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아랫길은 지름길로 짧지만 대신 좁다. 고속도로는 넓기 때문에 차가 1대가 가든 4대가 가든 각 차는 언제나 10분이 걸린다. 그런데 지름길은 좁아, 이용차량이 많을수록 길이 막혀 1대가 가면 1분이 걸리고, 2대가 가면 2분, 3

대가 가면 3분, x 대가 가면 x 분이 걸린다. 만약 이 동네에 같은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10명이고, 이들이 각자 차를 타고 출근한다면 어떻게 가는 것이 10명의 출근길 총 소요시간을 가장 줄이는 방법일까? 정답은 10대가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두 길로 적당히 나누어서 가는 것이다. 수식을 써서 푼다면 이차식으로 정리되어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최솟값이 나오는데, 그때 $x=5$ 가 된다. 즉, 5명은 고속도로로, 5명은 지름길로 가야 한다. 그러면 고속도로로 가는 5명은 각 10분씩 총 50분, 지름길로 가는 5명은 각 5분씩 총 25분이 걸린다. 이를 합치면 10명의 사람이 총 75분이 소요된다. 이것이 최소 소요 시간 값이다.

그러나 실제 운전자들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뭔가 불공평하기 때문인데, 고속도로로 가려던 한 명이 지름길로 옮겨 가면 아래 지름길에는 차량 수가 5대에서 6대로 늘어나 각 6분이 걸리지만, 원래 고속도로에서는 10분이 걸렸던 사람이니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도로 교통을 총괄하는 기관에서는 5:5로 질서 있게 나누어 가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답이라고 하겠지만, 개인에게는 이것이 좋은 답이 아니어서 지름길로 옮겨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만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 사람이 옮겨 가면 지름길에는 총 7대가 되어 각 7분이 걸리지만 여전히 고속도로로 갈 때보다 3분이 이익이므로 두 번째 사람도 지름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까지 모두 지름길을 택해, 10명이 10분씩 총 100분이 소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재구성)

3.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모든 지문을 교과서에서 발췌하여 사용함으로써, 교과과정 이외의 사전 지식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시문의 내용에만 근거해도 충분히 답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 본 문항은 교육과정 성취기준 [10통사02-03], [10통사09-02]에서 학습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소비자 개인의 차원의 노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집단적, 제도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문 [가]에 등장하는 A사는 환경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배기가스 배출 조작)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은 것이 아니라, 초저가 판매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매출 호조를 경험하였다. 그 이유는 성취기준 [12경제01-01]과 [12경제01-02]에서 기술되어 있듯이, 개별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적 선택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며, 성취기준 [12생윤03-03]과 [12생윤05-02]에서 기술하고 있는 “의식있는 소비”나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A사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문제의 원인을 제시문 [나]와 [다]에서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개인 차원의 노력과 집단(개인들의 연합 혹은 공동의 노력) 차원의 노력으로 모두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취기준 [12사문01-01]과 [12사문05-04]에서 제시된 대로, [라]에서 표현한 “탄소발자국 메모장”과 같은 환경 보존에 관한 개인적인 노력(예, 윤리적 소비 습관 기르기)이 하나의 해결책임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성취기준 [12독서02-05], [12독서03-02]에서 기대하는 바와 같이, [마]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힘(개인적 노력 보다는 집단적 노력)을 암시하는 글을 바탕으로 개인적 차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집단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함을 추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리하자면, 본 문항은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국어, 사회 및 도덕 분야의 주요 개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경제·경영 분야에서 실제로 벌어진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술하게 함으로써 교육과정에 충실하면서도 적절한 수학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3.4. 출제 근거

3.4.1.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 국어		
	과목명 :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제시문 [가]~[마]
	성취기준 2	[12독서03-02]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 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가]~[마]
	2. 교과명 : 사회		
	과목명 :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10통사02-0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가]~[마]
	성취기준 2	[10통사09-02]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	제시문 [가]~[마]
	과목명 :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12사문01-01] 사회, 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 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제시문 [가]~[라]
	성취기준 2	[12사문05-04]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제시문 [가]~[라]
	과목명 : 경제	관련	
	성취기준 1	[12경제01-01] 사람들이 경제생활에서 희소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제시문 [나]
	성취기준 2	[12경제01-02]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매몰비용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한다.	제시문 [나]
	3. 교과명 : 도덕		
	과목명 :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12생윤03-03] 국가의 권위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민주시민의 자세인 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다]~[마]
	성취기준 2	[12생윤05-02]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으며 윤리적 소비 실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다]~[마]

3.4.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교과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여부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N	2021	139	제시문 [개]	○
경제	허수미 외	지학사	2021	19	제시문 [내]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20	171	제시문 [대]	○
사회·문화	서범석 외	지학사	2020	198	제시문 [래]	○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20	162-163	제시문 [매]	○

교과서 외						
자료(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여부
없음						

3.5. 문항 해설

3.5.1. 위원회 자체 평가 의견

본 문항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 개인 차원의 노력과 집단 차원의 노력을 모색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에 등장하는 기업 A사는 환경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배기가스 배출 조작)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기는커녕 할인 판매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매출 호조를 경험하였다. 배기가스 배출 기준치의 40배에 달하는 배출을 일으키는 차량이 더 많이 팔린다면, 이는 소비자의 선택으로 환경 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제시문 [나]와 [다]에서 A사의 매출 호조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개별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적 선택에 매몰된 반면, ‘의식있는 소비’나 ‘윤리적 소비’는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부재라는 관점보다는 소비자의 책임 의식 부재라는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환경 문제를 위해 당연히 기업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개별 소비자도 자신의 경제적 효용 관점에서만 소비해서는 안 되고, 의식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소비를 규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시문 [라]와 [매]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라]에서 B라는 사람의 ‘탄소 발자국 메모장’과 같은 윤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는 개인 수준의 환경 보존 노력이 하나의 해결책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제시문 [매]에서 암시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중요성(개인보다는 집단의 노력)을 추론하여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불매 또는 구매 운동, 입법 제안 등의 집단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해야 한다.

3.5.2. 출제 검토 교사 의견

인문계열 2차 1번 문제는 총 5개의 제시문이 모두 교과서에서 발췌되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부합한다. 제시문 모두 학생들이 교과서 밖의 지식이나 선행 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 또한 명료히 드러난다. 인문계열 2차 1번 문제는 교과서에 수록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할인 홍보를 펼치자 판매량이 폭등한 상황의 원인을 합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도출하도록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소비자의 소비 행위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할 수 있도록 문항을 설계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문별로 검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클린 디젤’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저감 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자동차 배기가스 환경 기준을 회피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 사례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이러한 소비자 기만 행위에도 불구하고 60개월 무이자 할부, 현금 구매 할인 등 파격 홍보를 펼치자 소비자들은 이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여 전월보다 판매량이 337% 증가했는데, 이처럼 A사의 자동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환경오염은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것이 문항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 교과 『통합사회』 과목의 [10통사02-03], [10통사09-02] 등의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충실히 부합한다. 실제 사례에서 확인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으나, 제시문에서 문제 상황과 관련한 요인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 사례에 대해 사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학생들도 제시문의 문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비용과 편익의 개념과 관련하여 합리적 소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문 [가]에 제시된 문제 상황이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적 선택을 하기 때문임을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 교과 『경제』 과목의 [12경제01-01], [12경제01-02] 등의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제시문 [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을 추구했던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응시자는 제시문 [다]에서 말하는 소비자의 동기가 미래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식적·윤리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정립하여야 했다. 제시문에서 ‘비용’, ‘편익’ 등 주요 용어의 의미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적 선택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어 경제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관련 선행 지식이 없는 학생들도 제시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용과 편익은 공통과목인 『통합사회』 과목의 [10통사05-01] 성취기준에서도 활용될 뿐만 아니라, 중학교 교육과정인 [9사(일사)08-01] 성취기준에서도 학습할 수 있는 개념인 만큼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무리 없이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소비자의 동기에 맞추어 기업과 과학자들이 연구에 투자하므로 현재 우리의 기대, 욕망, 태도 등이 미래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침을 설명한 글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세대의 소비가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는 논지를 추론할 수 있다. 이를 제시문 [가], [나]와 관련지어 이해하면 문제의 원인을 특정한 기업의 소비자 기만 행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책임 의식 없는 소비에서 도출할 수 있어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은 도덕 교과 『생활과 윤리』 과목의 [12생윤03-03], [12생윤05-02] 성취기준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윤리적 소비’라는 개념어를 제시하는 대신 이를 설명하는 내용을 제시문에 활용하여 ‘윤리적 소비’라는

개념을 사전에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도 제시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수록된 표를 일부 발췌한 것으로, 탄소발자국과 관련하여 개인의 행위를 성찰하고 기록하는 메모장이다. 이를 제시문 [가]의 문제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하며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과 선택,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성찰하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 교과 『사회·문화』 과목의 [12사문01-01], [12사문05-04]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또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을 중심으로 메모장이 제시되어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도 별다른 선행 지식 없이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 수록된 글과 그림을 재구성한 것으로, 개인의 선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출근을 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지름길을 선택하는 가상의 사례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글이다. 제시된 사례를 통해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을 하면 각 개인과 사회 전반에 비효율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지를 추론할 수 있다. 사례를 통해 논지를 추론하고 이를 제시문 [가]의 문제 상황과 관련지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사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은 국어 교과 『독서』 과목의 [12독서02-05], [12독서03-02] 등의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이나 정보 처리 역량과의 연관성 또한 있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충실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인문계열 2차 1번 문항은 5개의 제시문 모두 교과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국어, 사회, 도덕 교과의 다양한 과목과 관련하고 학생들의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등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라는 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 추구하는 인간상, 적용 범위, 수준 등 모든 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서강대학교 논술전형의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적합한 문항이다. 문제의 발문이 구체적이고 명료하며 단계적으로 기술되어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이며, 선행 지식 등 다른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책임 의식과 관련하여 문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며 학생들은 자신의 소비 행위 또한 성찰할 수 있는 문항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3.5.3. 자문위원 평가 의견

다음은 자문위원들에게 인문계열 2차 1번 문제의 각 제시문과 문항에 대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라는 질문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해 ‘전혀 아니다-아니다-보통이다-그렇다-매우 그렇다’의 평가 항목으로 1~5점을 부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문제 및 제시문에 대한 문항 난이도에 대해 ‘매우 쉽다-쉽다-보통이다-어렵다-매우 어렵다’의 평가 항목으로 1~5점을 부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자문위원 15명의 평가 의견을 바탕으로 항목별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영하였다. 인문계열 2차 1번 문제에 대한 자문위원 평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15명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73의 결과가 나왔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은 15명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67의 결과가 나왔다. 또한 『통합사회』 과목의 경제생활, 소비자의 책임, 환경과 지속 가능성, 경제 과목의 합리적 선택, 『생활과 윤리』 과목의 과학기술과 윤리,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사회·문화』 과목의 사회적 실천과 환경, 『독서』 과목의 사회 분야 제시문 독해, 합리적 의사결정 자료 해석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명시하는 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인문계열 2차 1번 문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있어 별도의 선행학습이

나 선행 지식 없이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문제 전반에 대한 평가 의견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별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평가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15명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73의 결과가 나왔다.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 역시 15명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80의 결과가 나왔다. ‘클린 디젤’ 조작 사건을 소개하면서 A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판촉 행위를 통해 판매량이 증가한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통합사회의 교육과정에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기업 등 다양한 노력을 모색하는 성취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평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10국02-03], [12독서01-02], [12독서02-01], [12독서02-02], [12독서02-03], [12독서03-02], [10통사02-01], [10통사02-03], [10통사03-02], [10통사09-02], [10통사05-01], [10통사05-02], [10통사05-03], [12경제01-02], [12경제02-03], [12생윤04-03]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나]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15명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87의 결과가 나왔다.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 역시 15명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93의 결과가 나왔다. 비용과 편익의 개념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한 자료로, A 자동차의 판매량 증가를 소비자의 경제적 선택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에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룬 내용과 부합하다는 평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10국02-03], [10국03-02], [12독서01-02], [12독서02-01], [12독서02-02], [12독서03-02], [10통사05-01], [10통사05-03], [12경제01-01], [12경제01-02], [12경제01-03]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다]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3명을 제외한 12명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40의 결과가 나왔다.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도 역시 12명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40의 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이 연구에 투자하는 동기를 소비자의 요구라는 관점에서 보는 리프킨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시문 [가]의 원인을 A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윤리적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윤리적 성찰을 하도록 하는 교육과정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평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10국02-03], [10국03-02], [12독서01-02], [12독서02-01], [12독서02-02], [12독서02-03], [12독서03-01], [12독서03-02], [12경제01-01], [12경제04-02], [12생윤01-01], [12생윤01-03], [12생윤02-02], [12생윤04-01], [12생윤04-03], [12생윤05-02], [12윤사01-01]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라]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15명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60의 결과가 나왔다.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 역시 15명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80의 결과가 나왔다. 탄소발자국 메모장을 제시하여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시문 [가]의 상황의 해결 방안을 생태적 관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문화』 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언급한 교육과정과 부합하다는 평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10국02-03], [10국03-02], [12화학03-09], [12독서01-02], [12독서02-01], [12독서02-02], [12독서02-05], [12독서03-01], [12독서03-02], [10통사02-03], [10통사09-02], [12사문05-04], [12생윤04-03], [12생윤05-02]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는 점에서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마]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1명을 제외한 14명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47의 결과가 나왔다.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도 1명을 제외한 14명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하였으며 평균 4.47의 결과가 나왔다. 출근길 경로에 대한 상황을 통해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집단 전체의 효용 사이의 관계를 짚고 있고, 제시문 [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조정이 필요함을 드러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고등학교 『독서』 교육과정에서 글에 드러난 내용을 비판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내용과 연관 있다는 평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10국02-03], [10국03-02], [12독서01-02], [12독서02-01], [12독서02-02], [12독서02-03], [12독서02-05], [12독서03-02], [12독서03-06], [10통사05-01], [12경제01-01], [12경제02-03], [12경제02-02], [12경제02-04], [12생윤05-02]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난이도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는 3.53이며, 개별 제시문에 대한 난이도는 평균 3.13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인 문항 난이도가 ‘보통’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문위원 평가 내용을 토대로 인문계열 2차 1번 문제의 ‘교육과정 범위’와 ‘교육과정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시문 [나]의 ‘개인적 합리성’이 제시문 [마]의 상황에서 어떻게 ‘집단적 비합리성(사회적 딜레마)’으로 귀결되는지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까다롭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제시문의 난이도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제시문이 있어 학생들이 이해하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핵심 개념 또한 명확하게 드러나 제시문을 해석하기에 의미 파악은 무난하다는 평가 의견도 있었다. 또한 전문적인 이론에 대한 습득 없이 교과 개념만으로도 ‘문제점 설명 → 원인 분석 → 해결 방안 제시’의 전형적 구조로 설계되어 학생들이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출 유형이라는 평가 의견도 있었다. 인문계열 2차 1번 문제 또한 서강대학교의 기출문제 풀이 연습을 통해 문항을 이해하거나 제시문을 분석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사교육이나 선행학습 요소 없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모두 준수한 문제로 평가된다.

3.6. 채점 기준

<결과 등급 기준>

1. 제시문 [가]에서 현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 A사는 환경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배기가스 배출 조작)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은 것이 아니라, 할인 판매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매출 호조를 경험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는지 여부
- 배기가스 배출 기준치의 40배에 달하는 배출을 일으키는 차량이 더 많이 팔린다면, 이는 환경 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는지 여부

2. 제시문 [나], [다]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였는가?

- [나]에서 개별 기업과 개별 소비자는 자신의 순편익(비용과 효용의 비교를 통해)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적 선택을 하는 경향이 원인이었다는 지적하였는지 여부

- [다]에서 의식있는 소비자나 윤리적 소비가 간과된 것 역시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파악하였는지 여부
- 3. 제시문 [라]에서 소비자 개인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는가?
 - [라]에서 B라는 사람의 “탄소발자국 메모장”과 같은 개인 수준의 환경 보존 노력(예, 윤리소비 습관 기르기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4. 제시문 [마]에서 소비자 개인 차원의 노력의 한계점에 대한 언급과 함께 집단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는가?
 - [마]의 내용에서 암시하는 바를 통해, 소비자 개인 차원의 환경 보존 노력은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지적하였는지 여부
 - [마]에서 암시하고 있는 집단이나 연합의 중요성을 추론하여, 집단 수준의 소비자 행동(예, 구매나 불매 운동, 시민 참여 활동, 환경 입법 제안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과정 등급 기준>

1. [가]에서 환경에 피해를 주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주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판매 호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환경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까지 추론하였는가?
2. 문제의 원인을 제시함에 있어서, 단순히 기업의 비윤리성만 지적하거나, 법적 미비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지 않고, 개별 기업과 소비자가 자신의 경제적 선택에만 매몰되었다는 점과 특히 소비자의 윤리 의식의 부재를 원인으로 지적하였는가?
3. [라], [마]에서 소비자 개인 차원의 윤리적 소비 노력 한 가지만 제시하지 않고 집단적 노력도 동시에 제시하였는가?
4. 또한, 개인 차원의 노력의 한계점을 명확하게 기술하면서, 집단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였는가?

3.7. 답안 사례

[가]에서 A사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하는 비윤리적 행동을 보였지만, 공격적인 할인 판매 전략으로 매출이 폭증하였다. 이는 [나]에서 지적한대로, A사와 소비자 모두 각자의 순편익을 따지는 경제적 선택에 매몰되었고, 특히 [다]가 암시하듯 구매자들은 주체적이고 윤리적인 소비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인과 집단 차원의 두 가지 해결 방안이 있다. 우선 개인 차원에서는 소비자가 주체적이고 의식적인 윤리 소비 행동을 습관화해야 한다. [라]의 B처럼 자신의 탄소발자국 현황을 매일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면, 차량 구매 시 가급적 휘발유나 경유차 구매에 주의했을 것이다. 하물며 B가 소비자를 기만한 A사의 경유차를 구매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가 그렇게 행동할지는 의문이다. [마]에서 잘 드러나듯, 개별 운전자는 각자의 비용과 편익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여, 결국 모두 지름길로 몰려 가장 큰 총 이동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하지만 10명의 운전자가 연합하여 총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5:5 이동 방식이 도출될 것이고, 이는 총 소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배출가스 역시 최소화된다. 즉, A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윤리 소비 습관화와 같은 개인 수준의 행동에 그쳐서는 안 되고, 불매 및 구매 운동, 기업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입법 제안 등 소비자 연대를 통한 집단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4. 문항카드 4 - 인문계열 2차 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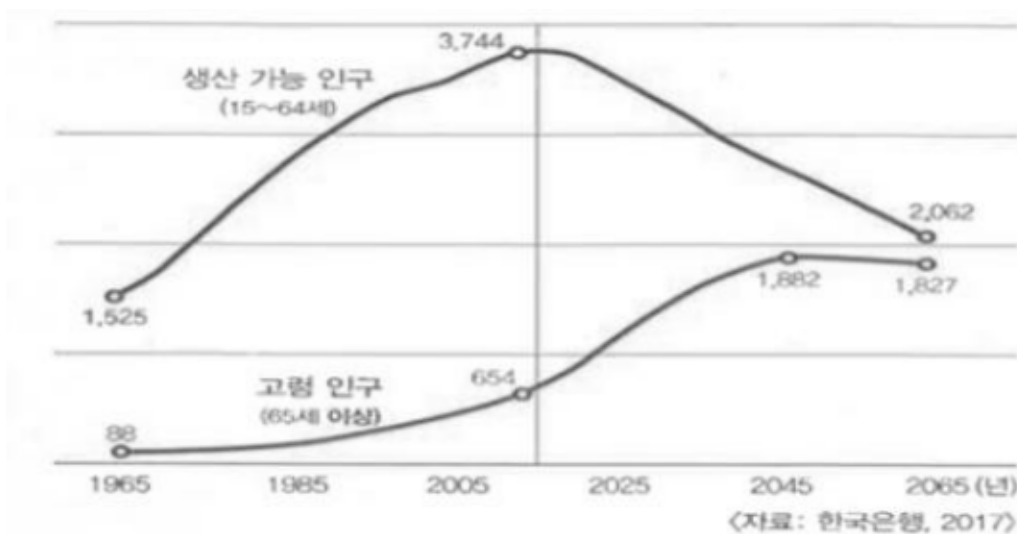
4.1. 일반정보

유형	논술고사	
전형명	논술(일반)전형	
계열(과목)/문항번호	인문계열 2차(경제학과, 경영학부) / 2번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경제,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 경제 성장 · 인구감소와 노령화 · 생산 요소 · 기술의 역할 · 파괴적 혁신 · 구조적 실업
예상소요 시간	60분	/ 100 분

4.2. 문제 및 제시문(문항)

[가]의 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나]에서 찾아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나], [다]를 근거로 제시하시오. 또한 [다]에 제시된 개념의 양면성을 [라], [마]를 참고하여 설명하고, [바]를 활용하여 해당 개념의 필요성을 논술하시오.

[가]



<그림 1>

연도	1995	2000	2005	2010	2015
노령화 지수	25.8	35.0	48.6	68.0	95.1

<자료: 통계청, 2016>

<표 1>

<그림 1>은 연도별 생산 가능 인구나 고령 인구 추이(단위: 만 명)를, <표 1>은 연도별 노령화 지수를 나타낸다. 생산 가능 인구는 15~64세의 청장년층 인구를 뜻한다.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 100명 당 고령 인구(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재구성)

[나]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관한 보도를 자주 볼 수 있다. 사람들이 경제 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까닭은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에는 노동, 자본, 토지와 같은 생산 요소와 기술과 같은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노동은 생산에 투입된 노동의 양과 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생산에 기여하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포괄한다. 경제 성장에 필요한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자본은 상품 생산 과정에 필요한 기계, 도구, 건물 등을 의미하는데 자본량의 증가 역시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지란 땅이나 땅에 부속된 자원을 뜻한다. 기술이란 같은 양의 생산 요소를 결합하더라도 더 많은 생산을 하거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말한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재구성)

[다] 2025년 ○○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기용 교수와 하잇 교수는 ‘파괴적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론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파괴적 혁신’을 수학적 모델로 정립하여, 낡은 산업이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이 경제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낸 원동력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새롭고 더 나은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기존 제품을 판매하던 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 기업의 기술 혁신으로 발생한 파괴적 위협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이끌어 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사전트 교수는 향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혁신’을 강조했다. 사전트 교수는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아르헨티나, 북한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난 50년 간 미국보다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라면서 “한국이 미국의 성장세를 많이 따라잡은 이 시점에서 더는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보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복제(copying)보다는 혁신할 필요성이 늘어날 것이다.”라며 이와 관련한 방안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꼽았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재구성)

[라] 경기적 실업은 경기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을 말한다. 경기적 실업에 따른 문제는 시간이 흘러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마냥 경기 회복을 기다리기에는 실업 상태에서 겪는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문제가 너무 크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에 경기 부양책을 펴는 이유는 경기적 실업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마찰적 실업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이러한 실업은 경기가 좋더라도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실업에 처하는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어떤 산업이 사양됨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양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은 다른 유형의 실업보다 장기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구조적 실업으로 실업에 처한 사람은 재취업하기 쉽지 않아 실업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 특히 경제 구조가 급속히 변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계절적 실업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 건설 현장에서 일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도 계절적 실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재구성)

[마]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이 제조한 상품을 보관, 운송, 저장하는 유통이다. 이 중에서 ‘콜드 체인(Cold Chain)’ 기술은 기존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유통 시스템을 말하며, 신선 식품의 보관이 가능한 물류 센터와 냉동, 냉장, 상온 관리 체계 그리고 특수 배송 차량까지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 기술을 통해 소비자들은 빠르게 신선한 식품들을 배달받을 수 있어, 관련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콜드 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콜드 체인 시장은 안정적 성장을 거듭하며 부가 가치가 높은 특수 물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각국의 중산층 인구 및 신선 식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계 콜드 체인 시장 규모는 2016년까지 매년 4~5%의 증가세를 보이며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미국의 시장 분석 업체 M사는 전세계 콜드 체인 시장이 2017년 이후 연평균 7% 성장률을 유지하며 2020년에는 2,713억 달러(약 308조 3,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재구성)

[바] 신들은 신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로 했다. 신들은 진흙으로 몸을 만들었다. 형체는 이내 망가졌고, 신들의 이야기를 알아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신들은 진흙 인간을 부숴 버렸다. 그들은 옥수수 알갱이와 치테 열매로 점을 쳐 나온 점괘를 믿고 나무 인간을 창조했다. 치테나무로 남자를 만들었고, 버들가지로 여자를 만들었다. 나무 인간은 말을 했고 자손을 번성시켰지만, 영혼이 없어서 이해력이 없었다. 그래서 신들은 나무 인간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 나무 인간이 사라지자, 일곱 마코 앵무새가 천하를 호령하며 자신이 태양이고 달이라 외치며 오만을 떨었다. 신들은 쌍둥이 형제로 변신한 다음 땅으로 내려가 그와 그의 아들들을 파괴했다. 창조자들은 자신들을 경배할 영혼이 있는 존재가 필요했다. 그들은 어둠과 밤 속에 모여 논의했다. 인간의 육신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심하던 구쿠마츠와 ‘하늘의 심장’ 우라칸은 여우, 코요테, 앵무새, 까마귀들에게서 노란 옥수수와 하얀 옥수수를 받았다. 아름다운 땅, 노랗고 하얀 옥수수가 가득한 파힐(Paxil) 땅은 신들을 흡족하게 했다. 테페우(Tepeu)와 구쿠마츠는 마술을 이용해 노란 옥수수와 하얀 옥수수로 팔과 다리를 만들었고, 옥수수 덩어리로 몸통을 만들었다. 최초로 만들어진 옥수수 인간은 ‘웃는 호랑이’ 발람 키체(Balam-Quitze), ‘밤 호랑이’ 발람 아갑(Balam-Acab), ‘귀한 이’ 마후쿠타(Mahucutah), ‘달 호랑이’ 이키 발람(Iqui-Balam)이었다. 이들은 서로 대화할 줄 알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옥수수 인간들은 창조자들에게 감사드렸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재구성)

4.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모든 제시문(총 6개 중 6개)을 교과서에서 발췌함으로써, 교과과정 이외의 사전 지식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시문의 내용에만 근거해도 충분히 답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문항은 『사회·문화』 교과서에 수록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가]에서 제시하고, [나]-[다] 제시문들을 통해 [가]의 현상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시된 해결 방안이 가지는 양면성을 제시문 [라]-[마]를 통해 비판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 요구하였다. 이는 2015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12사문05-03], [12경제01-04], [12경제03-01], [12경제03-02], [12경제03-03]과, 국어과 교육과정 [12언매03-02], [12독서02-01], [12독서03-02]의 성취 기준과 부합한다.

국어과 교육과정 [12독서03-05], [12문학01-01], [12문학03-05]에서 학습하는 문학을 통한 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마야 신화가 의미하는 바를 활용하여 기술 발전이 파괴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종합적으로 이 문항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문제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4.4. 출제 근거

4.4.1.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적용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 국어		
	과목명 :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제시문 [나]-[마]
	성취기준 2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제시문 [다], [마]
	성취기준 3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제시문 [마]
	성취기준 4	[12독서03-05]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글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을 읽는다.	제시문 [바]
	과목명 :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기준 1	[12언매03-02]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제시문 [가]
	과목명 :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제시문 [바]
	성취기준 2	[12문학03-05]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해서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	제시문 [바]
	2. 교과명 : 사회		

과목명 : 경제		관련
성취기준 1	[12경제03-01] 경제 성장의 의미와 요인을 이해하고 한국 경제의 변화와 경제적 성과를 균형 있는 시각에서 평가한다.	제시문 [가]-[다]
성취기준 2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제시문 [가], [마]
성취기준 3	[12경제03-02] 경제의 순환 과정을 이해하고 경제 주체의 지출과 소득으로 국민경제활동 수준을 파악한다.	제시문 [다]
성취기준 4	[12경제03-03]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과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라]
과목명 :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12사문05-03] 저출산·고령화와 다문화적 변화로 인해 대두되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제시문 [가]

4.4.2. 자료 출처

교과서 내						
교과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여부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	2017	183	제시문 [가]	○
경제	김종호 외	씨마스	2018	112	제시문 [내]	○
				113	제시문 [가]	
경제	유종열 외	비상	2018	46	제시문 [가]	○
				106	제시문 [내]	
경제	김진영 외	미래엔	2018	88	제시문 [내]	○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18	111	제시문 [대]	○
				116~117	제시문 [래]	
				141	제시문 [매]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18	187	제시문 [배]	○

교과서 외						
자료(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여부
기사	강진구	한국일보	2025	-	제시문 [대]	○

4.5. 문항 해설

4.5.1. 위원회 자체 평가 의견

본 문항은 4가지 핵심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다.

1) 제시문 [내]를 근거로 [가]에 주어진 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

제시문 [내]는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요인들로서 생산의 투입 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를 제시하고 있

으며, 이러한 생산 요소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 또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 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나]에 제시된 정보를 종합하여 [가]의 노동력 감소 현상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하여 결론 내릴 수 있다. 나아가, [나]에서 노동은 생산에 필요 한 노동의 양과 질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또한 생산에 투입되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아 우른다는 점을 기반으로, [가]의 현상 중,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노동량의 감소를, 급격한 노령화는 노 동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노동의 질이 육체적인 능력까지 포함한다는 점과 노 령화 지수의 급격한 증가는 생산 가능 인구 중 고연령대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2) 제시문 [다]를 통해 파괴적 혁신이라는 개념을 파악하고 [나] 제시문과 관련지어 해결책을 제시:

제시문 [다]를 통해 파괴적 혁신이 낮은 산업을 파괴할 정도의 극적인 기술 혁신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나]에서 제시된 경제 성장의 요인인 기술과 관련지어, [가]의 현상으로 야기된 저성장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기웅, 하윗 교수의 연구를 근거로 파괴적 혁신은 더 나은 제품과 새 로운 산업을 창조하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파괴적 혁신을 촉진할 구체적 인 방안으로써 사전트 교수가 제안한 연구개발 투자를 꼽을 수 있으며, 파괴적 혁신이 가져올 경쟁이 기 업의 추가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이어지게 되면서 기술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3) 제시문 [라]-[마]를 통해 [다]의 개념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파괴적 혁신이 낮은 수준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몰락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시문 [다]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파괴적 혁신이 사양 산업을 발생시켜 해당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일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실업이 [라]에서 설명한 구조적 실업임을 제시 하고 파괴적 혁신이 일정 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술 혁신의 부 정적인 측면으로 논술할 수 있다. 반면, 제시문 [마]는 ‘콜드 체인’이라는 기술을 예로 들어 파괴적 혁신 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강조한다. 첫 번째 긍정적인 면은 기술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 지 못한 높은 효용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 긍정적인 면은 기업의 생산 혹은 유통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라]-[마]를 통해 파괴적 혁신의 양면성을 대비하여 논술 할 수 있다.

4) 제시문 [바]를 활용하여 [다]의 필요성을 제시:

제시문 [바]는 신화 속 신이 피조물을 더욱 정교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만들기 위해 파괴와 창조를 반복하는 이야기이다. [바]의 신화를 통해 파괴적 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의 행위가 파괴적 혁신의 일련의 과정임을 이해해야 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최종 결과를 얻었는지 살펴보아야 한 다. 신은 파괴와 창조를 반복하여 피조물을 더욱더 발전된 형상으로 진화시켰고 결국 서로 대화할 줄 알고 자유의지를 가진 옥수수 인간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나]의 파괴적 혁신이라는 개념에 대입하 여, 비록 파괴적 혁신이 단기적인 고통을 수반하지만,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추구되어 야 하는 과정임을 논술할 수 있다.

4.5.2. 출제 검토 교사 의견

인문계열 2차 2번 문제는 총 6개의 제시문이 모두 교과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충실히 부합한다. 제시문 모두 학생들이 교과서 밖의 지식이나 선행 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문제에서 논하도록 하는 바 또한 명료히 드러난다. 인문계열 2차 2번 문제는 그래프를 바탕으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여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문제 상황을 도출하고, 기술과 ‘파괴적 혁신’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을 논한 뒤, ‘파괴적 혁신’이 지닌 양면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뒤 이를 옹호할 수 있는 논거를 신화를 바탕으로 제시하도록 문항을 설계하여 학생들의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종합적 사고력 등 고차원적 사고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문별로 검토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그래프와 표를 통해 시각적으로 안내된 수치 자료를 통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인해 노동의 양과 질이 모두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 교과 『사회·문화』 과목의 [12사문05-03] 성취기준, 『경제』 과목의 [12경제03-01], [12경제01-04] 성취기준, 국어 교과 언어와 매체 과목의 [12언매03-02]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히 국어, 사회 등 다양한 교과에서 제시된 시각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표현 효과를 점검하는 학습활동은 나선형으로 반복적으로 제시되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히 참여한 학생은 어려움 없이 제시된 그래프나 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령 인구 등의 용어 설명을 제시하여 사회·문화나 경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도 제시문의 내용을 선행 지식 없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의 기술 등의 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이를 제시문 [가]와 관련지어 이해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져 노동의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 교과 『경제』 과목의 [12경제03-01] 등의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충실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는 공통 과목인 『통합사회』의 [10통사05-02] 성취기준과도 관련되므로 경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지 않은 학생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다면 선행 지식 없이도 제시문의 내용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전망한 해외 전문가의 발화를 인용하고 최근 경제학상을 수상한 전문가가 주장한 이론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이를 제시문 [가], [나]와 관련지어 이해하면 한국이 앞으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제시문의 내용을 추론적으로 독해하며 논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은 국어 교과 『독서』 과목의 [12독서02-02], [12독서03-02], 사회 교과 『경제』 과목의 [12경제03-01], [12경제03-02] 등의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학적인 개념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실 세계의 경제 성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을 제시하여 경제 과목에 대한 선행 지식이 없는 학생들도 어려움 없이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실업의 유형과 각 유형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제시문에는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으며, 각 실업의 정의와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경제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도 선행 지식이 없어도 무리 없이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시된 실업의 유형 간 차이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며 기술의 파괴적 혁신이 구조적 실업을 야기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도록 문항을 설계한 점을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 교과 『경제』 과목의 [12경제03-03], 국어 교

과 『독서』 과목의 [12독서02-01] 등의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충실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콜드 체인 기술’을 화제로 하여 기술적 혁신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 성장의 가능성을 추론하여 제시문 [다]에서 안내하고 있는 ‘파괴적 혁신’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관점을 추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제시문에서 안내하고 있는 개념적 정보를 활용하여 충분히 논술할 수 있는 난이도로 제시문이 재구성되어 있으므로 『경제』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도 충분히 답안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은 고등학교 『경제』 과목의 [12경제01-04], 고등학교 『독서』 과목의 [12독서02-02], [12독서03-02]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교과서 내 지문을 활용하여 제시문을 재구성하였으므로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충실히 준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마야 문명 신화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정보의 비유적 의미를 추론하도록 서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시문 [바]에서 신들이 자신들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미약한 존재들을 파괴하는 과정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기존 산업을 파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지문의 요지로 비판적·창의적으로 추출할 수 있어야 했다. 신화 서사 구조를 이해하여 현대적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해당 제시문은 융합적 사고력을 요구하지만, 서사 정보가 시간적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핵심 용어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은 고등학교 『독서』 과목의 [12독서03-05],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12문학01-01], [12문학03-05]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교과서 내 지문을 활용하여 제시문을 재구성하였으므로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답안 작성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인문계열 2차 2번 문제는 모든 제시문이 교과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국어, 사회 교과와 다양한 과목과 관련하고,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융합적 사고력 등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라는 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 추구하는 인간상, 적용 범위, 수준 등 모든 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서강대학교 논술전형의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적합한 문항이다. 문제의 발문이 구체적이고 명료하며 단계적으로 기술되어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이며, 선행 지식 등 다른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그래프, 표, 글 등 다양한 양식의 텍스트를 활용하고 설명하는 글, 신화 등 다양한 문종의 글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며, 개념이 지닌 양면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옹호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는 문항의 설계는 학생들이 실제 사회나 학술적 상황에서 사고하고 의사결정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5.3. 자문위원 평가 의견

다음은 자문위원들에게 인문계열 2차 2번 문제의 각 제시문과 문항에 대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평가하여 순서대로 1~5점을 부여하고, 문항 난이도에 대해 ‘매우 쉽다, 쉽다, 보통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를 평가하여 순서대로 1~5점을 부여한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수치는 5점 만점으로 평균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영하였다. 인문계열 2차 2번 문제에 대한 자문위원 15명의 평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평가하였으며 평균 4.73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은 15인 모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평가를 하였으며 평균 4.67 이상의 결과

가 나왔다. 이를 통해 인문계열 2차 2번 문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있어 별도의 선행 학습이나 선행 지식 없이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별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4.67로 평가됐고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4.73으로 평가되었다.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부터 자주 다루어지는 사회문제인 만큼,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는 충분히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국어 교과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국어 과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더불어 [10국02-03], [12독서01-02], [12독서03-02], [10통사09-01], [12사문05-01], [12사문05-02], [12사문05-03]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나]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4.73으로 평가됐고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4.80으로 평가되었다. 토지, 노동, 자본의 생산의 3요소는 중학교 『사회』 교육과정,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육과정에서 모두 언급되는 만큼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12독서01-02], [10통사09-01], [12경제02-01], [12경제03-01], [12경제03-03], [10한사07-03]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다]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4.60으로 평가됐고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4.53으로 평가되었다. 신문기사 내용을 일부 수록한 제시문으로, 파괴적 혁신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경제 과목에서 학습하지 않은 학생은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통합사회』 과목에도 기업의 역할과 관련하여 기업과 정신을 설명하면서 창조적 파괴의 내용이 함께 제시되는 만큼 대다수의 학생들은 용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며 제시문 [가], [나]와 통합적으로 독해하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가 되었다. 더불어 [10국02-03], [10통사05-02], [12경제02-01], [12경제03-01], [12경제03-03], [12독서02-01], [12독서03-03]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라]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4.80으로 평가됐고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5.00으로 평가되었다. 실업의 정의는 『통합사회』 과목에서도 언급이 되며, 『경제』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제시문에 실업의 종류와 사례가 상세히 기술되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제시문에 제시된 다양한 실업의 유형 중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하는 것은 국어 교과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10국02-04], [10국02-03], [10국03-02], [12화학03-01], [12독서02-02], [12경제02-03], [12경제02-04], [12경제03-02], [12경제03-04]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마]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4.53으로 평가됐고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4.60으로 평가되었다. 콜드 체인 기술은 교과서에서 주로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사례의 일부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배경지식이 없는 학생의 경우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유통 구조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어렵지 않게 설명되었고 제시문 [나], [다]와 통합하여 독해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료 해

석을 할 수 있는 문항 설계라는 견해 또한 제시되었다. 더불어 [10국02-03], [12독서02-02], [12독서02-05], [12경제01-04], [12경제02-02], [12경제03-01], [12경제05-01]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바]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과정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4.27로 평가됐고 ‘교육과정 수준에 적정한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 4.40으로 평가되었다. 일부 교과서에 수록된 신화로서 내용을 처음 접한 학생들은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다는 견해가 일부 제기되었으나, 문제의 맥락을 파악하고 글의 상황과 접목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국어 교과 교육과정과 밀접하며, 상징적인 요소의 의미를 해석하고 철학적인 정보를 다른 제시문과 연계하여 적용하며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더불어 [10국02-03], [10국05-05], [12독서01-02], [12독서02-05], [12독서03-02], [12독서03-04] 등의 성취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문위원의 평가를 토대로 인문계열 2차 2번 문제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적정성’ 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측면에서도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난이도에 대한 자문위원의 평가는 평균 3.93이며 개별 제시문에 대한 난이도는 평균 3.47로 평가되어 전반적인 문제의 난이도와 개별 제시문의 난이도가 ‘보통 이상’이거나 ‘보통’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다]를 제외한 제시문은 모두 모두 교과서에서 발췌되거나 재구성된 내용이며, 제시문 [다]는 신문 기사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나 그 수준이 무난하여 개별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현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한 뒤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추론 과정을 요구하는 문항 설계는 기존에 자주 출제된 바 있으나, 비유적인 문학 텍스트를 활용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추론을 요구하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그래프, 표 등의 자료를 해석하고, 생산 요소, 실업, 파괴적 혁신 등의 개념을 적용하고, 콜드 체인 등의 사례를 해석하는 문항 설계로서 단순 암기나 전문 지식이 아닌 논리적인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하고 공정한 문항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볼 때, 인문계열 2차 2번 문제는 모두 교과서에서 발췌되었고 이미 기출문제를 통해 서강대학교의 논술고사에 대한 연습 경험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익숙한 유형에 해당되어 문제를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별도의 사교육이나 선행학습 요소 없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교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한 학생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면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있어 모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4.6. 채점 기준

<결과 등급 기준>

1. [가]에서 제시된 현상은 노동력 감소이며 이는 노동의 양과 질, 두 측면에서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글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또한 [가]의 현상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는가?
2. 제시문 [다]를 토대로 파괴적 혁신이 급진적 기술 혁신임을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저성장의 해결책으로써 파괴적 혁신을 제안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가?
3. 제시문 [다]로부터 파괴적 혁신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제시하고 그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가?
4. 제시문 [라]를 활용하여 파괴적 혁신이 구조적 실업을 초래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가?
5. 제시문 [마]를 통해 파괴적 혁신이 기업에게 효율성을, 소비자에게 높은 효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가?

6. 제시문 [바]에서 신의 행동이 더 나은 파조물을 만들기 위한 파괴적 혁신의 행위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파괴적 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가?

<과정 등급 기준>

1. 제시문 [나]로부터 노동이 경제 성장의 요인이라는 점을 파악하여 [가]의 노동력 저하 현상과 관련지어 경제 성장이 하락할 것이라는 결론을 논리적으로 도출하고 있는가?
2. 제시문 [다]에 제시된 파괴적 혁신이 기술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제시문 [나]에서 설명한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인 기술과 관련지어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가?
3. 제시문 [다]로부터 파괴적 혁신이 낡은 산업을 쇠퇴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제시문 [라]의 구조적 실업에 대한 설명과 연관 지어 답변의 논리성을 확보하였는가?

4.7. 답안 사례

[가]의 현상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이다. [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 국가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포괄하는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가 요구된다. 따라서 [가]에서 나타나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노동량을 줄이고, 고령화로 인해 고연령 노동자 비중이 높아지면 노동의 질이 저하되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급진적 기술 혁신을 의미하는 파괴적 혁신이 이러한 저성장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는 [나]에서 언급했듯이, 발전된 기술이 한정된 생산 요소로 더 많고 높은 질의 생산을 가능하게 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의 아기용과 하윗 교수의 연구는 파괴적 혁신이 새로운 산업과 제품을 창출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한편 파괴적 혁신을 유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사전트 교수가 제안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들 수 있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은 파괴적 위협을 촉발하여 경쟁 기업의 추가 연구개발을 유도하며 기술 발전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파괴적 혁신은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지닌다. 파괴적 혁신은 낡은 산업을 신산업으로 대체 시키는 파괴적인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라]에 제시된 구조적 실업을 발생시킨다. 구조적 실업자들은 재취업이 어려워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마]의 콜드 체인 기술은 기업에게 효율적인 유통관리를, 소비자에게 높은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괴적 혁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 준다. 이러한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파괴적 혁신은 한국 경제에 필수적이다. [바]에서 신은 더 발전된 인간을 만들기 위해 여러 재료를 사용해 가며 파괴와 창조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즉 파괴적 혁신을 통해 훌륭한 옥수수 인간을 만든 것이다. 이 신화는 사회 역시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파괴적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 준다.

한양대학교 2026학년도 논술전형



상 경 계 열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유의 사항

1. 9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시오.
2. 답안지는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시오.
3.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시오.
4.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1) 답안지를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 3)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감독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문제 1] (나)는 (가)의 ㉠에 대한 답변이다. ㉡을 중심으로 (나)의 논거를 제시하고, (다)의 관점에서 (나)의 논증을 평가하시오. (600자, 50점)

(가)

A는 임신한 여성이다. 임신 초기 어느 날 A는 임신 상태를 유지하고 태아를 출산하면 결국 자신이 죽게 되는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A에게는 다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 선택지는 A가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것이다. A가 이 선택을 하면 그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수술은 생명권을 가진 태아를 죽이는 행위이다. 두 번째 선택지는 A가 수술을 받지 않고 임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A가 이 선택을 하면 그는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심각한 질환으로 인해 A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된다. 의료진에 따르면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A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 A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나)

누군가에게 생명권이 있다는 것은 그가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A와 그의 태아 모두 이러한 의미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가진다. 그렇다면 A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상의 상황을 고려해 보자.

어느 날 아침 B는 자신이 어떤 낯선 공간에 의식 없는 유명 바이올린 연주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사실 바이올린 연주는 치명적인 신장병에 걸린 상태였고, 그의 한 열성 팬은 B의 신장을 이용하는 것만이 그를 살릴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팬은 지난밤 B를 바이올린 연주가 있는 장소로 몰래 납치했고, 바이올린 연주의 몸과 B의 몸을 의료 호스로 연결한 것이다. 잠시 후 그 팬이 B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당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런 일을 벌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하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고, 당신은 지금 바이올린 연주자와 의료 호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의료 호스를 뽑으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바이올린 연주는 바로 죽게 됩니다. 즉 의료 호스를 뽑는 것은 그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 상태를 유지하며 9개월 동안 그와 함께 누워 있으면 그는 완치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신의 신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당신은 이후 한 달 안에 죽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B는 바이올린 연주자와 의료 호스로 연결된 채 9개월 동안 함께 누워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비록 B가 의료 호스를 뽑는 것이 생명권을 가진 바이올린 연주를 죽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왜냐하면, B에게도 바이올린 연주자와 동등한 생명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올린 연주자에게는 생명 유지를 위해 9개월 동안 B의 신장을 이용할 권리가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B의 신장은 B의 것이며 그는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결국 B가 의료 호스를 뽑는다 하더라도 바이올린 연주가 부당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 A와 B가 놓인 상황의 유사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A가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다)

A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A와 B가 놓인 상황에는 유사점도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A와 그의 태아가 동등하게 가진 생명권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다음 두 가지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 우리는 타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우리가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에게 그 생명을 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타인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 의무가 타인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의무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자의 의무가 후자의 의무보다 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A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문제 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실수 t ($t < -1$)에 대하여 곡선 $y = x^2 + 1$ 위의 점 $A(t, t^2 + 1)$ 에서의 접선이 y 축과 만나는 점을 B, 점 A를 직선 $y = x$ 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C, 점 C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D라 하자. 삼각형 BCD의 넓이를 $f(t)$ 라 할 때, 함수 $f(t)$ 의 $t = -2$ 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2.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 x^2 - 324$ 에 대하여 최고차항의 계수가 2인 이차함수 $g(x)$ 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1) g(x) = g(42 - x)$$

(2) 곡선 $y = f(x)$ 위의 점 $A(2, f(2))$ 에서의 접선이 곡선 $y = g(x)$ 와 한 점에서 만난다.

자연수 n 에 대하여 두 부등식 $f(n) < 0$, $g(n) < 0$ 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 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3. 제시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매년 초 구슬을 시세대로 구입하거나 팔 수 있으며 n 년 초의 구슬 1개당 시세는 a_n 원이고

$$a_{2021} = 50000, a_{n+1} = \begin{cases} a_n + 3000 & (n \text{이 } 7 \text{의 배수일 때}) \\ a_n - 1000 & (n \text{이 } 7 \text{의 배수가 아닐 때}) \end{cases} \text{이다.}$$

(2) 구슬을 구입할 때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금액과 구슬을 팔아서 생기는 모든 금액은 매년 초마다 예금하여 1년 후에 예금한 금액의 1.1 배를 돌려받는다.

(3) n 년 초의 총 자산은 n 년 초의 구슬의 시세와 보유한 구슬의 양을 곱한 값에 예금한 금액을 더하여 구한다.

구슬이 없었던 한양이가 2021년 초에 구슬 8개를 처음으로 구입하였고, 2023년 초에 구슬 7개를 추가로 구입하였고, 2024년 초에 보유한 구슬 중 11개를 팔았다.

2021년 초의 한양이의 총 자산이 1,000,000 원일 때 2026년 초의 한양이의 총 자산을 구하시오.

한양대학교 2026학년도 논술전형

인문계열 (오후 1)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유의 사항

1. 9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2. 답안지는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십시오.
3.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4.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1) 답안지를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 3)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감독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문제] (가)와 (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한 주인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에 등장하는 ㉠와 ㉡의 언행을 각각 평가하고, 이러한 개인들의 행태가 어떤 사회적 함의를 지니는지 서술하시오. (1,200자, 100점)

(가)

두 존재가 야생에서 처음으로 대면하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주목해 보자. 두 존재는 대면 이전에는 스스로의 의식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욕망을 모든 것의 척도로 삼아 왔다. 그런데 두 존재의 의식은 자신과 다른 욕망을 가진 의식을 대면한 이후 상대의 힘을 깨닫고 자신의 욕망을 객관적 척도로 삼기 위해 죽을힘을 다해 투쟁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의식이 상대방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기의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의식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자신의 의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쟁에서 승리한 의식은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종속시키기로 결정한다. 이때 승리한 존재는 노예의 인정을 통해 주인으로서의 자기의식을 획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긴다. 반면에 노예는 자신과 인간의 한계를 이해함과 동시에 주인이 스스로를 인정받기 위해 노예인 자신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주인은 자연에 관여하지 않은 채 모든 육체적 노동을 노예에게 위임하고, 노예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제품을 스스로 생산한다. 노예는 점점 더 세련된 제품을 생산해 냄에 따라 자신이 창조자임을 발견한다. 주인은 노동을 통한 자기 성찰을 완전히 결여한 채 전적으로 노예의 생산물에 의존하여 살아가게 된다.

(나)

모든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확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의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도덕을, 그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 준거를 기준으로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으로 구별해 보기로 하자. 이때 ‘주인’과 ‘노예’는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속성이나 자질을 표상하는 지칭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도덕은 권력의 유무나 강약과는 무관하며, 한 인간 내부에서도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주인 도덕의 체계에서 인간은 고유의 내재적인 힘을 바탕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가치를 창조한다. 그 가치는 행동의 내재적인 동기이자 준거가 되므로 도구적 유용성을 떠나 그 자체로 자기충족적인 완결성을 가진다. 이에 비해 노예 도덕의 체계에서 인간은 어떤 악인(惡人)이 외부에 있고 그와 대조되는 상으로서 선인(善人)이 있다고 상정하고, 스스로 그 선인의 자리에 자신을 배치한다. 그리하여 그 악인을 고통의 원인으로 간주하면서 그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배출할 통로를 찾는다. 이때 그들은 악인으로 상정한 존재는 물론 제삼자인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혹은 악인으로 상정한 존재에 대한 감정을 감춘 채 그에게 순종하는 길을 택함으로써 자기 보존과 확장도 도모하기도 한다. 그들은 가혹한 횡포를 정의로, 겁 많은 비열함을 겸손으로 미화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도덕적 덕목들을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처럼 노예 도덕의 취약성은 외재적 준거를 충족하려는 데서 비롯된 자기기만에 있다.

(다)

[앞부분 줄거리]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하급 관리로서 평생 서류를 정리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어느 날 낡은 외투가 입을 수 없을 정도로 해서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새 외투를 마련한다. 그러나 새 외투를 입은 첫날 강도에게 외투를 빼앗긴다. 그는 정상적인 절차로는 외투를 언제 되찾을지 모른다는 판단에 따라 동료의 조언을 듣고 외투를 한시라도 빨리 찾기 위해 한 고위층 인사를 찾아가기로 한다.

동료가 ㉠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에게 추천한 ㉡ 이 고위층 인사도 원래는 마음이 선량하여 동료들에게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장관이라는 직위가 그를 완전히 바꿔 버렸다. 장관직을 얻게 된 다음부터 그는 혼란에 빠져 갈팡질팡하더니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완전히 알지 못했다. 비슷한 지위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점잖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며, 대부분은 현명하게 처신했다. 하지만 한 직급이라도 자신보다 아래인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에서는 아주 졸렬할 정도로 단순해졌다. 입을 꼭 다물어 버려 남들 보기에 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이를 깨닫고 훨씬 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며 아쉬워할 정도였다. 종종 그의 눈에서 재미있는 대화나 무리에 끼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읽을 수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정체되어 있었다. 너무 넘치게 베푸는 것은 아닐까, 너무 격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품위가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사고방식 탓에 그는 언제나 한결같이 침묵을 지켰고 가끔 짤막하게 한마디씩 내뱉은 것이 전부였으므로, 결국에는 따분한 인간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의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찾아간 것이다. 그것도 가장 안 좋은 시간에 찾아갔으니, 이 고위층 인사에게는 마침 적시에 나타나 준 것이지만,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에게는 사실 최악의 순간이었다. 고위층 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 바로 얼마 전에 찾아온 어린 시절의 오랜 지기와 더불어 유쾌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때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라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는 짙막하게 물었다.

“누구야?”

그러자 “무슨 관리랍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 그래! 기다려야겠는데, 지금은 바쁘니까.”

고위층 인사가 말했다.

여기서 이 인사의 말이 거짓말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이미 친구와 장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미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그저 서로의 넓적다리를 툭툭 치며, “그렇게 됐군, 이반 아브라모비치!” 혹은 “그러게, 스체판 바를라모비치.”라고 입을 떼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찾아온 관리를 기다리게 함으로써, 관직을 떠나 오랫동안 시골에 묻혀 있던 친구에게 자신을 만나러 온 관리를 얼마나 오래 현관에 세워 둘 수 있는가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내 잡담을 실컷 하고 흡족한 기분으로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등이 젖혀지는 안락한 의자에서 담배까지 피운 다음에야, 그는 마치 갑자기 생각나기라도 한 듯 문가에 보고서를 들고 서 있는 비서에게 말했다.

“그래, 거기 관리 하나가 기다리는 것 같은데, 들어와도 좋다고 하게.”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겸손해 보이는 외모와 낡은 제복을 발견한 고위층 인사는 느닷없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무슨 일인가?”

장관직을 얻기 일주일 전부터 방에서 혼자 거울을 보고 일부러 연습하여 익혀 놓은 딱딱 끊어지는 정확한 음성이었다.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미리 어느 정도 겁을 먹고 최선을 다해 언변이 닿는 대로 평소보다 더 자주 ‘저……’를 섞어 가며 완전히 새것인 외투를 무지막지하게 강탈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총감이나 다른 누군가가 외투를 찾아 주도록 청원을 좀 해 주십사 찾아왔다고 말했다. 장관은 웬지 모르게 그 같은 친숙한 태도가 머르장머리 없게 느껴졌다.

“귀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그는 띄엄띄엄 말을 이었다.

“절차도 모르나? 어디에 들른 거요?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몰라? 그런 일이라면 먼저 관공서에 문서로 제출했어야지. 그러면 관공서에서 계장과 부장을 거쳐 비서에게 전달될 테고, 그다음 비서가 내게 보고할 텐데…….”

“하지만 각하…….”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겨우 그나마 얼마 되지 않은 정신을 수습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때 그는 땀이 무섭게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각하께 감히 폐를 끼치고자 결심한 것은 사실 그 비서라는 사람들은 좀 믿을 수가 없어서…….”

“뭣이 어찌고 어찌?”

고위층 인사가 말했다.

“어디서 그런 정신 상태를 갖게 됐나? 그런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젊은이가 상관이나 윗사람 앞에서 이렇게 난폭하게 굴다니!”

아마 이 고위층 인사는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이미 오십 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만일 상대적으로 젊은이라고 볼릴 수 있다 해도, 그것은 그가 일흔 살 먹은 노인과 비교될 때뿐이었던 것이다.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나? 누구 앞인지 아느냐고? 도대체 알기나 해? 알기나 하난 말일세! 대답해 봐.”

이 순간 그는 발을 구르며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무서워할 정도로 언성을 높였다.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뉘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렸고 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만일 경비원이 달려와 그를 부축하지 않았다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것이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 실려 나갔다. 기대 이상의 효과에 만족한 고위층 인사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정신까지 빼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완전히 도취하여 결눈질로 친구의 반응을 살폈다. 자신의 친구조차 어쩔 줄 모르고 공포감마저 느끼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는 또 한 번 만족했다.

-니콜라이 고골, <외투>

한양대학교 2026학년도 논술전형

인문계열 (오후 2)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유의 사항

1. 9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2. 답안지는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십시오.
3.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4.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1) 답안지를 검정색 펜(샤프, 볼펜, 연필)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 3)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감독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문제] (가)의 ㉠을 활용하여 (나)의 상황을 설명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을 중심으로 (다)의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1,200자, 100점)

(가)

우리가 X를 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는 앎은 우리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조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앎은 갑과 을이 각각 X를 알고 있다는 개인 지식이나 갑과 을 모두 당연히 알아야 하는 X라는 상식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를 아는지 여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사회적 맥락에 어울리고 공동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나아가 우리가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지키거나 바꾸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가령, 어떻게 우리는 10,000원짜리 지폐를 마음 편히 사용할까? 이 지폐가 10,000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우리가 이 지폐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려면 단지 각자가 지폐의 가치를 안다는 사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폐의 가치를 안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 지폐가 단지 무용한 종잇장이 아니라 특정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회적 약속의 결과임을 확신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어느 날 10,000원짜리 지폐의 가치가 조만간에 폭락할 것이라는 사실이 그 사회 안에서 급작스레 공통의 앎으로 폭증한다면, 사람들은 당장 모든 종이돈을 팔아서 그에 상당하는 금으로 바꾸려 할 것이다.

이처럼 ‘모두가 안다는 것에 대한 모두의 앎’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유행, 관습, 계약, 규범, 제도, 법, 체제 등에 대한 집단행동의 조정과 이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동을 설명할 때에도 유용하다. 그리고 ㉡ 그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예컨대 독재 권력은 감시와 검열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을 개인 안에 가두어 억압하지만, 그렇게 억압된 앎이 일련의 공개적 사건을 통해 순식간에 집단이 공유하는 앎으로 전환됨으로써 광범위한 시민 불복종이나 민주주의 개혁을 이끈다면, 이는 긍정적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마땅히 개인의 사적 지식으로 남아야 할 유명인의 사생활을 강제로 들추어 내어 인터넷에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무도한 댓글과 집단 공격으로 해당 인사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혐오 문화의 만연을 조장한다면, 이는 강제된 앎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이다.

(나)

옛날 어느 나라에 새옷 입고 멋내는 것만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다. 임금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옷을 갈아입느라 매일같이 신하들에게 새옷을 지어 내라고 다그쳤지. 하루는 이웃 나라의 재봉사 형제가 임금님의 소문을 듣고 성을 찾아왔어.

“임금님, 저희는 세계 최고의 재봉사입니다. 게다가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기한 옷감도 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이 크게 반기며 오동나무로 만든 베틀과 북은 물론이고, 금실과 은실, 온갖 보석까지 아낌없이 형제에게 내주었어.

재봉사 형제가 옷을 짓기 시작한 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어느덧 일 년이 지날 무렵, 견디다 못한 임금님이 신하에게 형제가 무얼 만드는지 살피라고 명했어. 이에 신하가 형제의 작업실을 찾아가니, 재봉사가 있지도 않은 옷을 들어 보이는 척하면서 호들갑스럽게 말했지.

“이것 좀 보십시오. 무지갯빛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 옷이 어디 있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지만 신하는 자기더러 어리석다고 할까 봐 더럭 겁이 났어.

“오, 이렇게 멋진 옷은 처음 보았소.” 신하는 눈치를 보며 거짓말을 하고는 재봉사 형제를 임금에게 데려갔지.

“임금님, 새옷을 다 지었습니다.”

형제가 커다란 상자에서 옷을 꺼내 임금에게 입혀 주는 시늉을 하며, “이 고운 빛깔과 아름다운 무늬를 보세요. 새털처럼 가볍고 정말 근사한 옷입니다. 임금님께 아주 잘 어울리는 옷이에요.”라고 아첨했어. 함께 있던 신하들도 모두 거들었지.

임금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 의아했지만, 신하들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 봐 점잖게 말했지.

“아주 멋진 옷이구나. 이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행진할 것이다.”

팜과라 밤 팜! 임금의 행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 백성들은 벌써 새옷을 보려고 성 앞에 가득 모여 있었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래.”

잔뜩 기대하던 백성들은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화들짝 놀랐어. 하지만 손뼉을 치며 임금의 옷을 칭찬했지.

“역시 멋진 옷은 달라.”

벌거벗은 임금은 입이 짹 벌어져서 한껏 뽐내며 행진을 시작했다.

그때, 한 아이가 소리쳤어.

“하하하! 저것 좀 봐! 임금님이 벌거벗었어.”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백성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웃어댔어.

임금은 너무나 창피해서 온몸이 빨개졌지만 그렇다고 행진을 멈출 수는 없었지. 벌거벗은 임금은 끝까지 의젓한 척 걸었다. 신하들도 얼굴을 붉힌 채 임금 뒤를 따랐어.

(다)

한 지역의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소수의 지역 인사들이 모인 행사에서 특정 배경의 유권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주류 공영방송인 A 매체는 해당 후보자의 발언을 중요한 공적 사안으로 판단하고 관련 심층 취재를 진행한 뒤 사실에 기반하여 이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보도를 주요 뉴스로 연이어 내보냈다. 이튿날에도 A 방송사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후속 보도를 방영했고, 관련 뉴스 기사들은 A 방송사의 공식 누리 소통망(SNS) 채널에도 공유되어 순식간에 수십 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틀 후, 온라인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누리 소통망 채널 B는 A 방송사가 해당 후보자의 발언을 터무니없이 과장하여 보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짧은 영상 수십 개를 제작하여 집중적으로 게시했다. B 매체는 문제의 후보자가 소속된 특정 정파의 지지자들이 주를 이루는 대규모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채널에 올라온 영상의 대다수는 A 방송사가 이전부터 줄곧 특정 정치 성향의 인물들에 대한 편파 보도를 일삼아 왔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이었다. 이 영상들은 구독자들과 지지자들에 의해 수없이 반복적으로 조회되었고, 댓글 창에는 A 방송사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각종 비방 글이 폭증했다. 이와 거의 동시에 A 방송사의 누리 소통망 채널에도 악성 댓글이 무더기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관련 영상들은 일부 누리꾼들에 의해 자극적으로 편집되어 삼시간에 온라인으로 퍼져 나갔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유의 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은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계는 불연속적인 자극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상호 침투하는 혼돈의 장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자극과 혼돈을 경험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는 견고한 질서를 갖춘 일상 세계를 위협하는 것들을 감각하지 않아야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르그송은 이러한 태도를 낳는 정신의 성향을 가리켜 ‘삶에의 주의(注意)’라 표현한다. ‘주의’란 분산된 정신을 한데 모아 균형을 제공하는 것으로, ‘삶에의 주의’는 환경에 적응하고자 정신을 집중하여 신체에 유입되는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행위를 선택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인간 존재가 ‘삶에의 주의’에 의거하여 전체가 아닌 필요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는 대표적인 예는 지각과 인식이 다. 먼저 감각 기관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지각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는 사물을 보통 범주화하여 지각한다. 눈앞의 컵은 다른 컵과는 다른 그 컵만의 미묘한 뉘앙스와 고유한 질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개별자가 아닌 컵이라는 일반적 대상으로 받아들인다. 이성적 사유를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인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추상화와 일반화를 통해 개념을 만들어 내며, 그렇게 만들어진 개념을 토대로 무언가를 사유하고 추론하며 판단한다. 추상화란 여러 개체들 사이에서 공통 속성을 추려내는 작업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개체들의 차이와 특이성은 배제되고 만다. 일반화란 추상화를 통해 추려낸 공통 속성을 공유하는 유개념을 만든 후 대상들을 그 유개념에 끼워 맞추는 작업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때 유개념에 맞게 그 속성이 임의로 보태지기도 하고 제거되기도 하는 식으로 변형이 이루어진다. 베르그송은 인간의 지각과 인식이 유용성의 논리에 복속되어 보다 용이하게 사물들을 분류하고 관리하고자 왜곡을 감행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그송은 우리가 지각과 인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생명체 중에서도 고등한 존재자인 인간에게는 ‘삶에의 주의’와는 다른, ‘정신의 주의’가 존재한다. 그는 ‘정신의 주의’를 통해 소환되는 기억은 반복을 통해 학습된 기억과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반복 불가능하고 우발적이며 무용한 기억으로서, 과거 경험의 세부 사항들을 보존하고 있어 ‘탁월한 기억’이라고 말한다. 예술가들은 시각 기관에 의해 포착된 상(像) 이면의 모습을, 청각 기관에 의해 붙들린 음향 너머의 소리를 포착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삶에의 주의’에 매몰된 사람들의 지각 기능을 확장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예술가들이 발견해 낸 세계의 모습은 허구가 아니라, 우리가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에서 배제된 것들로, 이는 ‘주의의 전향’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베르그송이 자신의 예술론에서 예술가들은 탁월한 관찰자를 넘어선 탁월한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나] 문학비평가 다르코 수빈은 SF를 인지와 낮삶의 상호작용인 ‘인지적 낮삶’이 나타나는 장르로 규정하였다. 인지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경험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고, 어떤 대상을 낮설게 느낀다는 것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지와 낮삶은 반대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수빈은 SF가 인지와 낮삶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작가의 경험적 환경에 대안이 되는 상상의 틀이 SF의 주요 형식적 장치가 된다고 했는데, 이때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과학 기술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모두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인지의 영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상의 틀은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SF 작품에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이 있다고 하자. 수빈은 SF 작가가 고안한 낮선 것이 단지 작가의 상상력을 표현하는 작품 속 장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낮삶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며 느낀 이 낮삶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낮삶으로 이어진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현실을 낮설게 느끼며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빈은 SF의 낮삶은 단지 새로운 것을 접하며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 하먼은 아름다움과 지식의 차이가 객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는 객체를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거나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양초에 대해 왁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연소하면서 빛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는 객체를 어느 방향으로도 환원하지 않으면서 객체에 초점을 맞추는, 즉 지식과 무관한 인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지 활동이 곧 예술이고, 우리는 그러한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먼은 예술의 아름다움이 은유의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이루어진 은유에 관심을 가졌다. 사람들이 교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교사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다. 예컨대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와 같은 직시적(直視的) 표현에서 우리는 교사의 성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때의 교사는 우리가 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체이다. 이러한 표현은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교사는 양초이다.”라는 은유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사를 생각할 때 떠올리지 않는 양초의 성질이 교사와 결합하면서, ‘양초 같은 교사’라는 객체는 환원하기로 표현할 수 없고 지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때 이 문장을 접한 이들은 교사라는 객체와 양초의 성질 사이의 긴장 속에서 유추를 활용하여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라] 먼바다 쪽 하늘에서 붉은 노을과 검은 노을이 어지럽게 뒤엉키고 녹녹한 바람이 불어오면 오른쪽 무릎 관절이 쑤셨다. 다음날 비가 내렸다. 여름 장마 때는 임진년 울포 싸움에서 총 맞은 왼편 어깨가 결렸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무릎과 허리가 함께 아팠다. 허리의 통증이 허벅지와 장딴지의 신경을 타고 내려가 발가락 끝까지 저렸다. (중략)

서울 의금부 형틀에 묶여 있을 때, 임금의 형장(刑杖)은 몸을 가득 채우며 파고들었다. 눈앞에 캄캄한 절벽이 일어섰고 매가 거듭될 때마다 절벽은 흰빛으로 부서져 나갔다. 그리고 또 절벽이 일어섰다. 형장이 내 허반신에 닿을 때, 적탄에 맞은 왼쪽 어깨뼈 속까지 아픔의 번개들이 치받고 올라왔다. 임금의 형장이 적탄의 상처에 포개질 때마다 나는 수없이 혼절했다. 정신이 돌아오는 사이사이에 나를 심문하는 위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중략)

혼절과 혼절 사이에서 나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다. 위관의 질문은 답변을 예비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아무것도 답변할 수 없었다. 위관은 집요했으나, 아무것도 묻고 있지 않았다. 아마도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금뿐이었다. 임금은 나를 죽여서 사직을 보존하고 싶었을 것이고 나를 살려서 사직을 보존하고 싶었을 것이었다.

히데요시가 전 일본의 군사력을 휘몰아 직접 군을 지휘하며 바다를 건너올 것이라는 풍문 앞에 조정은 무겁게 침묵하고 있었다. 나를 죽이면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은 나를 풀어 준 것 같았다. 그러므로 나를 살려 준 것은 결국은 적이었다. 살아서, 나는 다시 나를 살려 준 적 앞으로 나아갔다. 세상은 뒤엎겨 있었다. (중략)

[A] 의금부에서 풀려난 뒤부터, 추운 날에는 허리가 결렸고 왼쪽 무릎이 시리고 쑤셨다. 무릎이 시릴 때, 두 다리가 땅을 밟지 못하는 것처럼 얼얼했다. 뺏속의 구멍으로 찬 바닷바람이 드나드는 듯싶었다. 뺏속을 드나드는 바람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임금의 숨결이며 기침 소리처럼 느껴졌다. 내 어깨에는 적이 들어와 살았고, 허리와 무릎에는 임금이 들어와 살았다. 활을 당겨 표적을 겨눌 때 나는 내 어깨에 들러붙은 적을 느꼈고 칼의 세(勢)를 바꾸려고 몸을 돌릴 때 나는 내 허리와 무릎 속에서 살고 있는 임금을 느꼈다. 시린 무릎으로 땅을 온전히 딛지 못할 때도 내 몸은 무거웠다. 적과 임금이 동거하는 내 몸은 새벽이면 자주 식은땀을 흘렸다. 구들에 불을 때지 않고 자는 밤에도 땀은 흘렸다.

[마] 철학자 플로리디는, 우리가 사는 세계 속의 경험은 더 이상 로그인된 정보 세계와 로그아웃된 물리 세계의 경험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인간이 자신을 독립적 존재라기보다 상호 연결된 정보적 유기체인 ‘인포그(inforg)’로 이해한다고 본다. 인포그로서 인간은 다른 생물학적 행위자들 및 공학적 인공물들과 함께 궁극적으로 정보로 이루어진 총체적 환경인 인포스피어(infosphere)를 공유한다. 인포스피어는 많은 부분 인간의 개입 없이 수많은 정보 장치들과 알고리즘, 인공 지능의 작동을 통해 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우리가 사는 실질적 생활 환경 전체를 총칭하는 말이다. 플로리디는 인포그로서의 인간이 인포스피어와 맺는 관계는 인간과 기술, 그리고 대상이나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인간과 기술의 관계는 단순히 주체와 객체, 자연과 문화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없다. 인간은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체도 아니며, 세계의 중심도 만물의 척도도 입법자도 아니다. 인간이 아닌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나 행위자는 모두 동등하게 정보적이라는 면에서 어떤 물리적 차이도 없다.

플로리디는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 존재자로서 내재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이는 칸트의 입장과 대비된다. 칸트는 어떤 것이 갖는 가치를, 그것이 수단으로서 갖는 도구적 가치와 목적으로서 갖는 내재적 가치로 구분한다. 도구적 가치는 어떤 것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수단으로서 갖게 되는 상대적 가치이며,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자의 관심이나 이해관계에 의존하는 우연적 가치이다. 이에 비해 목적으로서 갖는 내재적 가치는 해당 존재자가 그 자체로 갖는 가치로,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다. 칸트는 그러한 가치를 존엄성이라 부르며, 인격적 존재인 인간만이 목적적 존재로서 그러한 존엄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칸트의 윤리학에서 도덕적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외연은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에 한정된다. 플로리디는 이와 같이 행위자의 우선성을 가정하는 윤리적 담론 구조를 전복한다. 그는 정보적인 상호 작용에서 모든 정보적 존재자들은 도덕적 행위의 전송자인 행위자나 행위의 수신자로서 정보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해석되는 피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피동자를 도덕적 관심의 중심으로서 윤리적 담론의 핵심에 위치시킨다.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더라도 행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동자의 관점에서 도덕을 설명하려 한 것이다. 피동자에는 인격체나 생물뿐 아니라 기술이나 인공물이 포함되는데, 플로리디는 칸트가 말하는 내재적 가치를 피동자 중심의 윤리학과 결합한다. 그에 따르면 정보적 구조로 분석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로서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며, 단지 있는 그대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플로리디의 피동자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하는 주체의 관점이 아니라,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피동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통해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정보적 존재자는 최소한의 존중과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도덕적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있던 모든 종류의 존재들이 도덕적으로 유의미하고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바] Prior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formation technology comprised tools that carried out functions as dictated by humans. AI’s effects on human knowledge, however, are paradoxical. On the one hand, AI intermediaries* can navigate and analyze bodies of data vaster than the unaided human mind could have previously imagined. On the other, this power—the ability to engage with vast bodies of data—may also accentuate forms of manipulation and error. AI is capable of exploiting human passions more effectively than traditional propaganda*. Having tailored itself to individual preferences and instincts, AI draws out responses its creator or user desires. Similarly, the deployment* of AI intermediaries may also amplify inherent biases, even if these AI intermediaries are technically under human control. The dynamics of market competition prompt social media platforms and search engines to present information that users find most compelling. As a result, information that users are believed to want to see is prioritized, distorting a representative picture of reality. Much as technology accelerated the speed of information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in this era, information is being altered by the mapping of AI onto dissemination processes.

*intermediary: 매개체, propaganda: 선전, deployment: 배치, dissemination: 전파

[사] 어느 나그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제저녁엔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犬]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에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蟲]를 잡아서 그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나그네는 실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는 미물이 아닙니까? 나는 덩그렇게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서 대꾸하니 이것은 필연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대들었다.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무릇 피[血]와 기운[氣]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이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안 아릅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큰 지절[支節]과 작은 부분에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붕[大鵬]과 동일시하도록 해 보십시오. 연후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道]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1 제시문 [가]의 ‘예술가’의 행위와 제시문 [나]의 ‘작가’의 행위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30점]

2 제시문 [다]의 관점으로, 제시문 [라]의 [A]의 ‘미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3 (1) 제시문 [바]를 한국어로 요약하고, 제시문 [마]의 ‘정보적 존재자’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인간과 AI의 관계를 논하시오. [20점]

(2) 제시문 [마]에서 설명한 ‘피동자 중심 윤리학’의 관점을 적용하여 제시문 [사]의 ‘나그네’의 견해를 비판하시오. [20점]

논술고사 출제 의도 및 답안 (인문계열 I)

문항 1

1 제시문 [가]의 ‘예술가’의 행위와 제시문 [나]의 ‘작가’의 행위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30점]

문항 1 -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예술이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넓고 깊고 새로운 인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예술가와 SF 작가의 행위의 특성을 설명한 두 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각 글의 요지를 비교 분석하는 능력과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문항 1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관련
	과목명: 독서		
	성취기준 1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문항1
성취기준 2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항1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3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2022	298~299	제시문 [가]	○
2026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49~50	제시문 [나]	○

문항 1 - 문항 해설

이 문항은 인간의 지각과 인식, 그리고 예술에 대해 서로 다른 통찰을 담고 있는 두 편의 글을 읽고, 화제에 대해 두 글의 서로 다르게 주목하고 있는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가]의 ‘주의의 전향’과, 제시문 [나]의 ‘인지적 낯섦’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예술가’와 제시문 [나]의 ‘작가’의 행위에 나타나는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제시문 [가]는 『2023학년도 수능 특강 독서』에서 발췌한 글로서, 인간의 지각과 인식의 한계에 대한 베르그송의 통찰을 담고 있다. 제시문 [나]는 『2026학년도 수능 특강 독서』에서 발췌하였으며, 문학비평가 다르코 수빈이 SF 문학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두 지문 모두 전문 지식을 요하는 글이라기보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인간의 지각과 인식의 특성, 그리고 예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수준의 글이다. 또한 이 주제는 고등학교 국어과와 도덕과 과목들에서 인문 분야에 대해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게 하기 위해 빈번하게 다루는 주제이다. 답안을 작성할 때, 두 글이 예술과 창의성의 어떤 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항 1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예술가’의 행위에 대한 제시문 [가]의 견해 서술 - 인간이 이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일 때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하여 지각하고 인식함을 서술함. - 대표적인 예로 지각에서의 ‘범주화’, 인식에서의 ‘추상화’와 ‘일반화’에 의한 왜곡이 있음을 서술함. - 예술가들이 ‘주의의 전향’을 꾀함으로써 경험에서 배제된 것들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함을 서술함.	8
	‘작가’의 행위에 대한 제시문 [나]의 견해 서술 - SF 문학을 ‘인지적 낯섦’이 나타나는 장르로 규정한 문학비평가 수빈의 견해를 서술함. - ‘인지’와 ‘낯섦’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SF 작가들이 인지와 낯섦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을 서술함. - SF의 낯섦이 독자에게 가져오는 변화나 효용에 대해 서술함.	8
	제시문 [가]의 ‘예술가’의 행위와 제시문 [나]의 ‘작가’의 행위 비교 - ‘예술가’와 ‘작가’의 행위는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영역을 넓히는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서술함. - [가]의 예술가가 이미 경험한 것 중 배제된 것에 주목하는 반면, [나]의 작가는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상상의 세계를 구현하여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는 차이를 서술함.	10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4

문항 1 - 예시 답안

제시문 [가]의 베르그송의 논리에 따르면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이 세계의 자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범주화를 통한 ‘지각’, 일반화와 추상화를 통한 ‘인식’ 등에서와 같이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받아들인다. ‘삶에의 주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선택은 유용성의 논리에 따라 보다 용이하게 사물들을 분류하고 관리하

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삶에의 주의’에서 ‘정신의 주의’로 ‘주의의 전향’을 꾀하는 예술가들은 이러한 선택을 통해 우리의 경험에서 배제된 것들, 반복 불가능하고 우발적이며 무용한 것들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시문 [나]에서 수빈은 SF 문학을 ‘인지적 낯성’이 나타나는 장르로 규정한다. 어떤 대상을 경험을 통해 아는 ‘인지’와, 경험한 적이 없는 대상에 대해 느끼는 ‘낯성’은 일반적으로 반대의 상태로 인식되는데, SF 작가들은 이 ‘인지’와 ‘낯성’을 동시에 갖추고자 한다. 수빈은 SF 작가들의 이러한 창작 행위를 통해 독자들이 단지 새로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현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제시문 [가]의 ‘예술가’와 제시문 [나]의 ‘작가’는 그들의 창작 행위를 통해 우리가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해 온 것들에 갇혀 있는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넓고 깊고 새로운 인식에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제시문 [가]의 ‘예술가’가 이미 경험한 것 가운데 배제된 것들에 주목하고, ‘정신의 주의’를 통해 과거 경험의 세부 사항들을 보존하고 있는 ‘탁월한 기억’을 소환함으로써 지각과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면, 제시문 [나]의 ‘작가’는 상상을 통해 현재 과학 기술로는 경험할 수 없는 ‘낯성’의 새로운 세계를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여 인지 영역의 한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문항 2

2 제시문 [다]의 관점으로, 제시문 [라]의 [A]의 ‘미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문항 2 - 출제 의도

이 문항에서는 제시문 [다]에서 미적효과를 발생시키는 은유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은유적 표현을 찾아 그 미적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하문이 제시하는 예술론과 은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독해 능력과 제시된 작품 속 은유적 표현을 은유 이론을 통해 감상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문항 2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항2
	성취기준 2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2.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문항2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류수열 외	금성출판사	2019	119~121	제시문 [라]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6학년도 수능연계교재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89~90	제시문 [다]	○
칼의 노래	김훈	문학동네	2012	167~171	제시문 [라]	○

문항 2 - 문항 해설

제시문 [다]는 『2026학년도 수능연계교재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에 실린 하먼이 쓴 ‘예술론’을 담고 있다. 이 글은 흠이나 후설의 주체 이론을 거부하며 인간의 사유와 무관한 객체를 연구하는 하먼의 시각에서, 은유 속에서 미적 효과를 발견하는 예술론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류수열 외, 금성출판사, 2019)에 실린 김훈의 소설 『갈의 노래』다. 왜구의 적탄과 임금의 형장 때문에 생긴 상처 때문에 ‘나’(이순신)의 신체가 겪는 고통과 내적 갈등을 그리고 있다.

이 문항은 응시자로 하여금 제시문 [다]에 나오는 하먼의 은유 개념을 제시문 [라]의 소설 작품 속 은유적 표현에 적용하여 그 미적 효과를 찾아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응시자들이 은유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이를 소설 속 은유적 표현에 적용하여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다]에서 제시된 하먼의 은유 이론을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제시문 [라]에 표현된 은유적 표현(“적과 임금이 살고 있는 ‘내’ 몸(의 상처)”)에 적용하여, 서술자인 ‘나’가 겪고 있는 신체적·심리적 고통이 갖는 의미를 찾고, 그것이 독자에게 모순성과 비극성이라는 미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찾아야 한다. 이 문항은 글의 논지를 파악하는 응시자의 분석적 사고와 소설을 읽고 이해하는 비평적 이해를 요구한다.

문항 2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제시문 (다)에서 제시하는 하먼의 은유 이론 요약 - 하먼은 객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직서적 표현으로 내부 구성이나 외부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지식과는 달리, 객체를 어느 방향으로도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인지 활동인 예술에 주목함. - 하먼은 예술의 아름다움이 은유의 방식일 때 잘 나타난다고 주장, 이때 은유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미적 효과를 발생시킴. - 독자는 은유 속에서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낌.	10
	제시문 (라)의 [A]의 미적 효과와 내용 이해 - “뺨속을 드나드는 바람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임금의 숨결이며 기침 소리”, “내 어깨에는 적이 들어와 살았고, 허리와 무릎에는 임금이 들어와 살았다.”, “적과 임금이 동거하는 내 몸” 등의 은유적 표현. - “적과 임금이 살고 있는 ‘내’ 몸(의 상처)”(객체)은 직서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환원할 수 없는데, 은유적으로 이해할 때 그 미적 효과를 찾을 수 있음. - ‘내’ 몸의 상처는 왜구의 적탄과 임금의 형장 때문에 생겨 지속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적과 임금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함. - “적과 임금이 살고 있는 ‘내’ 몸의 상처”는 ‘내’가 죽어야 하는 적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내’가 지켜야 했던 임금은 나를 죽이려 하다가 ‘나’를 살리는 모순적인 상황을 잘 보여줌. 그리고 ‘내’ 몸의 상처는 적들이 남긴 고통과 두려움의 기억이면서 실제의 적인 왜구와 내부의 적인 임금이 살고 있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됨. - [A]의 은유적 표현은, 적과의 전쟁과 임금과의 갈등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모순성과 비극성을 예술적으로 잘 보여줌.	15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

문항 2 - 예시 답안

제시문 (다)는 객체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하만의 예술론을 설명하고 있다. 하만은 객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직서적 표현으로 내부 구성이나 외부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지식과는 달리, 객체를 어느 방향으로도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인지 활동인 예술에 주목하였다. 이때 예술의 아름다움은 은유의 방식일 때 잘 드러나는데, 은유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미적효과를 발생시킨다. 독자는 은유를 경험하며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제시문 (라)의 ‘나’는 임금부에서 풀려난 이후 아픈 몸 때문에 매순간 고통스러워 한다. “뺨속을 드나드는 바람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임금의 숨결이며 기침 소리”, “내 어깨에는 적이 들어와 살았고, 허리와 무릎에는 임금이 들어와 살았다.”, “적과 임금이 동거하는 내 몸” 등의 표현은 직서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환원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내’ 몸의 상처’(객체)와 ‘적과 임금(성질)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이해할 때 그 미적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소설 속에서 살펴보면, 왜구의 적탄과 임금의 형장 때문에 생긴 ‘내’ 몸의 상처는 지속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두려운 적과 임금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적과 임금이 살고 있는 ‘내’ 몸의 상처”는 ‘내’가 죽어야 하는 적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내’가 지켜야 했던 임금은 나를 죽이려 하다가 ‘나’를 살려주는 모순적인 상황을 잘 보여준다. 또한 ‘내’ 몸의 상처는 적들이 남긴 고통과 두려움의 기억이면서 실제적인 왜구와 내부의 적인 임금이 살고 있는 또 다른 비극적인 전쟁터가 된다.

이와 같이 제시문 [라]는 [A]의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적과의 전쟁과 임금과의 갈등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겪는 신체적이면서도 정신적인 모순성과 비극성을 예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문항 3

3 (1) 제시문 [바]를 한국어로 요약하고, 제시문 [마]의 ‘정보적 존재자’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인간과 AI의 관계를 논하시오. [20점]

(2) 제시문 [마]에서 설명한 ‘피동자 중심 윤리학’의 관점을 적용하여 제시문 [사]의 ‘나그네’의 견해를 비판하시오. [20점]

문항 1 - 출제 의도

문항 (1)은 제시문 [마]에서 규명한 정보적 존재자의 개념을 제시문 [바]의 인간과 AI의 역설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에 정확하게 연결하여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두 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요지 파악은 물론 각 글에 도입된 개념과 논지를 연결하여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문항 (2)는 제시문 [마]에서 설명한 ‘피동자 중심 윤리학’의 전제와 관점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이를 적용하여 제시문 [사]에 포함된 ‘나그네’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논하도록 요구하는 문제로, 글의 목적과 맥락을 고려하며 읽는 독해 능력과 문학 작품에 대한 비판적 감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문항 1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4] “영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항 3
	성취기준 2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3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2. 교과명: 영어		
	과목명: 영어 독해와 작문		관련
	성취기준 1	[12영독03-04]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12영독03-06]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함축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문항 3-(1)
성취기준 2	[12영독03-0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12영독03-02]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12영독03-03]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3.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문학 3-(2)
성취기준 2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성취기준 3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정호웅 외	천재교육	2019	37	제시문 [사]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6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2025	73~74	제시문 [마]	○
2025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특강 영어영역 영어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76	제시문 [바]	○

문항 3 - 문항 해설

■ 문항 3-(1)

이 문항은 각각 ‘정보적 존재자’로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 그리고 AI 발달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과 AI의 관계를 통찰한 두 글을 읽고 두 글에서 제시된 논지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마]에서 규명하는 정보적 존재자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AI와 인간 지식 사이의 역설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제시문 [바]의 영어 지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력이 요구된다.

제시문 [마]는 2026학년도 EBS 수능특강 국어 영역 독서 교재에 수록된 플로리다의 정보 철학에 관한 지문을 축약한 것으로, 정보로 이루어진 총체적 환경인 ‘인포스피어’ 속 인간과 기술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가 아니며, 인격체나 생물뿐 아니라 기술이나 인공물 모두 행위의 수신자이자 정보적 대상으로 인식된다는 사고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바]는 2025학년도 수능특강 영어영역 영어 교재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는데, 인간과 AI의 관계가 제작자이자 사용자로서의 인간과 도구로서의 정보기술의 관계가 아닌, 왜곡과 오류, 나아가 악용에 이를 수 있는 역설적인 관계임을 비판적으로 기술한 글이다. 두 지문 모두 새로운 개념과 관점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이를 통해 깊은 통찰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수준의 글이다. 또한 두 글의 소재와 주제는 고등학교 국어, 영어, 그리고 정보 분야 자료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정보기술 중심의 사회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답안 작성시 두 지문에서 제시된 개념과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논리적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 문항 3-(2)

제시문 [마]는 2026학년도 EBS 수능특강 국어 영역 독서 교재에 수록된 지문을 축약한 것으로,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에 관한 글이다. 이 글은,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 존재자로서 내재적인 도덕적 가치를 지니며, 행위의 수신자이자 정보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해석되는 피동자가 윤리적 담론의 핵심에 위치한다는 주지를 담고 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천재교육)에 번역문 전문이 실려 있는 이규보의 「슬견설(蝨犬說)」로서, 한문 원문은 『동문선(東文選)』 권96에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은 ‘이[蝨]’와 ‘개[犬]’의 죽음을 화제로 삼아 ‘나그네’와 ‘나’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전개되며, 사물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 본질을 보아야 한다는 경계를 전달하고 있다.

이 문항에서는 우선 제시문 [마]에서 설명한 ‘피동자 중심 윤리학’의 전제와 관점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글의 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요약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에 나타나는 ‘나그네’의 견해를 정확한 견지에서 비판하여야 한다. 본질적 요소에 착안하지 않은 채 단지 외양에 따른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점, 주객으로 고착화된 인간중심적 사고에 갇혀 대상의 내재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주어진 자료와 관계없이 배경 지식을 나열하거나 「슬견설」에만 국한하여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출제하였다.

문항 3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제시문 [바]의 요약 - 시는 단순히 인간이 지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이 아니며 인간지식에 역설적인 영향을 끼침. -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시의 힘은 정보의 조작, 오류 및 현실 왜곡을 일으킬 수 있음. - 시는 인간의 욕망에 맞추도록 제작되어 인간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증폭시킬 수 있음. - 즉 시는 제작자이자 사용자인 인간에 맞추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인간지식을 변질시킨다는 경고를 던짐.	6
	제시문 [마]에 설명된 ‘정보적 존재자’의 개념에 대한 이해 - ‘인포스피어’에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는 단순히 주체와 객체가 아니며 동등한 정보적 존재자임. - 정보적 존재자는 도덕적 행위의 전승자인 행위자나 행위의 수신자인 피동자로 분류됨. - 피동자는 인격체나 생물뿐 아니라 기술이나 인공물을 모두 포함함. - 정보적 구조로 분석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로서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짐.	4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의 핵심 요지 연결 - 제시문 [마]에서 인간과 기술 모두 정보적 존재자로, 행위자인 동시에 피동자인 동등한 관계로 보는 관점을 확인함. - 제시문 [바]에 제시문 [마]의 ‘정보적 존재자’ 개념을 적용하면, 인간은 시의 제작자이자 사용자인 동시에 시가 왜곡, 변형하는 정보의 수신자, 즉 피동자이고, 시는 생산물, 즉 피동자인 동시에 정보 왜곡과 악용의 행위자로 볼 수 있음. - 더 나아가 제시문 [바]에서 경고하는 인간과 시의 역설적인 관계를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시 기술 모두 행위자이자 피동자로 동등해지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6
	형식의 완결성 - 구조의 완결성 - 어휘, 문장의 표현력, 단락의 구성	4

3-(2)	제시문 [마]에 설명된 '피동자 중심 윤리학'의 관점에 대한 이해 -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이기에 동등하다는 점을 서술함. - '피동자'는 '행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서술함. -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로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서술함. - '피동자 중심 윤리학'에서는 행위자의 우선성을 부인하고 피동자의 관점에서 도덕을 설명한다는 점을 서술함.	4
	본질적 요소에 착안하지 않은 채 외양에 따른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점 비판 - 모든 생명체는 각기 혈기(血氣)을 지니고 있기에 동등하다는 점을 서술함. - '나그네'는 외양에 따라 '개'와 '이'를 죽이는 행위를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함.	4
	인간중심적 사고에 갇혀 대상의 내재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 비판 - '개'와 '이'는 '죽임' 행위의 피동자이며 행위자인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서술함. -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이기에 '개'와 '이'는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서술함. - '피동자 중심 윤리학'에서는 유일한 '도덕적 행위자'이자 내재적 가치를 독점하는 존재라고 자처해 온 인간의 위상 역시도 피동자 중심으로 재고된다는 점을 서술함. - '나그네'는 '개'와 '이'를 죽이는 것에 대해 인간의 도덕적 책임 유무에만 관심을 둘 뿐, 이들이 그 자체로 지니는 내재적 가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비판함.	8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4

문항 3 - 예시 답안

■ 문항 3-(1)

제시문 [바]는 AI 이전 정보기술은 인간이 지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였으나 현재 AI가 인간 지식에 미치는 영향은 역설적이라고 고찰한다. AI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정보의 조작과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개개인의 선호도에 맞춰 사용자가 원하는 반응을 제공하기에 편견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즉, 인간의 통제하에 작동됨에도 AI는 인간의 정보와 현실을 왜곡한다. 앞 시대에는 기술에 의해 정보 생산과 전파가 가속화된 반면, 지금은 AI가 정보의 전파 과정에 도입되면서 인간 정보를 변질시킨다고 이 글은 본다.

제시문 [마]는 현재 세계를 정보로 이루어진 총체적 환경인 '인포스피어'라고 규명하고 그 안에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로 이해될 수 없는 상황으로, 인간과 기술이 모두 '정보적 존재자'로 행위자이며 피동자이기도 한 동등하고 복합적인 관계로 보는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여기서 '정보적 존재자,' 즉 정보적 구조로 분석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이라는 점에서 동등하고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며, 인격체나 생물뿐 아니라 기술이나 인공물도 포함한다. 나아가, 인포스피어에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행위자의 관점이 아니라 피동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위의 정보적 존재자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은 AI의 제작자이자 사용자, 즉 행위자인 동시에 AI가 왜곡한 정보의 수신자, 즉 피동자로 볼 수 있고, AI 역시 생산물, 즉 피동자인 동시에 정보 왜곡의 행위자가 되는 역설적인 관계를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시문 [바]에서 경고하는 인간과 AI의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역설적인 관계를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AI 기술 모두 행위자이자 피동자로 동등해지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문항 3-(2) [예시 답안 ①]

제시문 [마]에 따르면,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는 ‘정보적’이라는 점에서 동등하다. 또한 ‘피동자’는 ‘행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유의미하고 중요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로서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피동자 중심 윤리학’에서는 행위자의 우선성을 부인하고, 피동자의 관점에서 도덕을 설명한다.

위의 관점을 제시문 [사]에 적용하면, 모든 생명체는 그 크기에 관계없이 각기 ‘숨’과 ‘기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육중한 짐승’과 ‘미물’이라는 외면적 표지로 ‘개’와 ‘이’를 죽이는 행위를 다르게 파악하는 ‘나그네’의 견해는 부당하다. 또한 ‘개’와 ‘이’는 인간이 행하는 ‘죽임’이라는 행위의 수신자이며 대상으로 인식되고 해석되는 피동자이다. 이들은 도덕적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자신들을 때리거나 불태워서 참혹하게 죽이는 행위자인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존재로서 도덕적으로 유의미하고 중요하다. 나아가,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이기에 ‘개’와 ‘이’는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며 그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이처럼 행위자의 우선성을 부인하는 피동자 중심 윤리학에서는 유일한 ‘도덕적 행위자’이자 내재적 가치를 전유하는 존재라고 자처해 온 인간의 위상 역시도 피동자 중심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을 적용하면, 제시문 [사]의 ‘나그네’는 ‘개’와 ‘이’를 죽이는 것에 대해 그 행위자인 인간의 도덕적 책임 유무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 ‘개’와 ‘이’가 그 자체로 지니는 내재적 가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 좁은 소견이 드러난다.

결국 ‘나그네’는 생명이라는 본질적 요소에 착안하지 않은 채 단지 외양에 따른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점, 주객으로 고착화된 인간중심적 사고에 갇혀 개별 존재자의 내재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견해를 비판할 수 있다.

■ 문항 3-(2) [예시답안 ②] (내용은 같고 서술 순서만 다름)

제시문 [마]에 따르면 ‘인포스피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자’는 그 양이나 질적 가치에 관계없이 모두 ‘정보적’이라는 점에서 동등하다. 이러한 입장을 제시문 [사]에 적용하면, 모든 생명체도 그 크거나 외양에 관계없이 각기 ‘숨’과 ‘기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육중한 짐승’과 ‘미물’이라는 외면적 표지로 ‘개’와 ‘이’를 죽이는 행위를 다르게 파악하는 ‘나그네’의 견해는 부당하다.

한편, ‘피동자 중심 윤리학’의 견지에서, ‘개’와 ‘이’는 인간이 행하는 ‘죽임’이라는 행위의 수신자이며 대상으로 인식되고 해석되는 ‘피동자’이다. 이들은 도덕적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자신들을 때리거나 불태워서 참혹하게 죽이는 ‘행위자’인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고 상기시키는 존재이다. 때문에 ‘도덕적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온 이들도 도덕적으로 유의미하고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들은 도구적 가치만을 지닌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며 그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행위자의 우선성을 부인하는 피동자 중심 윤리학에서 모든 존재자는 ‘도덕적 피동자’이다. 따라서 내재적 가치를 전유하며 유일한 ‘도덕적 행위자’로 자처해 온 인간의 위상 역시도 피동자 중심으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관점을 적용하면, 제시문 [사]의 ‘나그네’는 ‘개’와 ‘이’를 죽이는 것에 대해 그 행위자인 인간의 도덕적 책임 유무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 ‘개’와 ‘이’가 그 자체로 지니는 내재적 가치와 권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부면에서 그 좁은 소견이 드러난다. 결국 ‘나그네’는 생명이라는 본질적 요소에 착안하지 않은 채 단지 외양에 따른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점, 주객으로 고착화된 인간중심적 사고에 갇혀 개별 존재자의 내재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견해를 비판할 수 있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I)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유의 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은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각기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였다. 천하에 공공을 이롭게 하는 일이 있어도 누구도 그것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고, 공공을 해치는 일이 있어도 누구도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때 어느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천하로 하여금 그 이익을 받게 하며, 자기 개인에게 해로운 것을 해로움으로 여기지 않고 천하로 하여금 그 해로움을 내버리게 하였다. 이 사람의 수고는 필시 천하 사람들보다 천만 배는 되었다. 천만 배의 수고를 하면서도 자기는 또한 그 이익을 누리지 않으니, 필시 천하 사람들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었다. 그래서 옛날의 군주 가운데 이모저모 생각해서 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은 자는 허유(許由)와 무광(務光)이었다. 비록 군주의 자리에 올랐으나 또한 물러난 자는 요(堯)와 순(舜)이었다. 처음에는 군주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려 했으나 물러나지 못한 자는 우(禹)였다. 어찌 옛날 사람들이라고 다를 바가 있겠는가? 편안함을 좋아하고 수고로운 것을 싫어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감정과 같다.

그러나 후대의 군주들은 그렇지 않다. 천하의 이익과 해로움의 권한이 모두 군주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여기며, 천하의 이익을 전부 자기에게로 돌리고, 천하의 해로움을 전부 남에게로 돌리면서 또한 잘못이라는 생각이 없다.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의 매우 사사로운 것을 천하의 공적 임부라고 생각한다. (중략) 옛날에는 천하 사람이 주인이고 군주는 객이었다. 군주가 일생 동안 경영한 것은 천하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군주가 주인이고 천하가 객이 되었다. 무릇 천하가 안녕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군주 때문이다. 군주가 천하를 얻지 못했을 때는, 천하 백성들의 간과 너를 상하게 하고 천하 백성들의 자녀를 이산시켜 자기 한 사람의 재산을 넓히면서도 조금도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나는 오로지 나의 자손을 위해 창업을 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군주가 이미 천하를 얻고 나서는, 천하 백성들의 골수를 빼내고 천하 백성들의 자녀를 이산시켜 자기 한 사람의 음란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것은 나의 재산에서 나온 이자이다.”라고 말한다. 그러한즉 천하의 큰 해가 되는 것은 군주뿐이다. 만약 군주가 없다면 사람들이 각자의 이로움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오호! 어찌 군주를 둔 도리가 본래 이와 같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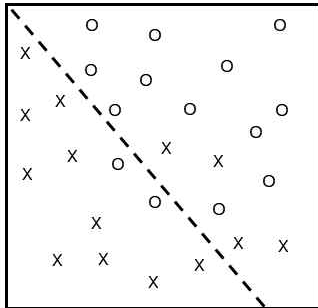
[나] 저는 모든 군주들이 잔인하지 않고 인자하다고 생각되기를 더 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자비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베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체재례 보르자는 잔인하다고 평가되었지만, 그는 엄격한 조치들로 로마나 지방의 질서를 회복하였고, 그 지역을 통일하였으며, 또한 평화롭고 충성스러운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잘 생각해 보면, 잔인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을 피하려고 피스토이아가 사분오열되도록 방치한 피렌체인들과 비교할 때, 보르자가 훨씬 더 자비롭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자신의 신민들의 결속과 충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잔인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자비로움으로 무질서를 방치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약탈당하게 하는 군주보다, 소수의 몇몇을 시범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기강을 바로잡는 군주가 실제로는 훨씬 더 자비로운 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지 않지만, 후자는 단지 특정한 개인들만을 해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신생 국가가 위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군주 중에서도 특히 신생 국가의 군주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공화국은 누가 그것을 행사하건 무제한적이고 원칙이 없는 권력에, 그리고 폭군정에 대항한다. 그것이 한 사람의 지배이건 한 분파의 지배이건 또는 공동체의 이익에 반해 그들의 이익을 우위에 놓는 다수의 지배이건 관계없이 그러하다. 공화국의 이념은 군주정과의 대립 속에서 이해되고 변호된다. 그 이유는 군주정하에서 자유란 항상 한 사람의 자의에 의존하기에 좋은 주인이 악하게 될 수 있듯이 선한 군주도 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헌군주제에서도 군주는 비록 법과 의회의 힘에 제한받지만, 태생에 의해 다른 시민들에게는 없는 특권들과 힘을 가진다. 따라서 그는 공화국이 소중히 여기는 평등이라는 근본원칙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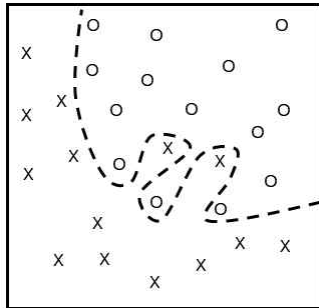
공화주의는 다른 기존의 정치사상들과 구분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공화국과 자유의 이념 때문만이 아니라 그 양자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덕성이 필요하다는 이념적 주장 때문이기도 하다. 공화주의 정치 이론가들은 무수히 반복하기를, 공화국은 그들의 독립을 빼앗으려는 외부의 침략자들로부터 방어되어야 하며, 법을 좌지우지하려 하면서 자의적으로 행동하려 하고 다른 시민들을 그들의 예속자로 만들려는 군주와 귀족들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다. 공동체의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은 정치적 부패로서, 이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인간, 인간사, 사물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따라서 시민들이 덕과 악덕을 혼동하도록 만들고, 억압에 저항하고 불의에 맞서는 도덕적 힘을 빼앗아 버리며, 그들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하고 아첨하게 만든다. 공화국을 외세, 폭군 그리고 부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 법률 그리고 기타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즉, 개인의 이익이 공공선의 일부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키는 특별한 형태의 지혜, 관대한 정신, 공적 삶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당한 욕구, 그리고 억압자에게 저항하려는 의지가 요구된다.

[라] 인공 지능(AI)의 하위 범주인 기계 학습은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다. 기계 학습에서 모델은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사건의 본질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실 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하여 표현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뛰어난 일반화 능력을 갖고 있기를, 즉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입력 데이터에 대해 정확한 출력값을 생성하기를 기대한다. 기계 학습에서는 먼저 모델의 구조를 설정하고, 훈련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파라미터(매개 변수)와 그 값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모델이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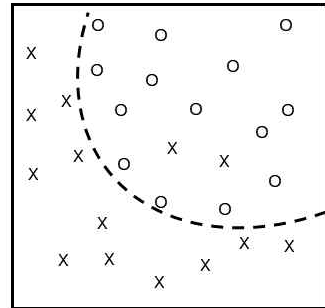
현실에서 모델이 마주하게 되는 입력 데이터는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와 항상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화 능력이 부족한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는 정확한 예측을 하더라도, 처음 보는 데이터에는 부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다. 모델의 일반화 능력은 주로 훈련 데이터의 양과 모델의 복잡도(파라미터 수) 간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와 ×를 분류하는 기계 학습 모델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그림 1>의 점선과 같이 학습이 부족하여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면 그 경우 모델이 과소적합되었다고 한다. 과소적합된 모델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반면 훈련 데이터의 특성을 잘 설명하기 위해 과도하게 많은 파라미터를 학습에 사용하면 훈련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의 오차는 감소하지만, <그림 2>에서 나타나듯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난 데이터까지 고려하게 되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모델은 과적합되었다고 한다.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델의 복잡도를 낮추거나, 훈련 데이터의 일부를 떼어내어 검증용으로 활용하는 기법이 자주 사용된다. 이를 통해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제어하고 일반화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그 결과, 최적화된 모델은 <그림 3>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마] “내일 비가 올까?”처럼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긍정 또는 부정으로 답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질문을 자주 경험한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두 가지 경우로 예측해야 하는 문제, 즉 이진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 학습에서는 주로 이진 분류 통계 기법인 ‘로지스틱 회귀’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올해 어떤 날에 비가 내릴지 내리지 않을지를 예측하려면 먼저 훈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훈련 데이터에 계절, 습도, 풍량 등 여러 정보와 ‘비 내린 날/비 내리지 않은 날’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때, 기계 학습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강우(降雨) 여부를 예측하는 통계적 모델을 구축한다. 그 후 새로운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하면 해당일의 강우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원적인 답을 도출하는 통계적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로지스틱 회귀이다.

실제 분석 사례로 한국스포츠○○연구원이 한국프로야구 승패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계 학습을 활용해 2013~2023 시즌의 총 15,488개의 경기 데이터를 분석한 예를 들 수 있다. 연구팀은 경기 전 공개된 정보만을 활용하여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자 선수별 성적, 상대 팀과의 격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총 108개 변수를 수집하였다. 이후 기계 학습 모델에 108개 변수 전부를 적용한 경우와 일부 변수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적용한 경우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108개의 변수 가운데 ㉠핵심적인 18개의 변수를 적용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59.3%의 가장 높은 예측 정확도를 기록하며 최적의 모델로 선정되었다.

1

(1)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잔인함’에 대해 평가하시오. [20점]

(2) 제시문 [다]의 ‘공화주의’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한계를 논하시오. [20점]

2

제시문 [라]의 세 그림을 활용하여 제시문 [마]에서 ㉠을 최적의 모델로 선택한 과정을 설명하시오. [30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I]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원하는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보유한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달라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에서는 판매자만 실제 품질을 알고 있고, 소비자는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 시장에는 다양한 품질의 차량이 존재하는데, 판매자는 자신이 파는 차의 품질에 비례하여 가격을 받으려 하고, 소비자는 품질을 모르기 때문에 시장의 평균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려고 한다. 이 상황에서는 양질의 중고차는 판매되지 않고 낮은 품질의 중고차만 판매된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상황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II]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차입자는 빌린 원금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지급한다. 이때 원금 대비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기업에 1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1년 후 3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이 경우의 이자율은 $\frac{30,000}{1,000,000} \times 100\% = 3\%$ 가 된다. 이처럼 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할 때 기업이 지급하기로 계약상 약속한 이자율을 ‘약정 이자율’이라고 한다. 그러나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이자율은 약정 이자율과 다를 수 있다. ‘기대 이자율’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서의 이자율에 각 상황의 발생 확률을 곱한 뒤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값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기업에 약정 이자율 10%로 대출했다고 하자. 기업이 부도 나지 않을 확률은 0.95이고, 이 경우 기업은 약정 이자를 모두 상환할 수 있다. 반면, 부도가 발생할 확률은 0.05이며, 이 경우 기업은 원금조차 상환하지 못한다. 이때 기대 이자율은 $10\% \times 0.95 + (-100\%) \times 0.05 = 4.5\%$ 가 된다.

대출 시장에 두 종류의 차입자가 있다고 하자. 우량기업의 부도 발생 확률은 $\frac{1}{6}$, 불량기업의 부도 발생 확률은 $\frac{1}{3}$ 이다. 부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약정 이자를 모두 상환하지만, 부도가 발생하면 원금조차 상환하지 못한다. 대출 시장에서 우량기업의 비중은 80%, 불량기업의 비중은 20%이다. 은행이 대출을 결정할 때 기대하는 이자율은 10%이다.

- (1) 은행이 각 기업의 부도 위험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에 적용해야 할 약정 이자율을 각각 계산하시오. [10점]
- (2) 은행이 대출 시장의 구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각 기업의 부도 위험을 알지 못할 때 모든 기업에 적용해야 하는 약정 이자율을 계산하시오. [12점]
- (3) 문항 (1)과 (2)에서 계산한 약정 이자율을 활용하여, 대출 시장에 기업의 부도 위험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논술고사 출제 의도 및 답안 (인문계열 II)

문항 1

- 1** (1)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잔인함’에 대해 평가하시오. [20점]
 (2) 제시문 [다]의 ‘공화주의’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한계를 논하시오. [20점]

문항 1 - 출제 의도

■ 문항 1-(1)

이 문항은 군주의 덕목과 책임에 관한 두 글을 읽고 각각의 핵심적인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정확한 이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문항 1-(2)

이 문항에서는 공화국과 공화주의의 특징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군주정의 한계를 비판할 수 있는 독해력과 응용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각 글의 요지를 비교 분석하는 능력과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문항 1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관련	
	과목명: 독서			
	성취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항1-(1)
	성취기준 2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항1-(2)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윤리와 사상			
성취기준 1	[12윤사04-01] 동·서양의 이상사회론들을 비교하여 현대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추론할 수 있다.	문항1-(1)		
성취기준 2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문항1-(2)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김태웅 외	미래엔	2018	119	제시문 [가]	○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21	98~101	제시문 [나]	○
고등학교 『윤리와사상』	정상봉 외	교학사	2025	184	제시문 [다]	○

문항 1 -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미래엔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수록된 황종희의 『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민본적 사상을 바탕으로 군주의 전제정치를 통렬히 비판한다. 태초의 군주가 자기의 이익보다 천하의 이로움을 추구했던 반면, 후대의 군주는 천하의 이익과 해로움의 권한을 모두 장악하여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군주가 천하의 가장 큰 해로움이 되었고 군주를 둔 원래 뜻과도 멀어지게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지학사 『독서』 교과서에 실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일부이다. 이 글에서는 군주의 인자함과 잔인함에 관해 논하면서 진정한 자비는 필요할 때 잔인한 방법을 쓰는 것임을 서술하고 있다.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하려고 우유부단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공동체 전체의 피해를 초래한다. 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해 특정 개인을 처벌하면 잔인하다는 평판을 받을 수 있지만 공동체 전체를 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비로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교학사 『윤리와사상』 교과서에 실린 비롤리의 『공화주의』 일부를 발췌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공화국이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에 기반함을 설명하면서 무제한적인 권력과 자의적인 지배에 기반한 군주정과 대비됨을 설명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법률 이외에도 시민적 덕성이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임을 설명하고 있다.

■ 문항 1-(1)

이 문항은 응시자들로 하여금 제시문 [가]의 관점으로 제시문 [나]의 ‘잔인함’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제시문 [가]는 군주가 공익과 사익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는지에 따라 극단적으로 대비됨을 보여준다. 반면, 제시문 [나]에서는 군주의 공동체를 위한 잔인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자비로운 행위임을 서술하고 있다. 문항 1-(1)에서는 한 제시문의 관점으로 다른 제시문의 핵심 문제의식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응시자들이 충분한 사고력과 논리력을 갖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가]에서는 공익을 추구했던 태초의 옛 군주와 대비하여 사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천하의 혼란을 초래한 후대 군주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서술하면서 공익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군주의 잔인함과 인자함에 대한 평판을 비교하면서, 군주 개인에게는 이롭지 않은 잔인하다는 평판이 공동체에는 실제적인 자비가 됨을 설명한다. 군주가 잔인하다는 평판을 듣기 싫어 인자한 방법을 사용하면 무질서를 방치하여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지만, 잔인한 방법으로 소수만 처벌하면 공동체 전체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더 자비롭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군주 개인의 평판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 문항 1-(2)

이 문항은 제시문 [다]의 ‘공화주의’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한계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응시자들이 제시문 [다]에 나타난 ‘공화주의’의 특징과 차별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제시문 [다]의 ‘공화주의’는 무제한적인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반대한다. 이를 통해 자유와 평등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권에 반대하고 평등과 자유를 옹호하는 공화주의는 또한 시민적 덕성에 의존한다. 시민적 덕성은 시민들의 지혜, 관대한 정신, 공적 삶에의 참여 욕구 그리고 억압에의 저항 의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는 군주정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추구한 옛날의 선한 군주도 결국 후대에는 사익만을 추구하는 폭군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군주제가 한 사람의 자의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폭군은 사람들을 자기 이익 추구의 대상이자 도구로 취급하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자기 이익 추구도 제한한다. 제시문 [다]의 공화주의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과 자의적 지배를 비판하고 시민적 덕성을 강조했다면, 제시문 [가]의 군주제는 자의적 권력 속에서 사익만 추구하고 백성들을 예측시켜 스스로 판단하고 저항할 힘마저 빼앗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주어진 자료와 관계없이 공화주의와 군주정에 관련한 배경지식을 나열하거나, 제시문 [가]에만 국한하여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도록 출제하였다.

문항 1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군주에 대한 제시문 [가]의 관점 설명 - 제시문 [가]는 공익(천하의 이익)을 우선하는 옛날의 군주와 사익(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후대 군주를 대비적으로 설명 - 군주가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면 백성과 천하는 혼란에 빠짐	6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잔인함’ 평가 - 제시문 [나]의 ‘잔인함’은 군주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모습 - 인자하다는 평판을 추구하는 군주는 결과적으로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음 - 지나친 자비로움은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켰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의 후대 군주의 잔인함과 큰 차이가 없음 - 제시문 [나]의 ‘잔인함’은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위한 군주의 더 큰 자비로움이라는 점에서 역설적	10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4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2)	제시문 [다]의 공화주의에 대한 설명 - 공화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며, 무제한적이고 원칙 없는 권력에 반대함 - 공화주의가 다른 정치사상과 구별되는 것은 시민적 덕성 -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 이외에, 개인의 이익을 지키는 지혜와 관대한 정신, 정치 참여와 억압자에 저항하는 의지가 요구됨	8
	제시문 [다]의 공화주의와 대립되는 제시문 [가]의 군주정의 한계 - 군주 한 사람의 무제한적이고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기반함 - 선한 군주도 악하게 될 수 있음 -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범할 수 있음 - 정치적 부패로 사람들의 판단 능력과 도덕적 힘을 상실시켜 예속 관계를 강화함	8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4

문항 1 - 예시 답안

■ 문항 1-(1)

제시문 [가]는 공익과 사익의 대비 속에서 올바른 군주의 모습에 관해 서술한다. 옛날의 군주가 천하의 이익이라는 공익을 위해 일했던 반면, 시대가 흘러 후대의 군주는 자기 개인과 후손의 사익만을 추구함으로써 백성의 삶이 피폐해지고 천하는 혼란에 빠졌다. 천하 백성을 상하게 하면서 자기 재산을 넓히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후대 군주는 천하의 큰 해가 되었고, 본래 군주를 세운 도리वाद도 맞지 않게 되었다.

사익만을 추구하는 군주가 결국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잔인함’은 군주가 자신의 평판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내린 단호한 조치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모습이다. 단호한 대처는 특정 개인의 처형 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인자하다는 평판을 얻기 위해 지나친 자비로움으로 일관할 경우, 공동체 전체의 피해라는 더 잔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평판을 우선시켰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의 후대 군주의 잔인함과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때, 군주는 공동체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개인에게는 이롭지 않은 잔인하다는 평판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제시문 [나]의 ‘잔인함’은 역설적이지만 공동체에 질서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군주의 더 큰 자비로움인 셈이다.

■ 문항 1-(2)

제시문 [다]의 공화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며, 무제한적이고 원칙 없는 권력에 반대한다. 공화주의가 다른 기존의 정치사상들과 구분되는 이유는 시민적 덕성이 필요하다는 이념적 주장 때문이다. 공화국은 독립을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자들, 법을 좌지우지하며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폭군, 다른 시민들을 예측시키려는 부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공화국을 이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의 이익을 지키는 지혜와 관대한 정신, 정치에의 참여 욕구와 억압자에 저항하는 의지 등의 시민적 덕성이 필수적이다.

제시문 [다]의 공화주의의 특징을 바탕으로 볼 때, 제시문 [가]는 군주정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우선 군주정은 군주 한 사람의 무제한적이고 자의적인 권력 행사에 기반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므로, 처음의 선한 군주도 결국 악하게 변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또한, 군주는 태생적으로 특권과 힘을 가져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범할 수 있다. 특히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와 사익 추구로 인한 정치적 부패는 사람들의 판단 능력과 억압에 저항하고 불의에 맞서는 도덕적 힘을 상실하게 한다. 그 결과 예측 관계가 강화되어 천하의 모든 사람을 군주 한 사람에게 복종하고 아첨하게 만든다.

요컨대 제시문 [다]의 공화주의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과 자의적 지배를 비판하고 시민적 덕성을 강조한다면, 제시문 [가]의 군주는 사익만 추구하고 백성들을 예측시켜 스스로 판단하고 저항할 힘마저 빼앗고 있다.

문항 2

2 제시문 [라]의 세 그림을 활용하여 제시문 [마]에서 ㉠을 최적의 모델로 선정한 과정을 설명하시오. [30점]

문항 1 -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사회과학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계 학습 모델이 과적합과 과소적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모델 선정 과정을 이해하는지 묻는다. 최적의 모델 선정 과정에는 훈련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능력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서 훈련 데이터에서 핵심적인 정보(변수)를 적용하여 기계 학습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주어진 그림과 각 글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문항 2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항 2
	성취기준 2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항 2
	과목명: 실용 국어		관련
	성취기준 1	[12실국02-03]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대상과 상황에 적합하게 표현한다.	문항 2
과목명: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기준 1	[12언매03-03] 목적, 수용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문항 2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5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170	제시문 [라]	○
2025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272	제시문 [마]	○
한국프로야구 경기결과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성능 비교와 스포츠 팬몰입 (fan engagement)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필수 외	한국체육학회지	2025	205~222	제시문 [마]	○

문항 2 - 문항 해설

이 문항은 기계 학습 모델이 과적합과 과소적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모델 선정 과정을 실제 분석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라]의 세 그림에 나타난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과 일반화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모델의 복잡도를 낮추거나, 훈련 데이터의 일부를 떼어 내어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최적화된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제시문 [마]에서 기술된 변수와 제시문 [라]의 데이터의 특성을 연결하여 생각하고, 적용된 변수의 변화는 모델의 파라미터에 영향을 주어, 모델의 복잡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제시문 [마]의 변수 중 핵심적인 18개의 변수로 구축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최적의 모델인 점을 과적합된 경우, 과소적합된 경우와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제시문 [라]는 『2025학년도 수능 특강 독서』에서 발췌한 글에 그림을 추가하여 재구성했다. 제시문 [마]는 『2025학년도 수능 특강 독서』에서 발췌한 글에 한국체육학회지에 출판된 논문을 실제 분석 사례를 요약하여 추가한 글이다. 두 지문 모두 전문 지식을 요하는 글이라기보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기계 학습에서 최적의 모델 선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글이다.

문항 2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제시문 [라]의 세 그림의 차이점을 설명 - 세 그림은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과 일반화 능력이 다른 세 모델을 비교하여 나타냄. - <그림 1>은 과소적합된 모델로, 훈련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모델임. - 과소적합된 모델은 분류 정확도가 낮고 지나치게 단순함. - <그림 2>는 과적합된 모델로, 훈련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한 모델임. - 과적합된 모델은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난 데이터까지 정확히 분류하지만, 일반화 능력이 낮을 수 있음. - <그림 3>은 최적화된 모델로 훈련 데이터의 분류 정확도가 우수함. - 최적화된 모델은 일반화 능력도 가짐.	7
	제시문 [마]의 연구 과정 요약 - 제시문 [마]에서 연구팀은 한국프로야구 승패 예측을 위해 경기 데이터를 수집함. - 연구팀은 각 경기 데이터에 대한 여러 변수를 수집함. - 다양한 조합의 변수(108개 변수 전부를 적용한 경우, 일부 변수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적용한 경우)를 적용하여 여러 기계 학습 모델을 구축함.	3
	제시문 [마]에서 ㉠을 최적의 모델로 선정한 과정 설명 - 모델에 적용된 변수의 개수에 따라 모델의 파라미터가 달라지며, 이는 모델의 복잡도에 영향을 줌. - 기계 학습 모델에 18개의 변수보다 적은 변수를 적용하거나 핵심적인 변수를 제외한 변수의 조합을 적용하면, 모델의 복잡도가 낮아지며 단순하고 과소적합된 모델이 구축 될 수 있음. 이 경우, <그림 1>과 유사하게 훈련 데이터의 승패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함. - 기계 학습 모델에 108개의 변수를 전부 적용하면, 모델의 복잡도가 증가하며 과적합된 모델이 구축될 수 있음. 이 경우, <그림 2>와 유사하게 훈련 데이터에 대한 승패 예측은 정확하지만, 일반화 능력이 낮을 수 있음.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나 검증용으로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이 낮다는 것으로 과적합된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설명함. -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핵심적인 18개의 변수를 적용한 모델이 최적의 모델로 선정됨. 이 모델은 모델의 과적합과 과소적합의 문제를 해결한 최적화된 모델로 <그림 3>과 유사하게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과 일반화 능력이 모두 우수함. 	
<p>형식의 완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

문항 2 - 예시 답안

제시문 [라]의 세 그림은 서로 다른 모델 간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설명력과 일반화 능력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은 과소적합된 모델로, 훈련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해 분류 정확도가 낮고 지나치게 단순하다. 반면 <그림 2>는 훈련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한 과적합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난 데이터까지 정확하게 분류하지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낮을 수 있다. <그림 3>은 최적화된 모델로, 훈련 데이터의 분류 정확도가 우수하고, 훈련 데이터의 주요 패턴을 잘 설명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에도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일반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마]의 연구팀은 한국프로야구 승패 예측을 위해 여러 경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각 경기 데이터에 대한 108개의 변수를 수집한 후, 다양한 조합의 변수를 적용하여 여러 기계 학습 모델을 구축하였다. 모델에 적용된 변수의 개수에 따라 필요한 파라미터와 그 값이 달라지며, 이는 모델의 복잡도에 영향을 준다. 18개보다 적거나 핵심적이지 않은 변수를 적용한 모델은 <그림 1>의 과소적합된 단순한 모델과 유사하게 훈련 데이터의 승패조차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반대로 모든 변수를 적용한 모델은 일부 변수를 적용한 모델보다 더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이는 훈련 데이터에 비해 모델의 복잡도가 증가하여, 훈련 데이터에 대한 승패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지만 과적합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모델은 <그림 2>와 유사하게, 2024년이나 2025년 경기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나 2013~2023 시즌 경기 데이터 중 학습에 사용되지 않고 검증용으로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이 낮아질 수 있다. 연구팀은 과소적합과 과적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델의 복잡도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훈련 데이터의 일부를 떼어 내어 검증용으로 활용하여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결과, 훈련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의 승패 예측을 가장 우수하게 하는 모델로 핵심적인 변수 18개를 포함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선정되었다. 다시 말해, 연구팀은 훈련 데이터 설명력과 새로운 데이터 예측 정확도(일반화 능력)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모델을 최적의 모델로 선정하였다. 이는 제시문 [라]의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적의 모델이 과소적합과 과적합 문제 사이 균형을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문항 3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1) 은행이 각 기업의 부도 위험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에 적용해야 할 약정 이자율을 각각 계산하시오. [10점]
- (2) 은행이 대출 시장의 구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각 기업의 부도 위험을 알지 못할 때 모든 기업에 적용해야 하는 약정 이자율을 계산하시오. [12점]
- (3) 문항 (1)과 (2)에서 계산한 약정 이자율을 활용하여, 대출 시장에 기업의 부도 위험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문항 3 - 출제 의도

이 문항은 대출 시장에서 기업의 부도 위험에 대한 정보가 대칭적일 때와 비대칭적일 때 은행이 제시하는 약정 이자율을 각각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역선택의 문제를 가져오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 문항을 출제하였다.

문항 3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기준 1	[12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	문항 3
성취기준 2	[12경제02-01]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 시장과 금융 시장 등에 적용한다.	문항 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경제	김종호 외 4인	씨마스	2024	85, 189	문항 3	0
경제	김진영 외 4인	미래엔	2024	73, 174	문항 3	0
경제	박형준 외 5인	천재교육	2024	85, 178	문항 3	0
경제	유종렬 외 4인	비상	2024	71, 82	문항 3	0
경제	허수미 외 6인	지학사	2023	58, 75	문항 3	0

문항 3 - 문항 해설

이 문항은 제시된 대출 시장 사례에서 기업의 부도 위험에 대한 정보가 대칭적일 때와 비대칭적일 때의 약정 이자율 계산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때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에 대해 묻고 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II]에서 설명한 약정 이자율과 기대 이자율의 개념과 계산 방법을 파악해서 사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제시문 [I]에서 중고차 시장을 사례로 역선택 문제를 설명하는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제시문 [I]은 경제 교과서의 글을 재구성하였으며, 제시문 [II]는 대출 시장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글이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두 지문에 주어진 내용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려고 하였다. 기업의 부도 위험에 관한 정보가 대칭적일 때와 비대칭적일 때 약정 이자율이 결정되는 방식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은행과 기업의 상호 작용으로 역선택이 발생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항 3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 우량기업의 약정 이자율을 구하는 식을 정확하게 제시 (3점) - 우량기업의 약정 이자율을 계산하여 정답 제시 (2점) - 불량기업의 약정 이자율을 구하는 식을 정확하게 제시 (3점) - 불량기업의 약정 이자율을 계산하여 정답 제시 (2점)	10점
3-(2)	-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에 대한 기대 이자율 식을 정확하게 적용 (4점) -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의 비중을 가중치로 적용 (4점) - 모든 기업에 적용할 약정 이자율을 계산하여 정답 제시 (4점)	12점
3-(3)	- 문항 (1)과 (2)의 이자율을 활용해서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의 반응을 설명 (4점) - 대출 시장에 불량기업만 남는다는 역선택 문제 설명 (4점)	8점

문항 3 - 예시 답안

■ 문항 3-(1)

우량기업의 부도 시와 상환 시의 확률과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확률/이자율	부도 시	상환 시
확률	$\frac{1}{6}$	$\frac{5}{6}$
이자율	-100%	$I_{우량}$

우량기업의 기대 이자율을 10%로 만드는 약정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begin{aligned} \frac{1}{6} \times (-100\%) + \frac{5}{6} \times I_{우량} &= 10\% \\ \Rightarrow \frac{5}{6} \times I_{우량} &= 10\% + \frac{100}{6}\% \\ \Rightarrow 5 \times I_{우량} &= 160\% \\ \therefore I_{우량} &= 32\% \end{aligned}$$

불량기업의 부도 시와 상환 시의 확률과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확률·이자율	부도 시	상환 시
확률	$\frac{1}{3}$	$\frac{2}{3}$
이자율	-100%	$I_{\text{불량}}$

불량기업의 기대 이자율을 10%로 만드는 약정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begin{aligned} \frac{1}{3} \times (-100\%) + \frac{2}{3} \times I_{\text{불량}} &= 10\% \\ \Rightarrow \frac{2}{3} \times I_{\text{불량}} &= 10\% + \frac{100}{3}\% \\ \Rightarrow 2 \times I_{\text{불량}} &= 130\% \\ \therefore I_{\text{불량}} &= 65\% \end{aligned}$$

■ 문항 3-(2)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할 때,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의 부도 시와 상환 시의 확률과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비중	확률·이자율	부도 시	상환 시
우량기업	80%	확률	$\frac{1}{6}$	$\frac{5}{6}$
		이자율	-100%	$I_{\text{기업}}$
불량기업	20%	확률	$\frac{1}{3}$	$\frac{2}{3}$
		이자율	-100%	$I_{\text{기업}}$

$$\begin{aligned} 0.8 \times \left(\frac{1}{6} \times (-100\%) + \frac{5}{6} \times I_{\text{기업}} \right) + 0.2 \times \left(\frac{1}{3} \times (-100\%) + \frac{2}{3} \times I_{\text{기업}} \right) &= 10\% \\ \Rightarrow \left(0.8 \times \frac{5}{6} + 0.2 \times \frac{2}{3} \right) \times I_{\text{기업}} &= 10\% - 0.8 \times \frac{1}{6} \times (-100\%) - 0.2 \times \frac{1}{3} \times (-100\%) \\ \Rightarrow 4.8 \times I_{\text{기업}} &= 180\% \\ \therefore I_{\text{기업}} &= 37.5\% \end{aligned}$$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4점 처리한다.

$$0.8 \times 32\% + 0.2 \times 65\% = 38.6\%$$

■ 문항 3-(3)

기업의 부도 위험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면 은행은 37.5%의 이자율을 제시한다. 32%의 이자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우량기업은 은행이 제시한 이자율이 그보다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 하지 않고, 65%의 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불량기업은 은행이 제시한 이자율이 그보다 낮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이 상황에서는 우량기업은 대출을 받지 않고 불량기업만 대출을 받게 된다. 이처럼 대출 시장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면 은행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기업에게만 대출을 하게 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